



11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11호

(루게 385)



◆◆◆◆◆◆◆◆ 차 례 ◆◆◆◆◆◆◆◆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새시기를 열어놓은 불멸의 주체적문예강령	4
만경대고향집 프락에서	12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여!	13
경포땅은 아름다운 산천	14
삼지연호수가에서	15
조국의 품	17
푸르른 하늘에도 이 가슴에도	18
당의 품속에서	19
소원	20
광산후보지	21
다듬은 말	31
출장길에	32
좋은 날의 깊은 생각 (외 1 편)	40
이백오십리	40
설레이라, 만풍년의 들이여	41
조국의 동서부를 하나로 이어	42
나의 작업반	43

내 고향의 버드나무	43
나는 너를 사랑한다	44
정이 깊은 사람들	45
충성의 열정을 안겨주는 뜨거운 서정	46
위대한 사랑의 자취를 더듬어	47
백리향	51
초상묘사와 형상의 질	60
독자들의 화제거리가 될수 있게	64
단편소설의 여운	66
시의 정서에 대한 생각	69
풍년든 들판에서	71
숙영지에서	74
분격의 지점에서	75
때를 몰아	77
력사는 지켜보고있다	78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새시기를 열어놓은 불멸의 주체적문예강령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15돐에 즈음하여-

리상대

1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1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1964년 11월 7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시대 문학예술발전의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조선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체적인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전하게 개화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는 문학예술앞에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을 힘있게 보여줄것을 요구하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게 하는 참된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문학예술의 창작과 건설을 위한 모든 리론실천력문제들은 오직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로작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자주성의 시대적요구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문학예술,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등대마냥 밝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로작에서 우리 혁명의 전망과 문학예술의 현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여야 할 시대적요구와 그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데 대한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로작은 문학예술이 조선혁명에 더 힘있게 복무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혀준 강령적문헌으로서 우리 나라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시기를 열어놓았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서 위대한 공헌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임무와 사명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 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이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앞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해야 할 전략과업이 나선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과 함께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혁명화되어야 온갖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어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과 임무로 내세워야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문학예술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많이 써야 한다.

남조선혁명은 오직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힘차게 펼쳐나설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혁명의 주인으로, 결정적인 동력으로 힘있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과 임무로 내세우는것은 문학예술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나서는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고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것은 문학예술이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기 위한 기본과업으로 된다.

문학예술이 조선혁명에 복무할데 대한 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임무와 사명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문학예술의 기본임무와 사명이 이와 같이 정확히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우리 인민을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참말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더욱 발전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문학예술이 조선혁명에 더 힘있게 복무하기 위한 주제문제를 가장 혁명적인 립장에서 명철하게 해결하여주시었다.

주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시대의 본질과 혁명의 요구를 문학예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시발점으로 된다. 혁명적주제를 옹계 탐구설정해야 혁명적내용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이 문제를 틀어쥐고 풀지 않고 《자유화》한다면 문학예술을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예작품과 혁명투쟁에 관한 문예작품의 창작비율을 5대5로 할것을 제기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예작품과 혁명투쟁에 관한 문예작품의 창작을 옹계 배합하고 적극 병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와 대치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야 사회주의 새 현실이 제기하는 조미의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예술의 기본주제를 사회주의건설주제에만 국한시키면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요구를 문예작품에 옹계 다 담을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주제와 함께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계속 창작해야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파거를 잊지 말고 안일해이하지 말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혁명을 계속하게 하는 혁명정신으로 끊임없이 교양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혁명투쟁의 주제가 강조되었으나 오늘 공산주의문학건설시기에는 그것이 이미 《낡은 주제》로 되었다고 하면서 평화적로동의 주제에만 일면적

으로 매달리거나 《전인류적주제》의 탐색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곧 부르조아적평화주의, 엄전사상을 고취하는것으로 될것이다. 혁명투쟁의 주제를 홀시하면 문학예술이 간고한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려는 투지를 북돋아 줄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창조적로동의 주제를 홀시하고 혁명투쟁의 주제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문학예술이 옹계 반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감을 가지도록 교양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과 사회주의를 노래한 작품창작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언제나 병진시켜야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도록 불려일으키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혁명투쟁의 주제와 사회주의건설주제를 병진시킬데 대한 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투쟁의 주제를 옹계 탐구하기 위한 생활령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주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인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풍부하고 고귀한 각종 투쟁경험과 불멸의 혁명업적,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다 구현되어있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주제는 조선에서 혁명이 완수되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도 절대로 낡아질수 없으며 우리 문학예술의 영원한 현대적주제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전통주제를 홀시하거나 일반 력사적주제와 구별하지 않고 기기에 용해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만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로작에서 혁명전통 교양의 폭을 넓힐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지금까지 진행된 혁명투쟁,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은 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간고하고 심각한 혁명투쟁이었다고 하시면서 작가들은 이 투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혁명투사들이 자라났는가를 자랑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새로 자라난 사람들에게 혁명가로서의 자부심과 영예를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고무해야 한다고 가르

치시었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한 시기에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그것을 더욱 빛내인 투쟁에까지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힐데 대한 방침은 후대들에게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영예감과 책임감을 지니게 하여주며 혁명전통교양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해나가게 하는 독창적방침이다.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힐데 대한 방침은 또한 혁명전통을 《상하좌우》로 넓히려는 기회주의적 책동을 분쇄하고 그 순결성을 건결히 옹호보위하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북반부의 혁명투쟁과 함께 남반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도 주요한 혁명투쟁주제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역사물로서는 반일, 반미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문학예술을 반제, 반미 혁명적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로작에서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역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면 과연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작은 지난날의 대작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적대작이다.

혁명적대작은 지난 시기 흔히 말해오던 서사시적형식의 큰 작품이나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한 규모가 큰 작품과 같은것이 아니다. 이러한 작품은 물론 지난날의 문학에도 없지 않았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작이 지난날의 대작과 구별되는 기본특징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혁명발전과정을 보여주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는데 있다. 다시말하면 현시대의 준엄한 계급투쟁과 혁명발전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데 보통작품과 다른 혁명적대작의 본질적특징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대작은 역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낼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혁명발전의 한 시대를 반영하고 특징짓는 전형적인 사회적사건이며 혁명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인 사변인 역사적사건들로 줄거리를 엮어야 혁명발전의 본질을 뚜렷하게 그릴수 있고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

정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기때문이다.

대작은 오랜시기에 걸치는 역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방대한 생활내용을 담아 규모가 크게 만들수도 있고 혁명발전의 어느 한 시기의 역사적사건에서 자그마한 이야기를 잡아가지고 정상의 폭을 넓혀서 만들수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대작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작품의 중심내용으로, 전형창조의 기본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문학예술의 진정한 혁명성은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에 강렬한 영향을 줄수 있도록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있다.

혁명적세계관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이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수행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가게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혁명이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사회경제관계와 사회계급관계를 뒤집어엎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복잡하고 심각한 사업인만큼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도의 의식성과 창조성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일시적흥분에 사로잡히거나 피동적으로 따라다니서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오직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해야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투쟁의 길을 끝까지 걸으며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에 관한 문제는 결국 혁명가로 되는가 못되는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사람들에게서 혁명적세계관확립이 가지는 의의뿐만아니라 혁명적세계관의 형성 및 공고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을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문예작품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할수 있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대작이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진지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이 가르치심은 혁명적대작이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가를 동경하고 혁명가로 살아가고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줄뿐아니라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투쟁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되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참으로 혁명적대작이 혁명화,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줄데 대한 사상은 문학예술이 단순히 생활을 인식하기 위한 교과서로서뿐만아니라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혁명투쟁에 결기시키기 위한 무기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어떤 종류의 예술에 더 힘을 기울일것인가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여러 가지 예술이 다 필요하지만 그가운데서도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예술가운데서도 특히 중심고리를 옳게 선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는것은 혁명적현실과 사람들의 사상미학적요구이며 우리 시대 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은 혁명하는 시대와 그 주인공. 혁명가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반영함에 있어서 소설과 영화가 다른 그 어떤 예술보다도 묘사표현적가능성이 더 풍부하고 심각하며 대중들에 대한 감화력도 그만큼 더 크다는데 기초하고있다.

소설과 영화는 다른 예술에 비하여 생활반영에서 시공간적제약을 덜 받으며 인간생활의 구석구석에 까지 깊이 침투하여 그것을 풍부하고 심오하게 분석적으로 묘사할수 있으며 시대의 본질과 혁명가의 세계관형성발전과정 그리고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생활그대로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과 영화는 혁명적대작의 요구를 가장 원만하게 실현할수 있는 예술형식이다.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은 또한 이 예술이 다른 종류의 예술보다 대중성과 보급성이 강하는데 기초하고있다.

소설과 영화는 그 어디에서나 그 어느때이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손쉽게, 편리하게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할수 있으며 누구나 보면 그 내용을 생활 그 자체의 형식으로 쉽게 파악할수 있다.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은 또한 소설과 영화가 다른 자매예술의 성과작을 낼수 있는 기초이며 토대라는데 기초하고있다.

훌륭한 소설이 있으면 그에 기초하여 좋은 영화 문학도 만들수 있고 기타 다른 무대예술작품도 얼마든지 잘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을 비롯한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문예방침이다.

또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것도 우리 당과 국가의 문예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진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는 현대적예술이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보여줄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며 기동적인 예술인 영화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시대 예술발전의 추세로 되며 그만큼 영화는 그 나라 예술발전의 수준을 가늠할수 있는 척도로도 된다.

또한 종합예술인 영화를 발전시키면 그에 따라 문학예술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영화는 문학예술발전의 중심고리로 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 전반에 일반화해나가는것은 문학예술발전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소설과 영화와 함께 노래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적인 음악발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대답을 주시었다.

문학예술가운데서도 가장 간결한 형식인 노래는 대중속에 보급성과 침투력이 아주 강하다.

훌륭한 노래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불리워지고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힘있게 울리고 혁명으로 고무추동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인민대중에게 가장 친근하며 생활과의 련계가 깊은 노래와 음악 발전에도 특히 힘을 넣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음악을 민족적바탕에 튼튼히 립각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것이 바탕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 음악을 철저히 민족적인 바탕으로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음악예술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음악을 민족적인 바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키며 특히 민요를 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인민적재능의 총화로 이루어진 민요에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예술적정서가 그들의 비위와 감정에 맞는 유순하고 은근한 선율속에 뚜렷이 체현되어있다.

그러므로 민요를 바탕으로 하는것은 우리 음악을 민족적특성이 뚜렷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밖에도 남도창이 아니라 서도민요를 표준으로 하여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며 복고주의를 극복하고 가사를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민족악기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량할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오하게 천명하시였다. 또한 서양악기를 조선음악발전에 맞게 리용하며 《자즈》를 비롯한 온갖 퇴폐적인 반동부르조아문예독소의 침습을 견결히 막아내고 우리 음악을 민족적이면서도 언제나 혁명적인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이 교시는 문학예술발전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고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광활한 길을 밝혀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들은 참으로 우리 문학예술을 그 내용에서 혁명적일뿐아니라 그 형식도 혁명하는 시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게 하는 강력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방침을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수백만독자들의 혁명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있는 혁명적작품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혁명화되지 않고서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심장으로 체득할수 없으며 혁명적작품의 주인공, 공산주의적혁명가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자기의것으로 파악할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는것은 혁명적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원리를 구현한 독창적문예방침이다.

당의 문예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을 통해 관철되며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의 주체적력량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도이며 문학예술의 혁명화는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개화발전시키기 위한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한 불멸의 백과전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우리 문학예술을

민족, 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주체의 혁명위업에 힘있게 복무하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 로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년이 지나갔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15년동안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화와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었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지난 15년동안 우리 문학예술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여주신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시킨것이다.

혁명적문예전통을 똑바로 찾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그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적문예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사회주의문학예술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추호의 편향도 없이 건전하게 개화발전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근본문제로서 나서는 혁명적문예전통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때까지 그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는 오직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해결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력사적뿌리로 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각 부문에 옮기는 방법으로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그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과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이 진실하게 묘사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창조의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영화예술이 주체영화로 개화발전하게 되었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극에 옮기는 과정에 주체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피바다》식 혁명가극이 탄생되고 가극혁명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장편소설에 옮겨짐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데 새형의 혁명소설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오늘의 연극무대에 재연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성황당》식혁명연극이 새로 탄생되고 파멸의 위기에 처해있던 연극의 운명이 구원되었으며 혁명연극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혁명영화와 혁명가극, 혁명소설에 옮겨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는 오늘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서 얼마나 격동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가. 특히 영화와 가극에 옮겨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온 누리에 빛내고 주체문학예술의 국제적지위를 한없이 높여주었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동화집 《나비와 수탉》, 장편소설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 등은 우리 인민의 심금을 얼마나 크게 울려주고있는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문학예술의 각 부문에 옮겨짐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혁명적문예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었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조선의 문학예술이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기지로 비약하게 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5년동안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이 문학예술의 각분야에서 최상의 사상예술적높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은 영화문헌들과 기념비적미술작품들에서 훌륭히 진행되었을뿐만아니라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 《누리에 붙는 불》과 같은 예술영화들에서도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총서 《불멸의 력사》에 장편소설로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훌륭히 진행된것은 우리 문학의 커다란 성과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에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근본으로 되는 수령형상문제를 정책적요구로 제기하지 못했으며 총서형식으로 반영하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

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총서형식에 담은 《혁명의 려명》, 《1932년》, 《백두산기슭》, 《고난의 행군》을 비롯한 혁명소설들이 훌륭히 창작출판됨으로써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하늘땅의 끝까지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대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되었고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또한 《력사의 새벽길》(상), 《조선의 어머니》, 《누리에 붙는 불》, 《충성의 한길에서》를 비롯한 혁명소설들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력사적요람이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력사적터전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정을 심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혁명전통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문학예술에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우리 문학예술이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발전하게 된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시대가 제기하는 가장 근본문제인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었다.

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주체철학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사람을 단순히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규정되는 수동적존재로 그리던 선행 사실주의적문학예술의 근본약점을 극복하고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사회적존재임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는 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게 되었다.

우리 문학예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력사의 대상으로만 그리던 지난날의 온갖 낡은 문학예술과는 달리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으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정치적생명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노래하는 우리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진군나팔소리처럼 힘있게 울리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큰 성과는 또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주체란 다른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이 조선혁명위업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선혁명의 주인인 조선사람의 비위와 정서에 맞아야 한다. 조선사람의 비위와 정

서에 맞는 문학예술만이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과 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과 감정이 잘 반영되어 있는 민족음악, 민족무용, 조선화 등 민족예술을 주체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만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시종일관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조선적인 것을 위주로 할 데 대한 주체의 원칙이 얼마나 훌륭히 구현되어 있는가. 여기서는 노래도 조선민요에 기초한 절가이며 방창도 우리에게 고유한 방창이며 무용도 우리에게 고유한 민족무용이며 무대미술도 조선화에 기초한 무대미술이다. 실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그 어느 한 형상수단도 조선식이 아닌 것이 없으며 우리 인민의 비위와 민족적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짓부시며 새형의 주제적 관현악이 탄생되고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고 양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좋게 배합한 조선식 악기 편성법과 노래를 아름답고 유순하게 부르는 조선식 창법이 완성된 것도 음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결실이다.

무용분야에서 온갖 이색적인 것이 청산되고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무용이 시대적 미감에 맞게 활짝 꽃피는 것도 이러한 투쟁의 결실이다.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을 비롯한 우아하고 고상한 민족무용들이 우리 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 무대들에서 그처럼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무용들이 아름답고 슬기로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훌륭히 담았기 때문이다.

미술분야에서도 주체가 철저히 섰기 때문에 조선화가 위주로 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조각, 공예, 산업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출판화 등 모든 미술종류들이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꽃피어나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가 이와 같이 민족적인 바탕 위에서 개화 발전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조선 인민의 사상 감정을 내포하는 참다운 민족적 문학예술로,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애국적 문학예술로 될 수 있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문학예술 전선에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세워진 것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그 어떤 《초계급적인 전인류적 문학예술》이 아니라 철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로동계급의 요구에 맞게 혁명화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인 것과 자본주의적인 것, 봉건적인 것을 한데 뒤섞어 놓은 범벅 문학예술로 만들면 그것은 벌써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로서의 고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근로자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 세계관

을 세워주기 위한 자기의 전투적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에게 혁명에 어긋나고 인민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부르조아 문학예술이 잠시도 발붙일 곳이 없으며 로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위하여 서만 끝없이 광활한 무대가 열려져 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 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은 근본 문제로 된다.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주인공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근본을 잊지 않고 반제혁명투쟁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이다. 또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적 만행,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 본성을 폭로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지향으로 되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 계급을 력사의 심판대에 제소하는 힘있는 고소장으로, 인민대중을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반제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전투적 기치로 되고 있으며 계급교양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사상주제적 내용에서 뿐 아니라 그 형식에서도 비로동계급적 요소가 철저히 극복되고 주체사상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훌륭히 개조되었다.

그것은 지난날 착취계급의 럽기적 취미의 희생물로, 웃음거리로 되어 예술의 범주밖에 놓여있던 교예가 오늘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위한 투쟁을 노래하는 주체예술로 새롭게 탄생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교예예술은 자본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온갖 이색적인 경향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미감에 맞게 체육문화적으로 조화되고 사상에 예술적으로 건전한 사회주의 민족교예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예술은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형태, 어느 한 주제분야에서만 혁신과 양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과 종류들이 전면적으로 개화되고 모든 주제분야에서 다같이 창작적 양양이 일어났다.

당에서는 문학예술 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영화를 중심고리로 내세우고 영화예술을 우리 시대 혁명영화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주었다.

우리 당은 또한 문학을 다른 예술보다 앞세워 발전시킬 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기울여줌으로써 소설문학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 양양이 일어났다.

특히 소설문학분야에서 최근년간에 걸쳐 전례없는 풍만한 창작적 양양이 일어났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장중편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어 나왔다.

문학의 이러한 발전은 오늘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정서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을뿐아니라 영화와 가극을 비롯한 예술전반을 힘있게 안받침해주고 있다.

영화와 소설문학분야에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진행된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공산주의자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그리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여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을 밝혀내는 혁명적대작들이 많이 나온것이다.

예술영화들인 《유격대의 오형제》, 《한 지대장의 이야기》,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을 비롯한 혁명전투주제의 대작들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산 교과서로 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투와 함께 그를 계승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력사물주제의 대작창작에서도 커다란 양상이 일어났다.

예술영화들인 《성장의 길에서》, 《금희와 은희의 운명》, 장편소설들인 《새봄》, 《갓잎농민전쟁》은 이 분야에서 거둔 성과의 일단들이다.

혁명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대작창작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문학예술앞에는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전형적모습을 훌륭히 보여준 대작을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시위해야 할 과업이 나선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문학예술창작에서 중요한 문제가면서도 지난 시기 그 어디에서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있던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대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현명한 지도를 주었다.

그리하여 예술영화들인 《로동가정》, 《꽃피는 마을》, 《암연공들》, 《이 세상 끝까지》, 《산정의 수리개들》, 장편소설들인 《평양시간》, 《생명수》를 비롯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옹호하고 그 우월성을 노래하는 시대정신의 참다운 기수가 되었다.

혁명적대작과 함께 당보의 사실처럼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인민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아담한 형식의 작품창작에서도 날에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영

화와 문학뿐아니라 음악과 무용, 미술과 교예, 연극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모든 형식들이 다 꽃피고있다. 그리고 문학예술이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과 광범한 대중적 문예활동이 배합된 기초우에서 활짝 꽃피고 있으며 예술이 대중화, 생활화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대외예술활동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오늘 우리 예술은 세상사람들속에서 《세계예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휘황한 찬란한 등대》라고 불리면서 폭풍같은 반향을 련일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이와 같이 거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은 우리의 크나큰 민족적자랑으로 된다.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버림받고 짓밟히던 우리의 민족문학예술이 이렇듯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되고 세계인민들의 끝없는 사랑과 찬양을 받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영광스러운 당은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이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한데 대한 리론, 문학예술의 근본핵인 종자에 관한 리론, 속도전에 대한 방침, 주체적인 창조체계확립을 비롯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작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온갖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풀어주었다. 그리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및 창조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방침을 내놓고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을 혁명화하는 사업과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 둘다 통일적과정으로 훌륭히 진행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이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우리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한 근본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후 지난 15년동안 우리 문학예술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으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15년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밝히신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한 자랑찬 로정이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로작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과 교시들에서 밝히주신 주체적문예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 학습하고 신념으로 만들어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만경대고향집 트랙에서

박세영

내 언제나 오고싶은
만경대고향집 트랙에 서면
오래도록 발걸음 멈추어져라
혁명일가분들이 다루시던 농쟁기앞에서

금시 밭에서 돌아와 손질해놓으신듯
보습이며 후치, 호미와 낫들,
무디여지면 날을 세워가시며
그리도 알뜰히 쓰시던 귀중한 농쟁기들!

내 귀 기울이면
모진 그 세월을 갈아엎으시듯
돌발 가시던 소리 들려오는듯
가난한 살림을 말해주는 농쟁기들을
소중히 끌어보는 마음이어!

할아버님과 할머니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삼베옷이 삭아 떨어지도록
힘겨웁게 일하시던 순화벌이어!

아, 그날 어리신 원수님,
발갈고 씨뿌리시는 할아버님 모습에서
가슴속깊이 새기셨어라,
농민들 어깨를 짓누르던 가난의 멍에를

봄철이면
아지랑이 아물아물 피어오르고
까마득 저 높은 하늘에서
종다리 지종지종 노래 쏟아부을제

이 땅에 봄은 언제 오려나,
넓은 저 벌도 단숨에 갈아제끼고
이삭바다 싹싹 수월히 가을할,
기계의 큰손은 없을까,
이 나라 농민들 가슴에 맺힌 그 소원.

누구도 풀어줄수 없었던
간절한 그꿈,

그이께서 여기 농쟁기에도
깊이깊이 새겨 남으셨거니.

그때문에 비운서린 조국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수령님 그리도 일찌기
고향집 이 트랙을 나서지 않으셨던가.

아, 헤치고 넘으신 피어린 길
끝없는 시련의 자욱자욱.
눈물을 갈고 한숨을 묻던 이 땅과
새조선의 농민들을 생각하시여
봄을 꽃피워주신 수령님

백두의 우등불가
밤을 사르며 타오르던 그 불빛
천리만리 강설이 덮인 조국땅에
아침노을로 비껴왔거니.

해빛에 번쩍이는 줄보습들
가을을 다그치는 수확기소리 들어도
수령님 펼쳐주신
인민의 락원에 사는 행복 끝없고
그이께서 걷고걸으시는 길
천갈래 만갈래
여기 만경대트랙에 잇닿아있기에.

나는 정녕 듣는다.
어버이수령님 은혜로운 손길아래
농촌기계화의 봄을 받아안은 마음들,
푸른 백리벌과 층층 다락밭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처럼
뜨겁게 굽이쳐오는 우람찬 소리.

아 만경대 고향집에
인민의 태양이 솟아
락원의 강산에 울려퍼지는
농촌기계화의 봄노래!
내 가슴 깊이 안겨와라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여!

김기호

구름발을 헤치며
솟아오르는 날새와도 같이
삭도가 오른다
산중에도 높은 산 무명고지에
수령님 보내주신 첫 삭도가 오른다

오고오는 삭도에 생각도 실려오는가
식량과 피복을 등짐으로 쳐올리던 오솔길은
불길처럼 산그림자속에 묻혔는데
뜨거움에 목메이는 생각이여

있을수 없어라
천리를 달려온 승용차들도
단김을 식히며 산밑에 벗어나고
구름우에 솟은 고지를 바라보는
지휘관들 얼굴에도 그늘이 스치던 그날
전사들이 있는곳이면
높아도 올라가봐야 한다고
수풀길을 앞장서 헤치시던 어버이수령님

이 땅에 락원을 꽃피우신 오늘에도
백두준령을 넘나드시던 그 걸음으로
전사들을 위하여선
높은 령 험한 산을
기쁨으로 넘으시는 그 자욱...
자신의 로고를 잊으시는 그 사랑...

산이 높아 차길을 낼수 없다면
삭도를 놓아 하늘길을 열어주자고
그러면 전사들이 더 기뻐할게 아니냐고
지형도를 펼쳐드신채
몇번이고 산언덕을 오르내리시며
몸소 잡아주신 삭도길이여!

기뻐하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며
삭도화가 다 되었다는 보고에

고맙소! 고맙소!
인제는 한시름 놓게 되었소!
수령님께서 못내 만족해하실 때
어찌하여 우리는
한마디 인사조차 드릴수 없었던가

가렬한 싸움의 그날엔
벌써 선기가 난다고
전사들에게 더운밥, 더운국을 먹이라고
불타는 고지에 전해지던 그 말씀
앞에는 최전선 위험하다고
눈물에 젖어 막아서던 너전사를 달래시며
불비속을 헤쳐가시던 사랑의 그 자욱이
저 삭도길에 이어져 뜨겁게 안겨움이여

높은 산, 험한 길은
자신께서 다 걸으시고
안겨주신 전사들의 행복에서
언제나 기쁨을 찾으시는 수령님
그 사랑이 고마와
전사들이 눈물로 불을 적시고
지휘관들이 목이 메여 가슴을 적시고

그 사랑을 전하자고 하늘이 생겼던가
그 사랑에 받들려 고지가 솟았던가
조국의 높낮은 산과 골짜기마다에
그 자욱 굵이굵이 닿아있고
상상이 못가닿은 하늘가에도
그 사랑 은하처럼 흐르고있거니

이름없는 산이야 높으면
얼마나 높으랴만
아, 어버이수령님 오르신 사랑의 길은
끝없는 하늘의 높이로도 헤아릴길 없어라
충성으로 불타는 일당백 전사들을
끝없는 위훈의 한길로 불러주어라

경포땅은 아름다운 산천

한원희

여기 피고 또 피는 꽃들은
삼가 목메여 진한 향기 뿜고
여기 붉고 또 붉은 단풍은
한없는 승엄함에 불타오르누나

경포바다 맑은 물결은
이 기슭에 진주구슬 다 모아 뿌리고
경건히 옷깃 여미는 내 마음은
이 기슭에 뜨거운 불을 대인다

아, 김형권선생님 숨결이 어려있는곳
이끼푸른 절부암을 옆에 두고
방동고개 해월정 여기 솟아
경포땅 경포의 산천이
이토록 아름다운가

장군님의 뜻을 안으시고
첫무장소조를 이끄시고
파발리 대덕산을 이어오신
그 걸음, 그 마음이어

선생님이 산천에 뿌려주시던
장군님의 해빛을 가슴에 안으며
인민은 경포의 아름다움을 처음 보았고
가슴 울려주시는 그 음성을 새기며
바다의 파도소리를 노래처럼 들었다

아, 가시는곳마다
장군님 따르는 한길에
인민을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피눈물이 마를길 없던 두눈에

해방의 밝은 빛을 담아주신 선생님

긴긴 압제의 밤에 신음하는
이 땅, 이 강산을 불러 깨우시듯
원쑤를 쳐눕히시며 올리신 총성
여기에 남기시였구나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로!

빼앗긴 조국
빼앗긴 산천의 아름다움을 찾으시려
인민을 투쟁으로 부르시던 그 마음
여기에 남기시였구나
영원한 아름다움의 화폭으로!

이 기슭에 잇닿아 펼쳐진 총총과원엔
붉은 열매, 붉은 사과빛 노을이 타오르고
풍년벌엔 금나락 금노을이 비끼였구나
원한의 파도만이 밀려들던 바다우엔
풍어기 날리며 고기배들이 들어서누나

산은 산의 수려함을 알고
들은 들의 풍년물결을 안고
바다는 바다의 진주빛을 안고
저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경포땅, 경포의 산천!

아, 여기에 서면
그 누구나 마음은 승엄해지고
끝없이 끝없이 아름다와지누나
장군님의 해빛을 제일 먼저 안고오신
김형권선생님의 그 마음 그 총성이
우리모두의 가슴에 피고피여!

삼지연호수가에서

서봉재

하얀 안개 입김처럼 스쳐 흐르는 푸르른 삼지연 못들, 그 끝없는 맑음과 청신한 자태로 하여 이리도 마음을 끄는 것인가.

끝없는 명상속에 나는 못가를 따라 걷고 또 걷는다.

어제도 나는 이렇게 걸었고, 그전날에도 또 이렇게 걸었다.

오늘처럼 물안개 흐르는 첫새벽에도 걸었고 별무리 소리없이 내리는 한밤에도 여기 호수를 걸고 또 걸었다.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삼지연에서 휴양의 뜻깊은 나날을 보낸 나는 오늘 퇴소를 앞두고서인지 이 새벽 더더욱 깊은 감회를 안고 이 못가를 걷고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다.

즐겁고 행복에 겨운 낮과 밤들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하는 말이 평범한것만 같다. 못가에 붉게 핀 진달래 꽃송이에, 그리고 호수에 출렁이는 맑은 물결우에 어리여있는 것처럼 높고 숭고한 뜻을 헤아려보며 밤이 깊어가도 잠들길 없어 못가의 조약돌 하나를 무심히 바라볼수 없었던 그러한 나날들이었다.

이곳에서 복초의 밤을 함께 지새우며 가슴을 넓히었던 병사시절의 잊지 못할 전우와도 열싸 안았고 대학시절 지칠줄 모르며 탐구의 길을 걷던 다정한 벗과도 여기 휴양소의 키높은 지붕아래서 뜨겁게 만났다.

행복의 이 호수가에 우리를 세워준 꿈을 두고 우리는 이야기도 많았다.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나의 앞에 두갈래의 봇나무가 풍만한 가지를 펼치고 솟아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옆 하이얀 대리석으로 다듬어올린 표식비의 붉은 글발이 가슴을 몽클 흔들었다.

글발을 따라 나의 눈앞에는 장엄한 화폭이 펼쳐진다.

백두의 봄의 서곡을 알리며 진군하는 거세찬 대오의 흐름앞에는 붉은 기폭이 펼쳐인다.

1939년 5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여기 삼지연호수가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그 모습이 안개결히는 푸른 물결우에 삼삼히 어려온다.

푸르른 이갈숲을 병풍처럼 두르고 기쁨에 끝없이 설레이던 조국의 호수 삼지연! 저멀리 뒤에는 흰눈을 머리우에 띄이고 하늘가에 장엄히 솟아있는 조종의 산-백두산! 정녕 그 풍치는 신비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워 꿈결마다 가슴에 안아보던 조국강산의 수정같이 맑은 물을 정히 떠보며 감격에 목메여 하던 투사들. 달밝은 밀영의 밤이면 떠나온 고향산천이 눈에 밝히여 《사향가》를 부르며 진달래꽃수를 밤새워 놓아가던 항일의 녀대원!

조국의 이 산천에서 기어이 맞아야 할 봄이었기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모진 주림도, 총칼의 숲을 헤치는 혈전도 이겨냈고 이처럼 아름다운 조국강산이 기다리고있었기에 대오는 눈보라 만리길도 첩첩준령도 웃으며 넘고넘었으리라.

꽃피는 조국의 봄도 남먼저 부르시고 조국산천의 봄빛속에 누려갈 기쁨도 그토록 간절히 그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 삼지연호수가의 애어린 봇나무아래에 조용히 걸음을 옮겨가시였다.

헤쳐오신 불길만리, 눈보라만리길에 군복자락엔 아직도 초연냄새 질는데 못가에 피어난 진달래는 그윽한 향기를 뿜어 장군님께 인사 올리고 삼지연의 맑은 물은 진주이슬을 날리어 장군님을 반기였던만 조국산천을 둘러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휴식을 잊으셨다.

꿈결에도 못내 그리워 달려온 조국산천에 봄빛이 부풀고 꽃들은 피여있어도 일체의 구두발에 신음하고 살륙의 총칼아래 몸부림치는 강산에서 겨레들은 설움에 울고 원한에 가슴찡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취할듯 황홀한 여기 호수가에서 행군휴식의 한때를 끝없는 감격속에 보내는 대원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삼지연의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나시여 다시 한번 주변의 자연풍치를 둘러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소.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조국을 해방합시다.》

해방된 조국의 모습을 그리시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이 이 땅위에 행복의 락원을 꾸리고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살게 될 그날을 내다보시는 듯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해하시며 그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이 승리한 다음 여기서 휴양소를 지었으면 좋겠소.》

아, 진정 풍찬로숙의 그 험난한 길에 자신께서는 단 하루밤도 편히 쉬신적 없으시면서도 조국산천의 끝없는 아름다움속에 해방된 인민의 밝은 웃음을 먼저 그려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

나라를 빼앗겨 천대받고 신음하는 강산에 이 세상 제일가는 인류의 새 락원을 일떠세워주실 은혜로운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온 강산에 쏟아져 흘렀나니!

삼지연은 끝없이 설레였다.

천고의 원시림에 덮여 덧없이 흘러간 세월, 서리는 안개에 싸여 단 한번도 가슴헤쳐본적 없었고 캄캄한 어둠의 장막에 묻혀 단 한줄기의 빛도 담아본적 없거니 이 기슭에 이처럼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줄 그 언제 알았으랴.

은부석사장에 억만의 이슬로 부서지던 진주물결도 풀색군복에 매여달리며 걸음을 부여잡았건만 대오는 서둘러 떠나갔다.

긴 행군대오의 가슴마다에 굵이쳐흐르며 그토록 뜨거움을 안겨주었던 삼지연의 맑은 물!-그것은 정녕 물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진정 다시 찾아야 할 아름다운 산천이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길이 받들어모시고 행복하게 살 귀중한 조국이였다! 우리가 오늘 서있는 락원의 이 기슭이였다!

이 기슭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이 기슭에 서보기까지에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던가. 인민을 위해 투사들이 걸어온 그 길은 얼마나 멀고 멀었으며 우리를 위해서 결전에로 달려가 다시 오지 못한 이들은 또 그 얼마이랴.

나는 너무나도 평범한 나날을 거쳐 이 기슭에 닿았다. 얼마나 가까운 길로, 얼마나 탄탄한 대로를 걸어 행복의 이 호수가에 웃으며 서있는것인가.

그날처럼 산새들은 우짖는다.

순간에 큰 뜻을 남긴 투사들처럼 내 험한 눈보라길 걸어온 길 없고 죽음도 혈전도 헤쳐온 일 없건만 그날의 투사들을 마중하듯 밀림의 산새들은 변함없이 목청을 돋군다. 마치도 나를 반기는듯 떼지어 날은다.

바라보니 거울같이 맑은 삼지연호수의 푸르른 수면위에 항일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국땅에 진군했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의 대군상이 숭엄히 비껴여있는듯.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흙 한줌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력사가 어려있고 항일의 날 조국을 위한 투사들의 충성의 숨결이 스며있어 오늘에 누려가는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빛내야 하는가를 걸음걸음 비쳐주는 호수!

진정 조국을 위해 바치는것 없다면 조국과 함께 순간도 살수 없음을 천이랑 만이랑 이 가슴에 깨우치며 력사의 호수는 끝없이 설레인다.

오, 삼지연,

정녕 네 기슭에서 이 나라 금수강산의 아름다움을 순간에 다 안아볼수 있고 조국의 끝없는 아름다움속에 비껴흐르는 오늘의 참다운 행복의 무게를 진정으로 가늠할수 있으리라.

흐르는 물안개, 설레는 나무잎, 못가의 은부석을 밟으며 걷는 내 생각의 끝은 과연 어디란말인가.

불타는 진달래, 우짖는 새소리, 짙은 봄빛에 호수는 푸르건만 내 마음은 어찌하여 격정의 활화산으로 타 끓는것인가!

둘러보니 이런 생각에 묻혀 걷는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였다. 이제면 헤여질 병사시절의 그 전우도, 학창의 벗도, 이곳 휴양의 나날에 정들은 황철의 용해공도 그리고 념변의 직포공도 아니 복받은 새세대 우리의 휴양생들모두가 다 이 새벽 삼지연호수가를 말없이 걷고있었다. 즐거운 휴양의 나날은 오늘의 퇴소식으로 끝난다고 하여도 우리 모두 충성다해 한생을 걸어갈 참된 삶의 그 자욱만은 마치 여기 삼지연호수가에서 다시 시작되는듯싶었다.

조국의 품

장호건

검푸른 물결 끝없이 철썩이는
저 아드리아해도
설레이는 이 마음을 담아 파도치는가
여기 발칸반도의 한끝
크지 않은 이 나라 비행장을 향해
날아오는 조국의 비행기를 기다리며
내 지금 옷깃여미고 썼나니

울렁이는 가슴
벽차오르는 흥분이여
마음은 기쁨에 젖어 하늘가로 날으는데
안타깝구나
활주로우에 휘뿌리는 때아닌 진눈까비...

저멀리 초원너머
바람결에 실려오는 사원들의 종소리도
은은히 울려오는
흐린 하늘을 살피며
자주 더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이 마음

날씨가 사나와 착륙할수 없다고
몇번이나 전파를 날렸건만
어인 일인가
이 나라에 온 단 두명의 우리 일군들을 위해
조국의 귀중한 특별비행기가
반드시 이곳에 내리겠다 함은...

흐르는 시간
긴장과 초조속에
드디여
설레이는 이 가슴 세차게 뒤흔들며
승엄히 내려앉는
오각별 찬란한 은빛날개여

문이 열리고
성큼성큼 다가온 낮익은 동지
반가움에 목메인
나의 손을 마주잡고 놓을줄 모르누나
말없이
천천히

안고온 붉은 보를 풀어헤치누나
순간
파도 사나운 아드리아해도 숨을 죽이고
발칸산줄기에
울부짖던 바람도 머리를 숙이는가
두손을 받쳐
정중히 안겨주는 선물함안엔
아, 네땃살잡이 어린애가 입을 한벌의 새옷!

뜨거움에 젖어, 뜨거움에 젖어
내 진정 한벌의 옷만을 받아안는가
꿈결에도 그리웁던
조국의 품에 안긴듯,
물결처럼 흐느끼는 나의 어깨우로
목메이게 흐르는 조선의 봄향기여

경사로운 4월의 명절에
온 나라 꽃봉오리에게 안겨주는 새옷,
수만리 이국땅 한끝에 있는
단 한명 철없는 내 어린것에게도
조국과 한낱 한시에 입혀주라고
그처럼 머나먼 하늘길
특별비행기에 실어보내준 사랑의 선물옷!

아, 이런 사랑 그 언제 그 어디에 있었던가
두볼에 발밑에 흘러내리는 뜨거움이여
먼곳에 있을수록, 먼곳에 있을수록
더더욱 파사로이 안아주는 품이
어머니조국의 품이로구나
몸은 비록 낯선 땅 낯선 거리에 산다 하여도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 넘치는 그 품에 안겨있구나

끝없이 흐르는 행복의 눈물속으로
다시 떠나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목메이는 이 가슴
높뛰는 나의 심장
영원히 영원히 충성으로 불타리!
아아, 당중앙이 보내준
크나큰 이 사랑, 조국의 빛발을 안고

푸르른 하늘에도 이 가슴에도

정영호

아득히 흰구름 피어오르는
푸르른 하늘가
재글재글 쏟아져내리는 불볕들
소리없이 멀리 밀어버리며
자욱히 젖어내리는
분수비, 안개비

층층 다락밭우에
소형양수기며 강우기들
즐거이 노래부르고
뿔어올리는 단비속에
령롱한 무지개발이 비졌는데
발이랑을 밟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시네

송구하여 따라서는 마음들
그 몇번이고
옷자락 다 젖으신다고
간절히 아뢰이었던만
산허리에 있는 마지막 양수기
물푸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이께선 걸음을 옮기시네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온 나라 인민이
만수무강 축원을 올리던 4월의 봄명절에
그이를 이 산촌에서 뵈옵던 발머리,
그날의 꿈만 같던 층층 다락밭
기쁨이 넘치던 이랑이랑이 아닌가!

억년 가물을 모를
물줄기를 찾아내자고
천길 땅속까지 헤아려주시며
그이께서 마지막 더기에까지 오르실 때
그 몇번이고 길이 험하다고 아뢰이던 송구함이
이 가슴에 그대로 뜨거이 남아있는데

산촌의 다락밭이 가물을 몰라야

온 나라에 언제나 풍년이 든다고
이른 봄의 눈길도, 산촌의 이슬길도
소문없이 넘어오시던 그 사랑이
저렇듯 꽃으로 피어
다락밭이랑마다 분수비, 안개비,
칠색무지개 고요히 드리우는데

또다시 찾아주시었구나!
여기 평양에서 먼 산촌에도
그 무엇이나 다 주고싶으시다고
그 언제나 불러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다함없는 그 사랑
만풍년이 물결치는 산촌이 보고싶으시여
인민의 기쁨이 보고싶으시여
오시었구나! 굽이굽이 령을 넘으시여...

아! 불볕이 내리는 하늘을
분수비는 시원스러이 젖어내리건만
이 가슴은 하냥 뜨거움에 복받쳐라
그 어디를 둘러봐도 소리없이 젖어드는 그 사랑
이여!

하늘땅의 천만 조화를 틀어쥐시고
위대한 전변을 불러오신
어버이수령님
층층다락밭우에 다락밭
이랑우에 이랑을 넘어
해살같은 미소를 보내시네
온 나라가 왕가물을 몰아내자고

아! 푸르른 하늘에도, 이 가슴에도
자욱히 시려오르는 물안개 물안개...
하늘만이 땅을 적신다더냐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에선
하늘도 못주는, 정녕 하늘도 못주는 비로
땅이 하늘을 적신다네
땅이 하늘을 적신다네

당의 품속에서

황승명

자나깨나
가슴에 당원증을 품고
높뛰는 심장과 함께
내 삶이 뿌리 내린 곳

당이어
차디찬 오돌막에 태어나
돌맹이처럼 뒥굴던 나에게
새삶의 환희와
혁명가의 보람을 안겨준
은혜로운 품이어

입당청원서의 구절구절을
선서처럼 외우며
그날에 미처 몰랐던
고마운 큰 뜻이
나날이 이 가슴에 사무치누나

부모앞에 말못할
가슴속 사연도 터놓고 싶어
한밤중에도 당위원회 문을 두드리면
반겨맞던 눈빛들
마주잡던 손길들

행복한 날에
칭찬만으로 나를 키웠다면
이렇게 심장이 높뛰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타이르며
지새운 밤은 그 얼마였던가

총탄이 우박치던 준엄한 날에
당은 나를 불러주었다
나직이 울리는 동무라는 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라는
송엄한 뜻으로 심장의 벽을 두드리며

나홀로 남은 고지에서도
원쑤를 무리로 쓸어놓히며
나래치던 용맹은
그 믿음이 아니었던가

한장의 설계도면도 없이
호미와 낫을 버리던 손으로
프락또르를 만들었을 때
내 무엇을 느끼었던가
당이어 그대 있어
그렇듯 큰 기적이 태어났기에

누구나 안기면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투쟁속에 행복을 찾고
이름없던 평범한 사람도
영원한 삶이 꽃피는
주체의 힘을 지닌 영웅으로 빛나거니

진정 나는 알았노라
당이란 무엇인가
어찌하여 나의 전우들
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시각에
당비를 받쳐들고 눈을 감으면서도
행복한 웃음 입가에 지었는가를

아, 끝없는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눈앞에 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죽어서도 영생할 그 품에
나는 지금 안겨있나니

당이어
그대 위해 내 무엇을 아끼랴
당원증을 품은 내 가슴속에는
당을 위해 기꺼이 바쳐갈
심장이 높뛰고있어라

소원

김휘조

노을 피는 쇠물의 화광
해를 끌어낸 전설의 장수같이
용해공의 불덩이같은 얼굴들…
용광로를 찾을 때 생각도 간절했구나
《내 어서 커서 용해공이 되었으면》

푸른 물 뒤척이는 야영의 바다가
산같은 배 은빛물길을 달릴 때면
와와 달려오던 파도소리
이 마음 불러 못견디게 속삭이던 소리
《네 어서 커서 선장이 되어라…》

아, 꿈속에 보화의 돌문도 열어보던 시절이여
이 땅엔 좋은 일터도 많아
이 가슴엔 소원도 많았구나
잊지 못한다, 노을이 붉은 깃을 퍼던 저녁
갱에서 돌아온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던 말

-읍에 수령님께서 오셨었다고
오시여 탄부들의 건강부터 물으셨다고…

아버지는 목메여 말을 못잇고
행복한 웃음 말없이 입가에 담으며
한바늘 한바늘
어머니는 아버지 탄부복에 별을 달고
금시 처음 보는듯 구름속에 신비로이 솟은
룡문산을 바라보며 설레던 가슴이여

-바다가 열이래도 저 산과 안바꿀테다
내 어서 탄부가 되면
용해공도 부러워하리라…

아, 한해에 열살을 못먹는것이 안타까웠구나

하루에도 그 몇번
흰 안개 골짜기를 덮은 룡문산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 서둘러
청춘시절에 오고있었나니.

내 오늘은 탄부
룡문산 하늘을 찌른 봉우리도 내 손안에 있다.
착암기와 함께 억세여진 이 마음
푹러온 굴길 굽이굽이 수천메터이나
더 뚫지 못한 한치를 두고 가슴태우던 날들이여

나는 안다, 공업대회연단에서
탄부들의 자랑을 담아 우리 갯장이
년간계획 곱으로 넘쳤다 했을 때
수령님 그토록 만족하시여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주시고
회의장의 박수소리 왜 그리 그칠줄 몰랐던지…

아, 석탄을 캐내는
나는 또한 용해공-붉은 쇠물을 끓이는 사람
조국땅에 빛을 주며 열을 주며
내 또한 전기를 일구는 사람…
탄부가 된 나는
어릴적소원들을 다 이룬 사람

이 땅의 모든 일터가 소중한, 하나같이 소중한
내 다름아닌 탄부가 되었나니
발과소리 쿵쿵
새 7개년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이 가슴에
이제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어라
간절한,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

-내 이 땅을 위해 천만년
자랑스런 탄부로 살고싶어라!

광산후보지

장수근

아마 XX읍거리치고 역전의 교통안전초소만큼 이 산간 군소재지의 체모를 한몸에 모으고있는것은 없을것이다.

척 역을 나서자 가뜰히 차린 교통안전원이 부는 호각소리나 맵시있게 지휘봉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대뜸 우리의 머리속에 시내로구나 하는 인식이 박혀드는것이다.

물론 읍거리의 유일한 이 초소는 갓 생긴탓인지 아직은 한가한감이 없지 않다. 도시와는 달리 차들이 동안뜨게 다니는터라 교통안전원은 통통거리는 트락트르들에도 깎듯이 지휘봉을 들어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것은 친절한 영접인사처럼도 보이는것이다.

그리하여 이고장을 처음 찾는 길손들가운데 교통안전원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쳐도 허물치 않고 길안내봉사까지 해주는것이다.

바로 그 겸허한 안내를 받아서관으로 가던 나는 문득 단층마을 지붕너머 어느 새빠진 수탉이 청을 뿜아 초저녁해를 치는바람에 귀가 술깃해졌다. 연거퍼 울린 그 소리는 때마침 본 교통안전원의 호각소리에 내기라도 겹듯 저속 불손하게 들렸다. 그런데 그 버릇없는 수탉을서관마당에서 만나게 될줄이야.

큰일이라도 치르고난듯 잔뜩 거들먹스레 고개를 쳐든 수탉은 미심쩍은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유유히 앞길을 건너갔다.

소 닭보듯한다는 말그대로 하늘을 쳐다본 나는 비구름이 덮인 찌뿌드한 날씨가 방정맞은 수탉의 탓이거나 한듯 못마땅한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산간군의 풍물이거니 하고 놀려버렸다.

서관에 들어서니 받침다리 달린 큰 거울이며 해면체를 넣은 여섯좌석짜리 자동점이의자같은 기물들이 열썩해보이는데 그것들이 들어앉은 대기실이란것은 그 가구들이 거치장스러울만큼 작고 비좁았다. 그것은 이서관을 짓던 당시보다 비할바없이 퍼지고 자란 군의 살림에 맞는 새서관에 대한 성숙된 요구를 말해주는듯싶었다.

어느서관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액틀에 넣은 차시간표며 위급돌이라는 수더분한 이름의 취사원을 찬양한 속보, 《세면장에서 시계 잃은분은 8호실에 오십시오.》라고 쓴 쪽지며 지어 수위마냥 어슬렁

어슬렁서관복도를 거니는 덩지 큰 황둥이 더떨개까지 지극히 평범한 산간서관의 인상이었다. 하지만 독배기 바서는 장맛이 달다고 나는 오랜 봉사가 관일수록 실속있다는 자신의 경험을 믿었다.

그것은 틀리지 않았다.

알른알른한 장관에 등갓이 호화로운 호실은 물론 채색무늬타일로 조화롭게 미장한 산뜻한 세면장만 해도 오랜서관의 쓸쓸한 외관과는 화려하다하리 만치 대조적이었다.

《완전히 국제수준이요!》

언제 외국에 가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세면장에서 《도수준》이란 평가를 내린바 있는 도사로 청일군이 꾸집한 저녁식사를 하고나서 던진 찬탄인데 이 말은 깎지고 이악한서관살림군들을 취주고 싶은 우리에게는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뭇 너그러운 마음이 된 나는 지어서관앞마당에서 아니꼽게 본 수탉마저 검박한 이서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처럼 달리 보게끔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식후의 거느적한 기분에 잠긴 우리가 한담을 나누며 호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불밝은 방안에 난데없는 새 사람들의 유별한 행장이 눈에 띄여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정확히 말하면 두개의 크고작은 배낭과 두 배낭의 비레에 맞먹는 한쌍의 등산지팡이가 형제처럼 가지런히 벽에 기대서있었는데 작은 배낭과 지팡이는 주인이 꼬마라는것을 말해주었다. 낮모르는 두 동숙자의 류다른 행장을 놓고 억측들을 하는데 마침 식사를 마쳤는지 집임자들인 어른과 열서너살 돼보이는 소년이 들어왔다.

(방학때라 혹시 어느 학교 야영생들의 선발대나 아닌지?)

적위대복이 후렁후렁해보이는 어른의 때이른 주름이 건너간 좁은 이마며 시치미를 따듯 내밀린 조개턱은 갈데 없는 익살군의 생김이었다.

격자무늬의 반소매적삼에 열성자표식이 달린 소년의 모습은 별에 타서 가무잡잡해보이는데 모자를 주무르고 켜는 품이 어딘가 몹시 지치고 시무룩해보였다.

《혹 먼길을 오시지 않았는지,서관에 멧진 세면장이 있는데요.》

도사로청지도원이 친절히 권했다. 그것은 몸을 씻을것을 바라서라기보다 흔히 서먹한 초면에 어른들이 찾아내는 인사말이나 다름없었다.

《그래 가서 거뽏히 씻고오지?》

어른이 얼리듯 소년에게 권했다. 세면주머니를 받아든 소년은 시적시적 나갔다.

좋은 동무를 만났다는듯 뒤따르는 누렁이의 말아 올린 텃석꼬리가 복도 모퉁이에 언뜻 비쳤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 길인지요?》

모두의 금금증을 대신하여 내가 물었다.

《예, 평양에서 오는데 지질총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출장길에 아들을 실습시키는셈이겠습니
다.》

나는 록음취체라도 하듯 물음을 섬겼다.

《하하, 아닙니다. 묘한 사연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머리를 댄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엉
뚱하고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기 며칠전 어
느날, 지질총국 정문점수구에 중학교모표를 단 웬
소년이 나타났다.

어느 직원의 아들인줄 알고 일직을 선 녀인이 아
버지를 묻자 제법 출생증을 들이밀며 책임자동지를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일직은 너무나 당돌하고 어처구니없기도 하여 감
실감실 탄 소년을 뵈히 쳐다보았다.

《그래 어디 있지?》

내민 출생증은 불념도 않은채 물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저으기 공식적인 투로 던진 이 말은 의도와는 달
리 투정부리는 아이들의 불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녀인은 웃음을 삼키고 출생증을 받아 들여다보았
다.

그리고 별 의미 없이 내용들을 새겨봤다.

왜 왔느냐는 물음에 소년은 온갖 고초를 겪었을
작은 딱따구리 마치를 들어 보였다.

그제야 머리를 들고 기웃이 내다보니 배낭끈이
파들어간 잔약한 어깨가 녀인의 눈을 찔렀다. 무엇
인가 대견하고 측은한 생각이 치민 녀인은 인차 대
기실의 소년을 끌고들어와 차근차근 물었다.

그런데 소년은 배낭속의것을 보자는데 대해서만
은 책임자동지앞에서 풀겠노라 딱 잡아땀다.

오돌찬 소년의 고집이 기특해난 녀인은 그가 보
는 앞에서 면회자접수대장에 출생증에 적힌 사항을
기꺼운 마음으로 적어넣었다. 만날 사람에는 《총
국장》이라고 서슴없이 썼다.

곧 전화로 연락이 취해졌다.

소년이 찾아온 용건의 가치는 어쨌건 꼬마탐사대
원이 제발로 그 부문 최고기관에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총국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년은 자
기의 《보물배낭》을 터놓게 되었다.

그것은 여러문가지의 유용광물 표본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얻어낸곳을 적은 지도사본과 설명서까지
달려있었다.

비록 지도는(우리도 후에 본바이지만) 축소비율
은 물론 기타 지도작성의 약속들이 거의 무시되긴
했어도 어쨌든 그 지도와 설명서를 켜 사람이면 3~
6센치미터내외의 반경을 가진 표본들이 놓였던 자
리를 어김없이 찾아낼수 있을 것이었다. 지도의 빈
구석을 메운 설명서로 말하면 차라리 수기에 가까
운 상세한 기록이었다. 실로 거기에는 표본을 주는
때의 날씨며 지어 그 순간의 자기의 기쁨을 노래하
여준 산세의 이름까지 빼놓지 않고있었다.

일군들은 점잖이 앉아서 소년의 《탐사보고》를
들었다.

물론 이야기를 아름답게 꾸미자면 이 대목을 다
음과 같이 이을수도 있을 것이다.

《보라빛 원주필로 그린 지도를 들여다보며 소년
의 설명을 듣는 그들의 얼굴은 작전지도를 둘러싸
고 경찰병의 보고를 듣는 군사지휘관들 다름바 없
이 진지하고 근엄했다.》

한데 실생활이란 언제나 시적운색을 모르는 법이
다.

이 경우 역시 소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소년이
지고온 《보물》의 실제적가치보다는 거기에 깃든
동화적량만에서 받은 애뜻한 감명에 사로잡힌바가
더 컸다. 하기에 소년은 섭섭치 않게 할양으로 꾸
며서 지은 진지한 표정뒤로 어쩔수 없이 따뜻한 미
소가 내비쳤는데 그들자신은 그 미묘한 표정을 서
로의 얼굴에서 찾아보면서도 시치미를 따고있었다.
그런데 그 선의로운 가면마저 벗겨버린 뜻밖의 일
이 벌어졌다.

그것은 소년이 마지막으로 자신없이 설명한 검은
점이 박힌 깨바위돌때문이었다.

그 깨바위돌로 말하면 《배움의 천리길》 행군에
참가했던 소년이 어느 실참에 동네에 물 길러 갔다
가 한집의 진기한 다듬이돌을 보자 참아내지 못하
고 몰래 모서리를 따서 넣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후 소년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것을
깨달았다. 왜냐 하면 자연지물과는 달리 사람의 손
을 거친 다듬이돌은 묻혔던대를 떠나 주인과 함께

수태 자리를 옮겼을것이기때문이다.

소년은 서툰 《탐사》의 획득물인 그 깨바위돌을 내놓을것인가 말것인가 몹시 망설이다가 쑥스러운대로 내놓은것인데 황아장사 망신을 고불통이 시킨다는격으로 끝내 그것이 엄숙한 자리에 웃음을 터트리게 만들었던것이다.

어른들은 이제껏 참고있던터라 몸가짐을 흐트리며 악의 없이 웃었다.

그런데 한사람, 총국장은 그렇지 않았다. 슬며시 일어나 창가에 다가간 그는 뒤짐을 진채 소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처럼 도도하던 아이가 모자를 집어 땀없는 이마를 씻으며 입술을 감쌀고 섰는 모양은 차마 맞바라보기 딱할 지경이었다. 흔히 구답시험에서 시험관들을 웃겼을 때 아이들은 고개를 외로 튼채 헛웃음으로 부끄럼을 덜려고 한다.

오직 오돌찬 자존심을 가진 소년들만이 이처럼 오열을 삼키며 수치감을 나타내는것이 아닌가.

그로 하여 총국장의 마음속에 소년에 대한 대견함이 더욱 자라올랐다.

(보통내기가 아닌걸. 아무렴 제발로 총국청사까지 찾아왔을제야.

진정 수치를 깊이 감수하는 이런 개성은 스스로 그것을 씻을 힘도 가지고있는것이다.)

아까 소년이 입을 연 순간부터 우리 나라 지질탐사의 총지휘를 맡은 그의 가슴은 들먹이었으니 그가 보고 들은것은 소년의 지도나 말이 아니였다. 그보다 비할바없이 크고 숭고한것 조국의 땅속깊이까지 거머쥐고 나갈 영특한 미래의 주인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랑랑한 선언으로 그의 가슴은 뜨거워 올랐던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총국장은 열개의 표본을 얻기 위해 험한 벼랑과 깊은 골짜기로 소년을 이끌어 수백수천개의 돌을 끼보았을 꼬마의 지질마치를 두손에 들고 뚜벅뚜벅 방안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벽 절반을 가리다싶이한 큰 지도앞에 머물러 소년이 훑았을 긴 로정을 더듬듯 이윽토록 서있었다.

(단순한 탐험심만으로는 이런 꾸준한 탐사를 해낼수 없다. 하늘의 별을 따보겠다는 그런 담보가 아니고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 머리 쳐들고 싱싱 자라나는 새싹! 저 작은 가슴속 어디에 그런 큰 꿈이 깃들 자리가 있단말인가. 엉뚱한 녀석같으니, 혹시 학교조직 몰래 영웅주의를 부렸을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다.)

이런 대견한 생각은 록록치 않은 소년을 시험해 보고싶은 욕친다운 능청스러움으로 바뀌였다. 지질마치를 소년에게 건네주고 자리에 와앉은 총국장은 책상에 두주먹을 얹고 짐짓 엄한 눈길로 소년을 지켜보며 물었다.

《그럼 좀 물어보자구. 꼬마탐사대원동무! 백두산의 해발높이는 얼마던가?》

《2,750미터인데 그것은 바로 장군봉의 높이입니다.》

때아닌 시험이 소년을 딱한 처지에 빠뜨릴가봐 저어하던 사람들은 이 명쾌한 대답에 그의 후견인이라도 된듯이 만족한 얼굴로 총국장을 바라보았다. (보십시오. 공연한 일입니다. 소년에게 이런 시험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이런 기미는 눈치채지 못한듯 총국장은 질문을 연발했다.

《그밖에 또 어떤 봉우리들이 있지?》

《망천후, 백암산, 차일봉, 충암산 같은 봉우리들이 천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있습니다.》

《망천후의 높이는?》

《2,651미터!》

《백암산은?》

《2,741미터, 차일봉은 2,735미터, 충암산은 2,737미터입니다-》

《그래그래, 충암산 이칠삼칠.》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총국장의 어조에는 진짜 후견인의 대견함이 울렸다. 반대로 소년을 동정하여 원심을 쓰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셔지고 놀라움이 비쳤다.

이제 와서 문답은 한쪽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화답처럼 류창하게 엮여져내렸다.

《백두산의 기본 지질구성은?》

《현무암과 알카리조면암입니다.》

《기생화산이란?》

《화산이 분출할 때 작은 틈새기로 솟은 용암에 의하여 생긴 봉우리인데 레를 들면 무두봉, 대각봉, 소연지봉, 대연지봉, 청봉 같은것들은 백두산의 기생화산들입니다.》

《음! 음! 천지에서 어떤 강들이 흘러내리지?》

《압록강.》

《압록강.》

《두만강.》

《두만강.》

《송화강》

《송화강!! 그렇지 송화강이 아니라 승화강이란

말이요!》

총국장은 누가 송화강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길래도 하듯 《송》자에 력점을 찍어 손가락으로 책상을 짚으며 방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거동이며 목소리는 완전히 내기에서 이긴 사람의 패제가 울렸다.

(자! 누가 소년을 잘못보았나 말해보구려. 이런 영특한 소년을 주눅들게 할수 있다고 생각다니. 이래도 동무들은 꼬마의 소행을 한낱 동화처럼 귀엽게만 볼셈이요?)

평소의 엄격성은 어디 갔는지 활달한 걸음으로 소년에게 다가간 총국장은 가냘픈 소년의 어깨에 큰 손을 얹고 영채도는 눈을 들여다보며 포박포박 말했다.

《꼬마탐사대원동무! 동무는 아버지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란 소년단원답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똑똑히 잘 알고있을뿐더러 그 조국을 위하여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격식을 차려서 한 말이건만 그가 대표할수 있는 집단의 이름으로 한 뜻이 깊은 감사는 모인 사람들의 흥벽을 울려주고도 남았다.

총국장은 자기 분야의 사업을 이어나갈 다음세대의 담당자와의 뜻밖의 이 상봉을 인상깊이 간직하고싶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단둘이 남자 응접실에 소년을 마주앉힌 다음 깊은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닐었다.

소년의 출현은 눈앞의 드바쁜 일에 파묻혀돌아가던 그로 하여금 문득 머리를 쳐들고 자기들사업의 먼 앞날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말아나설 후계자들을 두고 사색의 나래를 펼치게 해주었다.

이제껏 벽에 조국의 지질도를 걸어놓고 그 전망을 꿈꾸면서도 어찌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갈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지 모를 일이었다. 머리속에 쇠돌들의 번쩍임은 있었으되 사람은 불념을 안했던것이다.

단순하면서도 심각한 오유였다.

그러나 이제 그 잘못을 깨우쳐주기라도 하듯 그 후계자가 제발로 찾아와 이렇게 자기앞에 앉아있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기특하고 소중한 손님이었다.

저 나이때의 자기란 기껏 차돌이나 마주쫓아 밭길에 계집애들을 놀래워주는 촌아이들의 《도깨비불장난》에 팔린 선머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세상에 차돌파우 막돌까지도 《SiO₃》 하는 식으로 부르는 《지질》이라 일컫는 학문이 있다는것을

알수나 있었던가.

그런데 소년은 벌써 조국의 땅속에 묻힌 쇠돌을 찾아내려고 발벗고 나선것이다.

바로 저들의 어깨에 떠맡겨질 조국의 래일은 얼마나 휘황할것인가.

불현듯 총국장은 후날 다 자라 이 방의 주인으로 의적이 자리잡은 소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것은 결코 허망한 억측이 아닐것이다.

왜냐 하면 기필코 저 소년과 같은 믿음직한 후대들이 이 자리를 이어갈것이기예.

그러자 여적 느껴보지 못한 유쾌한 감정에 휩싸인 총국장은 무엇인가 미래의 교대자에게 물려주고 꼭 해주고싶은 이야기들이 머리속 가득 차올랐다.

그리하여 자주빛 옷철이 번쩍이는 넓은 응접실에 마주앉은 한 소년앞에서 준비도 없이 엮어진 총국장의 열정에 넘친 강의가 시작되었던것이다.

그는 자기 직업의 공지와 애착에 대하여, 세계의 《광물표본실》이라고 불리우는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조국의 무궁무진한 자원에 대하여, 그것이 무참히 강탈당하여온 울분의 력사에 대하여, 지금도 나라의 절반땅이 강도적략탈에 내맡겨진채 짓밟히지 않으면 안되는 국토량단의 비극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세세대앞에서 숭고한 의무를 다하고있다는 의식으로 하여 격앙된 그의 목소리는 열변으로 울렸다.

말하는동안 손에 들린 지시봉은 교향악지휘자의 지휘봉마냥 벽에 걸린 큰 지도우를 종횡무진 오르내리는가 하면 지도를 떠나 누구를 위협하듯 허공에서 샷대처럼 떨기도 했다. 그리고 한 지점을 짚을 때마다 몇번씩 연해 지도를 찢었는데 그것은 그가 지도우가 아닌 바로 그곳 땅의 속내를 두고 이야기한다는것과 자기 말의 깊은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듯싶었다.

지난날을 거슬러 더듬어가던 그의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 탐사사업과 그 전망으로 번지여 소년이 가져온 표본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 옮겨졌는데 깊이 생각지 않아도 《강의》의 기본취지가 열개의 표본을 주어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소년의 탐사가 우에서 개팔된 우리 나라 지질탐사의 기나긴 흐름속에 합류되는 의의있는 사업이라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알아맞힐수 있었다.

한마디 빠칠세라 듣고있던 소년의 두눈은 환희의 빛발로 반짝였다.

그 눈빛으로 하여 가슴후더워오른 총국장은 《강의》로도 성차지 않아 소년을 위해 무엇인가 더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방안을 서성거렸다.

탐사의 첫걸음마를 댄 소년에게 무엇이든 두고두고 기념이 될만한 일을 해주고싶었다.

그러다 불현듯 좋은 궁리가 떠오른 총국장은 스스로도 자기 생각이 그럴듯하여 손바닥으로 책상을 울렸다.

그리고는 송수화기를 들고 변호판을 돌리면서 어디까지건 소년의 발전을 뒤받침해줄 의무를 다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으리라 마음다졌던것이다.

《그래서 바로 전화에 불리워간 제가 총국장실에 나타나게 되었던것입니다.

소년과 인사를 시킨 총국장동지는 응접탁우에 깨바위돌조각 하나를 꺼내놓더니 <유라기>니 <압록강단렬대>니 하는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요란하게 설명하는데 마치나 그 작은 돌조각이 어마어마한 광산개발을 좌우하는 열쇠이거나 한것처럼 열이 올라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더러 당장 떠나게 된 출장을 중지하고 소년과 함께 깨바위돌조사를 떠나라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아연했습니다.

큰 광산개발이 이런 군중탐사가 실머리로 되어 시작된 경우가 많지만 총국장동지의 경우 한 소년이 호기심으로 따온 우연한 돌조각을 놓고 지내 흥분한다는것은 어느 모로 보나 신증치 못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지당한 출장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출장이였겠습니까. 이제 머지 않아 세상을 팔하고 놀래울 랑림지구의 새 광산후보지에서 요즘 또 새로운 맥을 잡았는데 이건 아주 총국적인 사변인것입니다. 총국장동지는 깨바위돌탐사가 <승고한 의무>라고 설유했지만 글썽 그 <승고한 의무>라는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시름으로 찬것이겠습니까.》

지질총국지도원은 강마른데 비해서는 거센 목소리로 말하였는데 생각던바와 같이 우스개를 섞어가며 말하는 소탈한 품이 사무실보다 현장에서 많이 치여난 기사구나 하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다음 말을 빗느라 두입술을 모아 쫓긋거리다가 말머리를 떼기전에 꺾하고 입을 다시는데 그 입버릇을 지켜보는것조차 유쾌한 기분을 자아내는 것이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의문스럽고 엉뚱하다는건 말이 아니였지요.

첫 일정은 만경대를 비롯한 평양시안을 견학시키는것이였는데 이것저것 줄곧 묻는것이 말 배우기 시작한 아이비슷하지요.

이를테면 옥류교의 길이와 너비는 얼마며 중앙텔레비죤방송탑의 높이와 정점의 유동반경은 얼마인

가 하는것들인데 제 발은 밀천으로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력이 됩니까. 그바람에 제 상식도 는셈이지요.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것은 이번 올 때 일인데 딱 본평양역사 폭대기의 탐시계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마치도 어서 와서 보라고 기다리라고도 있는것처럼말입니다. 자 역장한테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끄는데 이런 딱할데라구 있습니까. 아이는 아이다치고 도대체 역장이 어른인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기한 시제인만큼 아무나 마음대로 볼수있는 전람회의 진렬품과는 다르다는등 루루이 타일러 놀려앉혔지요. 하 그러면 싶었는데 어디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더니 탐시계 보러 가자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보니 저 혼자 역장실을 찾아가 당돌하게도 청을 들이댄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그 어른이라 할지 역장동무가 어떻게 나온줄 압니까. <애야, 너처럼 엉뚱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소년은 처음 본다. 네 배심이 마음에 든다. 아무렴 <나라의 왕>이 요구하는것인데 무엇인들 들어주지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전화로 해당일군을 불러 안내하도록 했던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통에, 정확히 말하면 소년의 덕에 저도 늘 밖에서 먼발치로만 보아온 탐시계의 기계실에 들어가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바퀴 하나의 직경만 해도 자그만치 1미터가까이 되니까 시제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상상해보십시오. 그런속에서 소년은 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넣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대신 저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창한 시제앞에서 제 존재가 자꾸 작아져보이고 총국장동지나 역장동무에 비해볼 때 어딘가 사물을 보는 저의 눈이 좁은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소년의 깨바위돌조사를 위해 한 기사를 달아보내기까지 한 총국장동지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큰 기대에 찬것인가 하는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였습니다.》

말을 끊고 담배를 붙여문 그는 입술에 붙은 담배티를 뱉어버리더니 시름겨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일이 이처럼 꼬일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벽차로 이곳에 도착하여 아침 빠스로 곧장 깨바위돌임자네 집에 찾아갔지요. 그랬는데 다듬이돌을 물려받아 다루어온 그 집 할머니는 지난봄에 로환으로 돌아가셨다는것이 아닙니까. 아 들되는 사람은 마침 출장가고 없고 선에 가까운 머느리만 있더군요. 한데 그 머느리가 모르고있으니 아들이 있단들 알력이 있습니까. 떡심이 풀리더군요. 총국장이란이가 나서 일껏 설도를 한 일이 이 모양이 됐으니... 게다가 소년의 실망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막 풀이 죽어 두끼채 밥도 변변히 안 먹는군요. 그럴만도 한것이 깨바위돌이 단서가 되어 큰 광산이라도 찾아내리라 꿈이 컸겠는데 광산은 커녕 처음에 범한 실수를 씻지도 못한채 애꿎게도 몰래 다듬이돌을 따간 잘못이나 빌밖에 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개 바위 갔다온격이 됐으니 무슨 낮으로 <승고한 의무>라면서 떠나보낸 총국장동지를 만난단말입니까. 일인즉 룡의 대가리로 시작했는데 뱀의 꼬리처럼 싱겁게 끝났으니 이처럼 맹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입을 껌 다신 그는 외면하듯 고개를 돌리고 담배를 물었다.

소년이 들어선것을 본 우리는 그가 먼구스레 말을 중등무이한 까닭을 알수 있었다.

방안에 어색한 공기가 떠돌았다. 소년만 아니 나타났어도 우리는 무슨 말로나마 총국지도원을 위안하려들었을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기색이 침울한 까닭을 안 지금에 와서 그것은 소년의 어린 마음의 상처만 헤집는것으로 될것이었다.

측은한 눈길로 소년을 맞바라보는것조차 죄되는 일같았다. 방안의 공기를 눈치챘음인지 소년은 총국지도원의 등뒤 한구석에 가 맥없이 앉았다.

이때 물난 군관복차림의 어느 농장 축산반장이라는 중년이 불쑥

《어디 그 돌을 한번 볼수 없을가요?》 하면서 한 무릎 나앉았다. 우리는 눈치코치 없이 웬 소리냐는 듯 그에게 힐난의 눈길을 모았다.

아닌게아니라 그 돌이 나오자 총국지도원의 어깨너머 소년의 고개는 아주 움츠러들고말았다. 그러든말든 돌을 받아든 축산반장은 무슨 전문감정원이란도 되는듯 량미간을 모으고 제법 신중한 기색이 되어 이모저모 뜯어보았다.

그 서툰 모습은 어딘가 환자의 병을 고치겠노라 장담하고 나선 돌팔이의사 방불한데가 있었다. 하지만 워낙 돌에 호기심이 동했던 우리는 언제 축산반장의 제기를 중뿔나게 여겼느냐는듯 돌과 그의 눈길을 번갈아 살피기 시작했다.

소년의 눈도 생기를 띠고 반짝였다. 그 눈에 힘이랄도 얻은듯 축산반장은

《가만 이 돌을 췌다는 지도를 볼수 없을가요?》 하고 물었는데 말소리며 눈빛은 사뭇 열에 떠있었다. 그리고 손은 벌써 모서리가죽이 해진 전투가방에서 색연필까지 뽑아들었다.

《원 쥐집 다듬이돌에서 땀다는데 거기다 지도는 해서 무슨 소용이요?》

축산반장이 덤벼치는데 못마땅했던지 생약관리

처에서 내려왔다는 코끝이 쳐들린 갱기한 몸임자가 핀잔하듯 툇겨쳤다.

그 충고야말로 옳고 적절한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모두는 그 목소리에 울린 지나친 뽕뽕함에 비위가 거슬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어조에는 축산반장에 대한 힐책뿐아니라 기록한 소년의 소행자체에 대한 뽕소까지 품겼던것이다. 방안에 어색한 침묵이 떠돌았다.

방안을 쌀쌀하게 만든 당자는 침묵을 건디기 힘들었던지 쳐들린 코끝을 매만지며 마른코를 울렸다.

그런데 무안을 당하여 점직할줄 안 축산반장이 주눅중계 입을 떼었다.

《이 돌을 따낸 할머니네 마을이 노투외라고 했지요. 나도 이고장서 배꼽 떨어진 사람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다듬이돌을 더러 띄여볼수 있다는겁니다.

우리 머루골 왜나무집에도 이런 다듬이돌이 있는걸요.》

축산반장은 우리쪽을 보며 혼연히 말을 이었다.

《래일 경영위원회에 찾아가면 자세한걸 제격 알수 있을겁니다. 지금의 은덕리를 전에는 비석거리라고 불렀는데 그 다듬이돌은 비석거리에서 켜게 틀림없어요!》

그는 다듬이돌 켜 자리를 찾는것이자 곧 큰 광산의 발견이란도 되는듯한 확신을 가지고 장담했다.

우리는 광산까지는 몰라도 축산반장의 조언이 난관에 부딪친 총국지도원과 소년의 《탐사》에 앞길을 띄여주는 단서가 되어도 좀 좋으랴싶은 희망에서 선망의 눈길로 축산반장을 쳐다보았다. 아니 금방 풀이 죽었던 소년의 기분을 돌려세운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일인가.

《아저씨네 마을을 어떻게 부르나요?》

총국지도원의 어깨너머로 고개를 쳐든 소년이 물었다.

《음, 양떼가 구름처럼 흐른다는 양운리란다.》

소년이 활기를 띠자 축산반장은 구수한 옛말을 엮듯 소년에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마 비석거리가 틀림없을게다. 지금은 은덕리라고 부르지만.

비석거리란것은 옛날 산간지대를 시골이라고 업수이 보고 부르던 때 이름이란다. 너희들이 시골이라는 말을 잊어버린것처럼 자라는 사람들은 옛날 이름을 모를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야 산고장도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산은 산마다 황금산으로 진기한 약초며 집집승떼 육실거리고 다락밭 풍년농사, 재물이 차고넘쳐지.

그래서 <은덕리>다, <락원리>다 하고 새라새고

장 이름이 생겨나거든, 한데 이런 땅속에 무슨 보물
인들 못나오겠느냐말이다. 아직 우리 손이 채 미치
지 못했을따름이지. 이제 보렴, 너의 깨바위들이 무
슨 쇠돌산을 찾아낼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
시지 않았느냐. 우리 나라 땅은 평방이 아니라 립방
으로 재야 한다구.»

그리고는 다듬이돌 캔 자리는 래일아침 자기가
군농촌경영위원회에 찾아가 제껴 알아내겠노라 장
담했다.

《하필이면 왜 경영위원회에 가서 돌문제를 캔다
는건가요. 행정위원회쪽이 낫지 않을까요.》

나도 한마디 꺼들고 나섰다.

《좌우간 두분중에 누구든 그 출처를 알아내시우.
저는 군사로청과 토의하여 소년단조직들을 동원할
테니요. 한 2,000명은 문제없습니다.》

《2,000명이나요?》

도사로청지도원의 말에 내가 놀라서 물었다.

《왜요. 요구된다면 그뿐이겠습니까. 5,000명이라
도 들고일어나게 해야지요.》

우리는 소년을 부추겨주고싶은 마음에서 한마디
씩 북을 두구었다. 자못 흥분한듯 총국지도원도 꺾
꺾 힘을 다시였다.

그야말로 약속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었다. 자연서관호실에 하나의 《탐사지연
대》가 무어진셈이다.

다만 생약관리처 일군만이 강건너 볼보듯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외톨로 난 처지를 못참겠던
지

《난 새벽차에 떠나야겠는데 먼저 실례하겠수
다.》

하고는 자리를 펴더니 머리까지 이불을 쓰고 누
워버렸다.

그의 무점없는 행동에는 우리에게 대한 말없는 비
난이 느껴졌다. 우리는 집단의 화목속에 뛰어들지
못한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그대신 친밀감을 느끼며 오손도손 래일의 계획을
나누었다.

미구하여 축산반장이

《래일의 탐사를 위해 우리도 일찍 누웁시다.》

하고 먼저 누운 생약관리처 일군이 들으란듯 소
리높여 말하였다.

이불밑에서는 그 대답으로 코고는 소리만 울려나
왔다.

인차 자리들을 보고 불을 켰다.

나도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눈앞에는 영특한 소
년과 미래의 싹을 반겨 것처럼 뒤살펴준 웅심깊은
총국장이며 돌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다투어나선
서관호실사람들에게서 받은 감명으로 잠을 이룰수
가 없었다.

파연 무엇이 총국장을 비롯한 진중한 어른들로

하여금 한 소년이 얻어온 돌 하나를 놓고 이처럼
동심같은 일에 열중케 하는것일까? 진정 소년의 그
돌에서 땅속보물이 찾아지리라 믿기때문인가?

나부터도 지금 소년의 다듬이돌조각을 광산개발
이라는 엄청난 결과와 결부시킨다는것이 지나친 억
지가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벗어날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의 계획에 따르는 래일의
흥미있는 탐사를 꿈꾸고있는것이다.

나중에 나는 공민의 량심이 있다면 어찌하여 이
런 마당에서 마음이 동하지 않을수 있단말인가 하
고 목적같은 생약관리처 일군에 대한 해넬데 없는
분을 삭이다가 잠에 떨어지고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한밤중 총국지도원이 깨우는바람
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일어나 눈을 비비며 웬일이냐고 수군거리
고있었다.

《취, 조용하십시오!》

총국지도원은(그는 벌써 걸옷을 입고있었다.) 입
에 대고 흔들던 손으로 아래목에 누워있는 생약관
리처 지도원을 가리켜보였다.

누운탓으로 벌름해보이는 코끝을 곧바로 천정에
대고 자는 그의 모양은 자는지 자는척하는지 대중
할수가 없었다.

총국지도원이 그만은 깨우지 않은게 분명했다.

《여러분! 곤한 잠을 깨워 안됐습니다. 큰일났습
니다. 밤중에 아이가 없어졌군요. 도와주십시오. 이
건 돌도 못찾고 나중에는 아이까지...》

그는 불안과 초조감을 삭이느라 입을 감물더니
끝내 긴숨을 내쉬었다.

그 불안은 인차 우리에게 옮겨져 말끔히 잠을 몰
아버렸다.

무엇인가 우리모두의 머리에 얼핏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축산반장의 말에 생기를 띠던 소년, 그의 마을이
름을 따져물던 일...

소년의 배낭을 들춰보고 손전지가 없다는것을 확
인한 총국지도원은 자기 배낭을 들쳤다.

《지도도 없어졌군요!》

심각하게 부르짖은 그는 소년이 축산반장이 찍어
서 대준 옛비석거리나 양운리에 간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무인지경 30리길인데!》

축산반장이 도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30리 아니라 100리라도 찾아갈 아이
입니다.》 이렇게 잘라 말한 총국지도원의 얼굴은
몹시 침통해보였다.

곧 축산반장과 사로청지도원은 양운리로, 나와
총국지도원은 은덕리 방향으로 갈라져 떠나기로 했
다. 소동을 피우지 않기 위해 목적지에 가보고 거기
서 서로 전화로 연락할것을 약속했다. 총국지도원

은 탐사일군다운 용의주도성을 나타내어 자고있는 생약관리처일군의 머리맡에다 무슨 쪽지를 적어두었다.

밖은 깜깜 흐린 하늘이 부슬비를 뿌리는데 여간만 울씨년스럽지 않았다. 갈라질 때 중국지도원이 거둬 미안한 사과를 하였다.

《아니 이게 어디 지도원동무 혼자 일이라구 자꾸 이러시우?》 사로청일군이 통명스레 대꾸했다.

소년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그 불안으로 하여 어떻게 걷는지 모르게 20리 밖에 있는 은덕리에 가닿았다.

그런데 밤새껏 헛걸음만 쳤다는 실망은 그만 우리를 폴짝 노그라들게 하였다. 그곳 농장관리위원회에 들려 알아본 결과 은덕리에는 그런 소년이 혼자취가 없었던것이다. 불안은 한층 심각해졌다.

이윽고 양운리와 련계가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소년이 축산반장이 말한 꽤나무집까지 왔다갔는데 떠난지 반시간 잘된다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축산반장네가 소년을 만나지 못했는지?

중국지도원의 추측대로 모험심에 찬 소년이 올때에는 지름길이거나 다른 무슨 행로를 택한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소년은 련관에도 안들리고 읍을 지나 곧장 제2목적지인 비석거리로 올것이였다. 왜냐면 꽤나무집 다듬이돌이 깨바위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렇게 단정할 충분한 근거로 되였다. 소년의 고생을 덜기 위해서도 빨리 돌아서 내려가야 했다.

간간한 중국지도원은 비석거리에서 켜다는 묘비들을 찾아내어 감정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소년의 깨바위돌과는 전혀 출신이 다른 청회암이었던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몹시 실망시켰다.

왜냐면 이 지대에서 깨바위돌탐사를 계속할 중요한 근거가 없어졌기때문이다.

《저는 지름길로 갈테니 아까 오던 큰길로 살피며 가시지요. 소년을 만나더라도 아직은 아무 말도 말아주십시오.》

침울하게 말한 중국지도원은 전지불동그라미를 앞세우고 황망히 어둠속에 사라졌다.

나는 큰길을 따라 걸었다.

큰길에서 소년과 맞닥들될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나는 소년과 만나게 될가봐 몹시 두려웠다.

축축히 젖은 외로운 밤길에 아무 좋은 말도 해줄 수 없는 가공한 소년을 어떻게 맞이하며 무슨 말로 그의 걸음을 돌파세운단말인가. 만일 진실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소년의 가슴에 못을 박는만치 가혹한 일로 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기우였다.

려관에 돌아오니 뜻밖에도 소년은 호실에 누워

깊은 잠에 떨어져있는것이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생약관리처 일군은 간데 없고 그자리에 소년이 누워있는것이였다. 두루 방안을 살피던 나는 소년의 옷가지들이 없다는데 주의가 미쳤다.

짙이는것이 있어 식당화구를 찾아갔다. 아니나다를까 생약관리처 일군이 있었다. 막 반가운김에 소리치려던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아궁앞에 놓인 결상에 앉아 소년의 바지를 말리는데 김은 아이바지뿐아니라 그의 온몸에서도 피어오르고있었던것이다.

나무등걸처럼 앉아있던 그가 끄덕 고개방아를 짊었다. 가만가만 다가간 나는 살며시 손에 들린 옷을 옮겨쥐려 하였다.

그만 소스라치듯 의자에서 일어난 그는 잠에 취한 눈을 깜빡이였다.

나를 알아본 순간 갑자기 시뻘뻘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젖은 바지를 든채 아궁쪽에 다가서는것이였다.

리해할만한 일이였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만 빼돌렸으니 자존심이 상했을것이다.

나는 주눅중계 그의 곁에 바싹 붙어서 젖은 모자를 벗어 쥐여줬다.

그제야 얼굴을 돌려 나의 주제를 살피고난 그는 갱끗한 얼굴에서 짐짓 지었던 표정을 지우더니 피식 웃는것이였다.

우리의 오해는 이처럼 가벼운것이였다.

《몸단련을 그만했으면 옷이나 말려입으시우. 여름고뽕은 개도 안먹는다는데.》

이렇게 말머리를 댔 그는 자기가 아이옷을 들고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이야기했다.

새벽에 깨여 중국지도원이 써놓고간 쪽지를 보게된 그는 심한 모욕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 대한 회오로 바뀌였다. 그 어떤 반발심에서 무작정 밖에 뛰어나온 그는 교통안전초소인 갈림목에 지켜섰다. 그런데 일이 되느라 양운리에 갔다가 은덕리를 가려던 소년이 그의 손에 잡혔던것이다.

《은덕리에 가겠다고 그냥 우기는데 막 울가망이 더란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지도원이랑 돌때문에 갇으니 걱정 말라고꾸며대셔야 겨우 불들어다 눕혔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쪽엔 무슨 단서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의 물음에 나는 선뜻 대답할 말이 없었다.

침울한 나의 기색을 살핀 생약관리처 지도원은 에둘러 옷을 말려야겠다면서 나의 등을 밀었다.

별수없이 그에게 떠밀려 호실에 들어왔다.

생약관리처 일군이 독촉하는바람에 나는 젖은 옷을 벗었다. 그는 뒤가 가볍게 그것들을 걸어들고 나

갔다.

혼자 남은 나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잠자는 소년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감실감실한 살갓속에 내비치는 코허리의 파란 정맥, 보풀이 인 벌려진 입술, 잠자는 아이의 얼굴임에도 피로하고 초췌한 모습이 력연하다.

두끼채 변변히 속에 든것 없이 비오는 20리 밤길을 무슨 힘으로 오르내렸겠는가.

그러다가 소년의 머리맡에서 지도며 손전지, 라침판과 함께 놓인 비닐로 싼 납작한것을 띄여본 나는 그것을 풀어보았다.

파란 걸장을 해썬 출생증이었다. 그 속에 또 작은 접은 종이가 끼여있었다. 펼쳐보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였다.

확인서

이름 김철훈

생년월일 196×년 10월 13일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소년단 지질탐사소조원임을 확인합니다.

량강도 ××군 태현고등중학교

소년단지도원 안복실(수표)

좀 웃음을 자아내는 증명서였다.

꼬마가 자기의 엉뚱한 걸음을 담보받기 위해 선생에게 떼를 써서 받아낸것일까? 하다면 선생은 어찌하여 학교의 대표나 다름없는 탐사소조원을 중앙기관에 보내면서 긴 사연의 소개편지도 없이 한장의 증명서를 써주는데 그쳤겠는가.

추리를 거듭하던 나는 문득 지질총국 정문에서 출생증을 들이밀 때부터 취한 소년의 의젓한 행동이며 평양역사의 탐시계까지 보겠다고 한 당돌한 요구들을 생각하자 무엇인가 가슴을 치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를 떠받드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 가서건 그들에게 모든 특전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래일의 조국을 떠받들 기둥들아, 원하기만 하라, 바라는것은 다 이루어질수 있거니.

그렇다. 너선생도 그 작은 증명서를 쓰면서 그런 큰 뜻을 거기에 담으려고 했을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패기로 키웠기에 소년은 출생증만 내미는것으로 그친것이 아니겠는가.

총국장 역시 그 뜻을 간직하고 소년의 깨바위돌 탐사를 조직했을것이다.

소년은 지금도 그 요람에 실려 행복의 꿈속을 날고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 일은 그 뜻을 꽃피우기에는 너무나도 난처하게 되었다.

이제 깨어나 어른들의 얼굴을 쳐다볼 소년에게

무슨 말을 해줄것인가. 사실을 알고 기가 꺾일 소년을 무슨 말로 달랜단말인가.

마침 이때 양운리에 갔던 축산반장과 도사로청일군이 돌아왔다 물참봉이 된 그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축산반장은 해나무집 다듬이돌이 소년의 깨바위돌과 같지 않은것으로 하여 더욱 얼굴이 침침했다.

생약관리처일군이 나타나더니 아까 나에게 하던 모양으로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나갔다. 마치도 그 일을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의무로 간주하고있는듯이.

누운 아이두리에 이불을 걸치고 앉은 우리의 모양은 그야말로 청승맞았다.

축산반장은 아예 소년의 얼굴을 피하듯 돌아앉아 아직도 오지 않고 혼자서 고생하고있을 총국지도원때문에 애타는 담배만 태우고있었다.

총국지도원이 올 시간도 퍼그나 지났건만 나타나지 않는것을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근심스러웠다.

두루 불안과 초조 속에 창문이 푸름해오는데 갑자기 려관마당에서 꼬끼요 하는 수탉의 요란한 울음소리가 새벽정적을 깨쳤다. 나의 눈에 잔뜩 쳐들린 수탉의 거들먹스러운 머리가 떠올랐다.

그때 수탉의 두번째 해소리가 소년을 깨우고야 말았다.

무슨 꿈이라도 꾸다가 깬듯 소년은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렸다.

자기를 둘러싼 어른들의 궁상스런 모양을 본 소년은 눈을 깜빡이더니 누군가를 찾았다.

《지도원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소년이 물었다.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축산반장은 소년의 눈길을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다. 무슨 기미라도 채 모양 소년은

《네? 지도원아저씨가 어디 있어요? 둘은 어떻게 됐나요?》

하고 나의 손을 잡고 다우쳐물었다.

나를 쳐다보며 캐여묻는 소년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나는 죄지는 사람모양 입을 열지 못했다.

소년은 나의 손을 놓으며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모두 저때문에... 제 잘못이...》

어깨를 떨며 훌쩍거렸다.

그 가냘픈 어깨에 스스로 걸머진 시름이 얼마나 크면 저처럼 오열에 떨것인가. 고지식한 소년은 모든 잘못이 자기의 서툰 탐사때문이라고 믿고있는 것이다.

《야야, 용감한 소년답지 않게 이게 무슨 눈물이나? 응!》

도사로청지도원이 소년의 어깨를 불안고 부르짓듯 타일렀다.

《이제 지도원아저씨가 무슨 방도를 찾아가지고 오지 않나 보라.》

나는 자기도 믿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소년을 위안했다.

그때 수탉의 네번째 뿔소리가 침울한 방안에 울려왔다.

우렁찬 그 꼬끼요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고개를 쳐든 소년이 눈물을 씻고 밝은 창문을 내다보았던것이다.

바로 이때였다.

쿵쿵거리는 발자욱소리가 복도를 울리더니 벌컥 문이 열리었다.

우리 눈앞에 것처럼 기다리던 총국지도원이 열린 문손잡이를 쥔채 어깨숨을 쉬며 우선우선한 얼굴로 서있었다.

《지내 늦어서 안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의 말을 제편에서 꺼낸 그는 그냥 선채로 입을 쭉긋거리다가 쟁 다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걱정끼쳐 안됐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 각듯이 인사하며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그 거동은 오래 공연을 기다리게 한 관객에게 랑해를 구하는 소개자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때로 사람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가 뜻밖의 기쁨에 맞닥들렸을 때 그것을 주체할길 없어 실없는 사람처럼 우습강스럽게 행동하는것이다.

무엇인가 지름길로 오던 그가 엄청난 일에 맞닥들였음이 분명했다.

추측의 화살은 한결같이 그것이 소년을 기쁘게 할 돌의 단서를 잡은때문이라는데로 쏘렸다.

총국지도원이 나타나자 고개를 떨구고있던 축산반장도 머리를 쳐들고 기대에 찬 눈길로 상대를 지켜보고있었다.

번쩍 눈을 뜬 소년의 눈시울이 가늘게 떨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우리의 김철훈소년을 위해 평양에서 비행기가 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총국지도원은 복도가 찌렁찌렁하게 웅겼다.

놀라서 내다보는 여느 호실들의 문 여닫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행기가 오다니, 러관이 아니라 온 읍거리라도 깨우리만큼 엄청난 소식이다.

《철훈이, 이리 오렴!》

구들에 올라선 지질일군이 젖은 팔을 벌리고 소년을 불렀다.

《아저씨!》

런닝그바람의 소년이 뛰쳐일어나 그 품에 안겼다.

《자 젖은 옷부터 말립시다.》

생약관리처일군의 실무적인 권고가 어느정도 총국지도원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솔직히 말하여 철훈이가 양운리에서 돌아섰다는것을 안 다음부터 저는 소년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했지요.

왜냐 하면 저쪽에서 소년을 못만난것은 소년이 돌아올 때 지름길을 택하기때문일것이였으니까요. 탐험심 많은 소년이 지도까지 가졌겠다, 우야 새로운 길을 택한것이 틀림없다고말입니다.》

총국지도원의 짐작이 맞아떨어진듯 철훈이는 씩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한것은 뭐니뭐니 해도 암담해진 깨바위돌람사였습시다. 마침내 모든것을 단념한 저는 오던길로 체신소에 들러 시외전화를 걸었지요. 직접 총국장동지택에말입니다. 잔뜩 맥이 나서 푸념비슷이 전말을 실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못찾은채 전화를 건단말이지?> 하고 제일 꺼려하던것을 묻더라말입니다. <네. 저는 지도를 품고 스스로 밤길을 뒤흔친 소년의 용기를 믿습시다. > 저의 대답이 끝나기 바쁘게 호탕한 웃음소리가 진동판을 울렸습니다. <동무, 정말 결작이요. 옳소, 동무의 그 믿음이 마음에 드오. 나도 철훈이가 그렇게 행동할줄 알았소. 그것이야말로 앞날의 지질일군이 제발로 자라나는 과정이 아니겠소.

돌의 단서는 이왕 그렇다니 별문제로 치고 요는 미래의 작을 키워주는것이요. 뭐니뭐니 해도 그들이야말로 진짜 광산후보지가 아니겠소.> 자 보시우, 총국장동지는 쇠돌보다도 철훈이로 하여금 제손으로 실수를 씻는 과정을 통하여 단련해나가도록 하고싶었던것입니다.

총국장동지는 전보문같은 지시로 전화를 끝냈습니다.

<이미 내가 결심한 동무의 차후 임무를 전달하겠소. 소년의 나머지 방학기간을 랑림지구에서 보내도록 돌봐줄것. 지구탐사대와 학교에도 이미 연락이 취해졌소.

10시정각 직승기가 ××읍에 도착할것이요. 랑림지구로 가는길에 거기 들리게 했소... 착륙조건과 신호를 곧 다시 알릴것.>》

자기 말에 격해오른 총국지도원의 눈에 물기가 오르며 턱이 떨렸다.

《아저씨!》

철훈이가 그의 품에 뛰어들어 안겼다. 우리는 저마끔 소년을 빼앗아 힘껏힘껏 껴안아주었다.

× ×

가다리던 10시가 다가오고있었다.

착륙점은 교통안전초소와의 합의밑에 역광장이 선택되였다.

길에는 불만한 구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술한 차들이 떼어서 늘어섰다.

특별히 마련한 큰 신호기를 든 교통안전원이 아
직은 그 기발로 모여드는 사람들 수습에 여념이 없
다.

정각 10시.

남쪽에서 가냘픈 발동소리가 울려왔다.

《저기다, 저기 온다!》

하는 속삭임이 퍼졌다.

잠자리비행기의 기체가 커지더니 우람찬 폭음과
함께 읍거리를 누를듯 내리덮었다.

교통안전원이 휘두르는 기발신호에 따라 비행기
는 제자리에 내려앉았다.

총국지도원은 비행기와 인연 깊은 사이인듯 기체
를 들여다보며 비행사더러 인사말처럼 물었다.

《아니 뭘 이렇게 실었소?》

《오이, 호박, 가지니 하는 남새류데 수박도 끼었
지.》

비행사는 심상하게 대답했다.

총국지도원의 소개에 따라 인사들을 나누었다.

철훈이는 손을 들어 소년단경례를 했다.

축산반장은 철훈의 아버지라도 되는듯이 《아이
를 말아가지고 수고하겠습니다.》 하고 비행사의
두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년을
꺼안았다.

생약관리처일군은 뱀을 막는 약이라면서 무슨 진
한 액체가 든 작은 병을 소년의 배낭 뒤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우리의 옷을 말리워 미끈하게 다려준
려관 아주머니들이 소년에게 큼직한 꾸레미를 안겨

주었다.

두사람 뭉치고는 너무 큰 점심보자기였다. 그것
을 안고 소년은 비행기에 올랐다. 이무렵 역광장이
근은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교통안전원들은 사람 말리기에 땀들을 뻘뻘. 발
동이 걸리고 땅우에 그늘을 드리운 큰 날개가 돌며
선풍을 일으켰다.

기발을 든 안전원은 착륙할 때와 마찬가지로 긴
장해서 팔목시계와 비행기를 번갈아보군한다.

육중한 기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환성이 터져
올랐다.

누령이가 킁킁 짓었다. 고도를 잡은 비행기는 읍
거리우를 선회하더니 곧추 서북쪽을 향해 방향을
잡았다.

소년은 이제 보름남짓 탐사대의 성원으로 일생
두고 잊을수 없는 뜻깊은 나날을 보낼것이다.

아니, 총국장은 소년의 성장을 위해 하나의 탐사
단과 탐사지구를 떠맡긴셈이 아닌가.

이제 자기를 위해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국이 무
엇을 바라는가를 받아안은 소년은 그에 어그러지지
않게 믿음직이 자라날것이다.

멀어지는 발동소리, 그칠줄 모르는 환호소리.

마치도 나에게는 이 평범한 산간읍에 울리는 환
호성이 온 나라가 소년의 손을 잡고 하는 간곡한
속삭임처럼 들리는것이였다.

《애야, 이제 너는 무엇을 또 소원하느냐?》

다듬은 말

본래말

두서

두수

두절되다

두통

둔각

둔탁하다

드라마

드라마찌름

드라이브

드릴

득점수

득점하다

등가

등식

등색

등장

등퇴장

다듬은 말

갈피

마리수

끓어지다, 막히다.

통하지 않다...

머리아픔

무딘각

투박하다, 탁하다.

극

극성

우로도논공

송곳

얻은 점수

점수를 따다, 점수를

얻다...

같은값

갈기식

감색

나오기

나들기

본래말

등포

등화

등화관제

등화유

대가

대각

대공발파

대구

대군

대금

대기실

대기시간

대기하다

대기욕

대다수

대동맥

대등소이하다

다듬은 말

등거죽

등불

불가림

불기름

값

맞은각

큰구멍남포

맞구

큰무리

값

기다림칸

기다림시간

기다려다

공기쏘이기

거의 모두, 거의 모

든, 많은...

큰동맥

거의 비슷하다, 비슷

비슷하다, 비슷하다

출장길에

락속본

1

그렇게도 쟁글거리며 꼭뒤편을 따갑게 지저대던 해는 어느새 서쪽편에 썩 기울어지고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종일 태양열에 시달린 길은 지친듯이 앞으로 번듯이 드러누워있다.

길 좌우에 늘어선 가로수잎들이며 풀잎들은 마치 도 끓는 소나기를 맞은듯 후줄근하게 머리들을 숙이고있었다.

나는 땀을 철철 흘리며 무곡형타공장을 향해 급한 걸음을 놓았다. 공무과장이 공급소사무실에까지 찾아와서 무곡에 가져들랑 알아봐달라던 《교환이바퀴》 때문이었다.

그것은 새로 만드는 편직기에 필요한 특수한 형의 이바퀴였는데 초벌가공은 형타공장에서 해주게 되어있다고 했다. 지금쯤은 이바퀴가공이 다 되었겠는데 그것을 찾아 기계제작소에 가져다주라는 것이었다.

간단한 일감이였다.

그래서 다른데서 불일을 다 끝내고 무곡에 온지 사흘째만인 오늘 떠났는데 ㄷ상사지령실에서 시간을 끈바람에 길에 나서서는 달음질치다싶이 했다.

땀에 한벌 젖고 다리땀을 좋히 뿜고나니 작전에서 빈틈이 많은 내 처사가 몹시 화증스러웠다. 일을 짜고들어 긴장하게 했다면 늦어질가봐 이처럼 분주탕을 피우는 일을 없었을것이다.

형타공장이 처음인 나는 사람들에게 물어서야 찾을 수 있었다.

서늘한 그늘을 지우는 키높은 나무들이 답을 따라 솟아있었다.

대기실은 보통짜리 한칸만한 방이였다.

접수실과 대기실 사이에는 칸을 막았는데 옷부분은 유리를 넣어 안이 환히 들여다보이였다. 자리를 땀는지 접수원은 보이지 않았다. 접수구앞에는 두사람이 서있었다. 증명서를 손에 쥐고있는것으로 보아 공장에 일보러 온 사람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접수원동무가 어디 갔습니까?》

그 말에 고수머리를 한 청년이 시답지 않는 표정으로 《방금 나갔는데... 오늘은 설비점검날이라 아예 말도 말립니다.》 하고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것이였다. 시계문자알림판에 새겨진 요일글자가

내 눈에도 똑바로 알려왔다.

이 사람들두 그럼 오늘이 설비점검날이라는걸 모르고왔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편잔을 하며 나에게 그 어떤 뽀족한 수라도 있다는듯 배포유한 태도로 접수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대기실은 무척 깨끗했다. 회칠을 한 벽체는 눈이 부시게 희고 유리창은 티 한점 없이 맑았다. 벽에는 투명라크를 산뜻하게 발라놓은 소나무액자들이 질서있게 걸려있었다. 펜으로 또박또박 박아쓴 내용에는 손님들이 공장안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며 기차시간표, 그 접수시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었고 또한 공장안의 여러 부서들의 위치도 상세히 그려져있었다. 그리고 비닐보를 곱게 편 원탁우에는 물병과 고뿌가 있었고 벽모서리쪽에는 외상용약함과 바늘까지 꽂혀있는 실토리가 그옆에 걸려있었다.

《괜찮은데!》

나의 이런 생각은 《아니 아직도 기다리세요? 정말 안됩니다. <설비점검>의 날엔 정말 일볼수 없습니다. 몇번 말해야 아시겠어요?》 하는 쟁쟁한 녀성의 목소리에 중단되고말았다.

사람들에게 가리워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으나 자리를 땀던 접수원이 들어온것이 틀림없었다. 두사람이 연거퍼 말했다.

《차, 이때까지 기다린걸 봐서라두 잠깐 일을 보게 해주지 뭘 그리 딱딱하게 그러시오.》

《정말 5분이면 충분하단데. 내래 아까두 말하지 않았나, 오늘차루 가야 된다구-》

《될수 있는 일이면 처음에 되는거지요.》

《<설비점검>날이란걸 미처 생각지 못했단말이요.》

고수머리청년이 낫을 붉히며 뒤더수기를 굽었다. 나는 동업자로서의 육감으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틀림없이 이 절군들은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는 어쩔수 없이 오늘이 설비점검날이라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달려들었을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고수머리청년에게 대답하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은 정말 한심해요. 남의 공장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그 일이 잘되겠나요?》

(허, 꽤 짠데 어떻게 되나보자.)

이런 경우 접수원을 잘못 건드렸다면 필요없는

손실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었다. 될수록 조용히 상대방의 기분을 흐리지 않게, 그래서 동정을 받을수 있도록 호소해야 한다는것을 나는 체험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렇게만 《예술적으로》 잘하면 독팀에도 용수가 있다고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지긋게 조르고있는 두사람사이로 접수원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순간 나는 그만 굳어지고말았다.

이때 나는 하마트면 《아, 저 동무가?!》 하고 거의 탄성에 가까운 목소리를 터쳐놓을번했다.

(저 동무를 여기서 만나다니, 하여튼 잘됐어.)

나는 행운을 만난 심정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나가가기전에는 말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번에는 눈앞에 걸려있는 속보판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이런것을 알아들읍시다.》라는 제목을 달고 3일부터 5일어간의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주고있었다. 3~4일은 개이겠고 5일은 오전은 개인날씨겠으나 오후부터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나의 눈에는 그 글발이 보이는것이 아니라 석달전에 있었던 일이 삼삼히 밝혀오고있었다.

2

석달전 한껏 부풀던 봄이 끝나가고있던 어느날 달밝은 밤이였다.

나는 도지방상사에서 분기자재공급계획을 토로하고 그달 생산에 긴급히 필요한 자재 몇가지는 직접 타서 지고 기차편으로 떠나기로 했었다. 상사에서 내려공급해주겠다는걸 나는 굳이 그들의 수고를 만류했다. 상사에 올라온김에 직접 가지고 가면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상사에서 또 사람이 내려오겠는가는 말에 그들은 지고말았다.

배낭 두개를 빌려서 쓸어넣어 지니 쌀섬이나 멘것 같이 무거웠다. 역전이 가까와 다행히 고생스러움은 크지 않았으나 중평역에 내려서 그만 나의 불찰로 고생을 사서 하게 되였다.

밤이라 빠스가 동안 뜨게 다녔다. 빠스를 기다리는것이 무료한 나머지 나는 역뒤에 있는 지질탐사대에 들러 병사시절의 옛동무를 만나 두루 회포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빠스시간이 달라진것을 알고 황급히 뛰어나오니 마지막 빠스가 뒤꽂무니를 흔들며 사라져가고있었다. 울고싶도록 안타까웠다.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니 11시가 넘은 야광시계의 바늘이 짜늘하게 얼굴을 울려다본다. 이때 읊으로 가는 빠스정류소에 서있던 한사람이 내앞에 다가와 알은체를 했다.

《이거 편직물공급소 지도원이 아닌가?》

읍에 있는 식료공장 자재지도원이였다.

나는 그전같으면 반갑다고 손을 잡고 흔들었으련만 오늘은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간단히 알은체를 하고는

《참 일이 맹랑하게 됐네.》

하고 가볍게 나의 기분을 표현했을뿐이였다. 그말에 친구는 방금전 나의 행동을 보기라도 한듯

《그렇게 바빠 다니다간 숨이 넘어가겠네.》라고 했다. 나는 조금전에 빠스뒤에 대고 소리소리 지르며 따라가던것이 허구프게 생각되어 한숨만 지었다.

《엎어진김에 쉬어간다구 하루밤 쉬구 래일 차를 부르라구.》

식료공장 지도원은 한가한 소리를 했다.

《언제 그럴 새가 있나? 이 물건은 그럴수가 없는걸세. 이달계획이 튀느냐 마느냐 하는걸세.》

쏟아져내리는 달빛아래 덩돌하게 놓여있는 배낭 두개를 보느라니 나의 말은 서글프게 울렸다.

《그렇다면 야단인걸.》

식료공장 지도원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배낭까지 들어보았다.

《이크, 굉장히 무겁군그래. 하여간 욕심이 대단하단말이야.》

그는 끝끝 혀를 찼다.

나는 그에게 배낭안에 든 물건들이 이달 증산계획수행에 얼마나 긴요한것들인가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로동자들이 생산물을 150%로 내면 자재일군들은 적어도 300%로는 달려야 하네.》하고 말했다.

이때 나는 나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는 한 처녀를 발견하였다. 밤이여서 처녀의 얼굴을 딱히 알아볼수 없었지만 달빛속에 드러난 처녀의 얼굴은 먼발치에 서있는 조각상처럼 인상깊게 보였다.

이때 정류소에는 읊으로 가는 마지막빠스(11시 30분에 떠나는것)가 미끄러져오듯 다가왔다.

식료공장지도원은 사람이 다 오른 뒤에도 차에 오를념을 안하고 내옆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래서 걱정 말고 어서 타라고 그의 등을 떠밀어주었다. 그 말에 지도원은 《오늘밤에 수직이 아니면 동무삼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며 난처한 빛을 지었다.

《일 없네, 지고라도 가겠네. 어떤 방법이 있겠지.》

나는 땅에 있는 배낭을 힘있게 들어 등에 지고는 그우에 배낭 하나를 마저 올려놓았다. 배낭 지는것을 도와준 식료공장 지도원은 여전히 빠스에 오르지 못하다가 빠스가 떠나려고 부르릉거려서야

《안됐네, 정말!》

하고 난처한 빛을 띄운채 빠스에 올랐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뺄스정류소를 얼마간 벗어나려는 때였다. 갑자기 등뒤에서 누구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지, 동-지, 저어 잠깐.》

내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을 때 앞에는 조금 전 뺄스정류소에서 내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그 처녀가 서있었다.

나는 놀랐다. 뺄스정류소에 서있던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읍으로 가야 할 동무같은데 무엇때문에 뺄스를 타지 않고 자기의 걸음을 멈추어세웠는지 그 까닭을 전혀 알수 없었기때문이다. 나는 야릇한 의문을 느끼면서 혹시 내가 아는 처녀를 딱히 알아보지 못한탓에 그가 노여운 나머지 뺄스마저 타지 않고 나를 이처럼 찾는것이 아닌가 싶어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때 달을 가리우고있던 구름이 지나가자 처녀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다.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내 앞에 서있는 처녀는 이제 스무살을 갓 넘긴듯한 너무도 젊은 처녀였기때문이다. 뺄스정류소에선 퍼그나 숙성한 처녀로 보았었는데 이렇게 눈앞에 마주하고보니 전혀 달랐다.

중발한 머리칼, 양복에 습관되지 않은 자세 그리고 발등에 동그랗게 호를 그려놓은 권리화, 이 모든 것은 어딘지 모르게 고향에 있는 아직한 멋부리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막내누이동생을 생각해 하였고 그리고 금시 무엇인가 말할듯한 부드러운 입술이며 애원하는듯한 처녀의 고운 눈매는 내 마음을 이상하게 꼭 붙잡는상싶었다.

이윽고 나는 입을 열었다.

《누구를 찾는지? 나는 잘...》

그 말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말했다.

《저-어, 저를 물론 모르실거예요. 하지만 저두 그쪽으로 가니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

나는 처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동문 읍으로 가야 할 사람이 아니요?》

그 말에 처녀는 머리를 저으며 내 말을 부정하듯 말했다.

《물론 읍으로 가려 했어요. 그러나 중평에서도 일볼게 있어요.》

《.....》

《그래서 조금이라두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거예요.》

처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사색깊게 말하고있었다. 한동안 어리둥절하여 처녀의 말을 듣고있던 나는 한참만에야

《고맙소. 그러나...》 하고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데 이때 나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었다.

사실 나는 어린 처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었다. 처녀의 마음이 가혹하고 고마울수록 그것을 거절하는 나의 마음 또한 강렬해졌다. 하지만 처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여 끝내는 그의 진정을 받아들일수밖에 없었다.

수역만갈래로 은은히 쏟아져내리는 달빛에 젖은 신작로는 마치도 은주단을 필로 펼쳐놓은듯 앞으로 쪽 뻗어나갔는데 그우로 우리는 배낭을 지고 쉬임없이 걸어갔다. 포장길처럼 평탄한 쉼비레길 좌우로는 아카시아꽃이 한창이었다. 밤이어서 비록 초롱같이 매달린 흰꽃송이들은 딱히 보이지 않았지만 들크무례한 꽃향기만은 폐장깊이 스며들고있었다. 우리 두사람의 발자국소리는 향기에 함뿍 젖은 밤의 고요를 단조롭게 깨치고있었다.

《동문 도대체 어떻게 되어 나를 도와줄 용단을 내렸소?》

우리들이 얼마를 걸었을 때 나는 이렇게 처녀에게 물었다.

《그걸 뭐 용단이라고까지 하세요. 전 바빠치는 출장원들을 볼 때면 막 안타까와요. 그렇게 일을 아글타글하며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해요.》

처녀는 등에 진 짐을 가볍게 추슬러올리며 말했다.

《그건 동무의 마음이 그만큼 아름답기때문이겠지.》 하고 나는 말했다.

《호, 제 마음이 아름답다구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전 가끔 사람들한테서 욕을 먹군한답니다. 규정밖에 모른대구요.》

처녀는 필경 무슨 뜻을 녀두에 두고 한 말이였지만 나는 그것을 알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처녀와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것이 하도 재미있어 이제 한 말이 무슨 말인가를 물어본다는것도 잊어버리고말았다.

나는 처녀에게 어디에서 살며 어떤 일을 하며 그리고 무슨 일로 하여 읍으로 가던길인가를 하나하나 물어보았다.

그러나 처녀는 그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처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를 뿐이다.

《아이 그건 알아 무엇해요. 오늘밤중으로 이 물건을 공장에 가져가면 그뿐아니예요.》

처녀는 제법 어른들처럼 부정했다.

했지만 나는 더욱 처녀가 고맙게 생각되어 기특하게 느껴졌다.

비록 처녀와 처음으로 알게 되였지만 이 시각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친근하게 생각되어

무엇이든 자꾸만 말하고싶었다.

이리하여 나는 처녀가 전혀 묻지도 않았지만 나를 소개하는 말도 스스로 하였다. 그래서 나는 중평 편직물공장공급소 지도원인데 그것은 포병 여덟해를 지낸 뒤끝에 차레진것이라고 설명도 하였으며 자재일군이 되는데 대하여서는 군대복무경력란에 특무장을 했다는 기록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처녀는 묵묵히 듣기만하였다.

나는 고향마을에 대한 회상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북부, 전기를 일구는 바다같은 호수, 그 변두리에 자리잡고있는 림산마을, 이제는 키도 컸을 누이동생에 대해서도 말했었다.

《참 재미있어요. 감정이 풍부한것 같아요.》 하고 말한 처녀는 까르르 웃었다.

그바람에 차돌같이 흰이가 가지런히 드러나보이기도 했다.

얼마쯤 걷느라니 달빛에 번들거리는 실개천이 나타났다.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다. 물살이 밤의 정적을 깨치며 조잘조잘 흘러가고 물속에 침병 내려앉은 달은 궁싹궁싹 해염을 쳐가고있었다. 나는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서 징검다리에 들어선 다음 처녀가 건너오기 쉽도록 비뚤어진 돌을 고쳐놓아주면서 조심히 건너오라고 타일렀다.

징검다리를 건너 얼마쯤 걸던 처녀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참, 자재일군들은 수고가 많아요. 그만큼 영예롭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대안의 사업체제에 따라 자재를 우에서 아래로 공급해주는 일이 영예롭지 않아요? 그러나 전 그 일이 험치 않다는걸 알고있어요. 공급사업이란 무슨 일이건 힘든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늘 말하곤하지요.》

《글쎄, 그러면 동무네 아버지도 자재일군인게로군.》 하고 나는 넘겨짚으며 대답했다. 이 시각 나는 이 처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지경이었다.

참 똑똑한 처녀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의 성과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 성과를 뒤바라지한 보장성원들에 대해서는 린색한것이 상례다. 그러나 처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속깊은데가 있다. 나는 그 어떤 칭찬도 원치 않았으나 자재일군들의 수고를 인식하는 처녀의 마음이 나의 집을 날라다주는것보다 더 고맙게 생각되었다.

처녀는 한동안 아무말없이 걸음을 옮기다가 저으기 심각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자재일군들은 자기 일과를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고생이 많았어요.》

순간 나는 배스를 놓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같이

서 얼굴이 화끈거리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 탓하지 않았다. 그 말에서도 처녀의 속깊은데가 알려왔기때문이다. 이때 고개를 돌려 처녀를 보던 나는 그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이 흘러 달빛에 번들거리는것을 보았다.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배낭을 벗기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다.

처녀는 웅고집이었다. 우리는 두시간을 잘 걸어서야 목적지에 닿을수 있었다. 목적지에 온 나는 숙박소에다 처녀가 하루밤 묵어가도록 알선하는데 그는 호실만을 알아두고는 불일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튿날아침 그를 만나러 갔던 나는 아연해지고말았다. 어제밤 읍에서 량식물자를 싣고 온 자동차가 그길로 돌아서는바람에 처녀도 그 차편을 리용하여 읍으로 갔다는것이였다.

《조금 있으면 날이 새겠는데 밝기전에 눈을 좀 붙였다가 아침에 가라구 해두 말을 안듣더군. 꼭 오늘밤중으로 가야 일이 제대로 된다구 어디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지도원에게 말해달라구 하던데.》

숙박소책임자어머니의 말이였다.

《네-?!》

나의 입에서는 절로 놀람과 실망에 뒤엉킨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 혹시 그 처녀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두지 않았어요?》

이 말에 어머니는 눈이 둥그래서

《그럼 지도원과 모르는 사이우?》 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어제밤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그러자 책임자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럼 어제밤에 진작 그렇다고 말해줄게지. 쯔쯔, 난 잠자리를 하다 잘 봐주라기에 잘 아는 사이로만 여겼었지. 어디 그렇게 관 모르는 체넌줄 알았겠수. 에그-》 하고는 《아니 지도원이 와 그렇게 벅수요. 아무러면 그 이름 석자를 알아두지 못해유. 그런 재간 가지고 자재일은 어떻게 하시우.》 하며 노상 혀를 찼다. 책임자어머니는 나 못지않게 서운해하는것이였다.

이날 나는 일을 하면서도 종일 허전한감을 버릴수 없었다.

그 어떤 진귀한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이처럼은 서운할것 같지 않았다. 더우기 그날 걸렸던 자재를 풀었다고 속보판에 대서특필하여 소개되었을 때에는 더욱 처녀에 대해 몰인정한 인간으로 느껴졌다.

그후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나의 머리속에서

는 좀체로 그 처녀의 얼굴이 사라지질 않았다. 오히려 더 생동하게 그려지는 때도 있었다. 일을 끝내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그 어떤 명상에 잠길 때면 처녀의 얼굴이 기다렸다는 듯 눈앞에 방불히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운을 가슴에 심어준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3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의 문닫는 소리에 회상에서 깨어난 나는 드디어 처녀와 눈길이 마주치고말았다. 정말 그날저녁의 그 처녀가 옳은가?! 나는 기쁜 나머지 엉뚱하게도 이렇게 자문도 했다.

접수구앞으로 다가간 나는 《동무, 동무, 야 정말 이렇게 여기서 만날줄은 정말 몰랐어.》 하고 거의 환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제서야 처녀도 《어마나 지도원동지.》 하며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고 나에게로 달려나왔다.

우리들은 반갑게 손을 잡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출장을 오셨어요?》 하고 말하는 처녀의 얼굴에는 진정으로 기쁜 빛이 꽃송이마냥 떨기떨기 떨어져내렸다.

《불일이 있어 왔지.》

이렇게 말한 나는 안도의 숨을 후-하고 내쉬었다.

《언제까지 여기 계시겠나요?》

처녀가 다정스럽게 물었다.

《머칠 있겠어. 야, 참 그때 어떻게 것처럼 갈수 있어?》

나는 석달전의 일을 되새기며 야속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처녀는 생긋 웃기만 하고는 벽시계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란 소리를 했다.

《아이, 이걸 어쩌나. 회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말에 당황한 나는

《저 오늘 공장엘 꼭 들어가야겠는데-》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처녀의 얼굴에는 삼시에 근심기가 어리면서 한동안 무언인가 생각하다가

《태일 오시면 안되나요?》 하고 물었다.

《태일은 너무 늦겠는데.》

《야, 참. 그러면 왜 이렇게 <설비점검>의 날에 오셨나요?》

처녀의 얼굴은 언제 이처럼 맑았더니실게 흐려지고있었다. 이때 누군가 처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야 정말 안타깝네. 방금 저는 또 교대했는데.》

그는 안타까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그제야 나는 대기실에 들어설 때 이미 처녀가 없었던것으로 보아 그 시간에 벌써 교대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내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초조해져 처녀를 꼭 붙들다싶이했다.

이때 또다시 빨리 오라는 독촉이 불같이 날아왔다.

《야, 지도원동지!...》

처녀의 목소리는 실망에 차 울렸다.

《어쩌겠소. 글쎄 이젠 여긴 나 하나밖에 없지 않나. 독촉에두 용수가 있다는데.》

《네?!》

나의 타협조로 하는 말에 처녀의 얼굴엔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아랑곳할수 없었다. 나는 이곳에 와 여러곳에서 일보던 나머지 부득불 오늘 오게 되었다는 사정이야기도 하면서 일이 글러지면 새로운 편직기제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 대해서도 루루히 설명하였다.

《이래두 안되겠소.》

마지막에 나는 어성을 높였다.

《야 정말.》

처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퓌 떨구었다. 눈에는 물기까지 번득거렸다.

나는 처녀가 이해되지 않았다. 몇달전 그날밤에 처녀가 자기더러 사람들이 규정밖에 모른다고 하던 말이 불쑥 생각키었다.

《정 안되겠소?》

나는 이 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묻는다는 뜻으로 말했다. 그러나 처녀는

《지도원동지, 정 그러시면 수고스럽지만 퇴근시간에 오세요.》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녀가 지금 결코 나에게 통말을 하거나 누가 불가보아 원칙을 지키려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발길을 돌리고말았다. 내가 처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있소.》 하는 매우 통명스러운 말이였다. 불쾌하고 모욕받은 감정으로 처녀를 등지고 걷는 나의 귀에는 처녀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미처 《지도원동지-》 하고 부르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을뿐더러 더우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시한번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미처 종종 처녀의 발자국소리가 울리는듯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채 걸음의 속도를 높였다. 이때 나는 처녀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고 그가 나를 쫓아오리라 여겼다. 그러나 내가 얼마쯤 가도록

아무 기척이 없었다. 이때에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했지만 나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나는 꼭 배반당한것 같은감을 얼굴이 화끈 하도록 느꼈다.

그러나 어찌는수 없었다.

아마 내가 이 처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같으면 이처럼 급히 돌아서지 않고 비위를 부렸을지도 모른다.

공장과 멀어질수록 화가 나고 분이 치민다.

《참으로 맹랑하게 뻘어.》

중얼거리기도 했다. 암만해도 그 처녀를 리해할 수 없었다. 규정이 그렇다 해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니만치 아량도 있고 사정을 봐줄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 지금껏 내가 맞다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러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어려서 그럴가. 그렇다면 그 언젠가 잊을수 없는 달밤에 나를 도와나선것은 무엇때문일까. 어린 처녀들한테서 간혹 보게 되는 순간적감정의 충격에서 오는 동정심이였을까. 그러면 그것은 허영심에 불과한 번덕이었을것이다.

그런데 얼마 못걸어서 대기실계시판에 찍여있던 일기예보대로 비가 부실부실 내리었다. 마치도 그 비는 처녀가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진실하고 성실한 인간이라고 나에게 말해주는것만 같았다.

먼 하늘가에서 빙긋빙긋 번개질을 하고있었다. 비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세차지고있었다.

4

그날 저녁 려관방에 온 나는 계획대로 일을 못본 것이 가슴에 맺힌채로 자리에 누웠다.

일을 마치고 뒤미처 들어온 자상사 지도원이 내 곁에 자리를 퍼면서 한마디 했다.

《오늘은 웬일인가? 늘 나보다 늦더니, 하여간 일이 잘된가보군그래, 형타공장에 갔던 우리 동무들은 끝내 일을 보지 못하고 상사로 왔던데.

설비점검날이라 아예 딱 자르더라더군.》

그러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긴 지도원동무야 아침에 나갈 때 자신만만하게 나갔었으니 성과가 있겠지.》하고 말한 그는 자리를 다 편 다음에도 누울념을 앓고 말보따리를 펼친다. 남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기분에 흥취되어 잠시도 쉬임없이 주어쉴진다.

가뜩이나 속이 꼬장꼬장해서 일찍 드러누운판에 잠자리에서 이런 친구와 또 맞다들고보니 더욱 심기가 좋아지지 않은 나는 벽을 향하여 돌아눕고말았다.

왜 그런지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속에는 천만가지 생각이 겹쳐 돌아갔다. 군대복무물림으로 시작된 지난 3년간의 업무생활이 밤하늘을 날으는 반디불처럼 희미하게 때로는 뚜렷하게 흘러가고있었다.

이 시각 이상하게도 머리속에는 어느 공장 회계원처녀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면서 나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는것이였다.

보름전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어느 제강소에 강재를 실으러 간적이 있었다.

판매과에서 전표를 가지고 회계실에 돈을 물러갔던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부닥치고말았다. 판매전표에 기록되어있는 강재를 계산해보니 가지고간 지불보증서의 금액이 모자라 결재할수 없다는것이였다. 그제서야 나는 황급히 지불보증서(은행에서 보증하여준 돈)를 들여다보았다. 1,000원짜리였다. 500원이 모자랐다. 그리하여 나는 회계원처녀에게 자재사업과정에 쌓은 내판의 웅변술을 《총동원》했다. 돈이 모자라는 지불보증서를 가지고 온데 대하여 변명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지불보증서를 넣어준 공급소회계원까지 나무랐다.

나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회계원처녀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한마디 끼여들었다.

《정말 지도원동진 한심하네. 몇백리밖에 있는 회계원을 욕하면 무슨 소용이예요. 지불보증서를 요구할 때 본인이 정확히 금액을 알려줘야지요.》

이렇게 밀한 처녀는 얼핏 머리를 들어 나를 쳐다보고는 다른 문건에 닳대로 단 공인을 연방 꺾꺾 눌러대는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처녀의 대답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때 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공인을 내 전표에도 찍을수 있을가 하는것이였다. 실패를 할 경우에 공급소장이며 그밖에 강재와 얹혀있는 사람들의 실망한 얼굴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버쩍 긴장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자체의 약점을 뵈수록 처녀가 느끼지 못하도록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직심있게 달라붙었다. 이런 경우 꾸준한 인내성만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원은 《지도원동진 상점에서 돈을 안주고 물건을 살수 있나요?》하고 웃기까지 하며 막무가내였다. 그렇다 해서 물러설 수 없었다.

《동무, 기업소에서 기업소로 호상 류동하는 제품은 상품이 아니라 다만 상품적형태를 띤단말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엔 가치법칙도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단말이요. 이렇거고보면 상점

에서 판매하는 상품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소. 때문에 외상으로 주어도 기업소가 손실은 보지 않게 되어있소. 왜냐 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법적으로 되어있기때문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처녀는 웃었다. 그리고는 저쪽 방으로 갔다오더니(분명 누구와 토론을 하고 오는 모양이었다.) 이제껏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도장을 손가락사이에 끼우고 밀어놓았던 전표를 자기앞으로 끌어당기고는 거기애다 무엇이라고 적어넣는것이였다.

아마 돈이 얼마 모자란다는것을 기록하는것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그렇게 잘 아시는 지도원동지가 왜 지불보증서 하나 똑바로 넣어가지고 오시지 못해요. 물건을 사러갈 때 돈을 따져보는건 초보적인 상책이 아니세요? 물건을 외상으로 드릴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지 아세요? 강제가 긴급히 가야 할것이 아니라면…

이번주간에 지불보증서를 마저 가져오세요.》라고 하며 공인을 찍었다.

그리고 처녀는 고개를 들고 눈을 곱게 흘기며 말했다.

《동문 정말 질군이에요.》

《이게 내 장기라요.》

나는 우선우선한 태도로 통말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재일군으로서의 나의 숨씨와 수완을 만족스럽게 자부하며 흐뭇해하였다.

…내가 여직까지 다니며 만나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모두가 회계원처녀처럼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고 적극 도와주었다. 대리석바닥의 복도를 걸어 어느 책임일군의 방문도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두드려 그의 점심시간도 방해한적이 있었다. 그래도 그 일군은 나를 얼마나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던가. 그런데…

오늘 낮 공장접수실에서 다시 만났던, 언젠가 달밤에 자기를 도운 그 처녀의 얼굴이 불쾌하게 나타난다.

5

다음날 나는 무곡형타공장에 갈수 없었다. 화학공장에 급히 갈 일이 생겼기때문이다. 무곡형타공장것은 차후로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날씨는 아침부터 불로 지져대는듯 무더웠다. 오전안에 물자를 받아서 오후차로 중평에 돌아설 작정으로 나는 분주히 움직였다. 불덩어리같은 해를

이고 걷는것도 급하지만 뺄스안에 앉아있는것도 그만 못지않았다. 수건으로 연방 목덜미를 훑치며 박을 내다보던 나는 한손에 보따리를 들고 바쁜 걸음을 놓는 한 처녀에게 눈길을 주다가 저르기 놀랐다.

무곡형타공장 접수원처녀가 보매 몹시 무거운상실은 짐에 몸이 쏠려 힘겹게 걷는것이였다. 무척 다니기 좋아하는 처녀로구나. 무더위에 무슨 일때문에 나다니는지. 그나마 달리는 뺄스는 나의 시야에서 처녀를 떨구어놓았다. 빨강게 단 땀에 버물린 얼굴이 일순간 언뜻했을뿐이다.

도대체 들고가는것이 무엇이기에 이 땀약벌속에 서 저리도 수고하는것일가.

그러나 이 생각은 잠간이였다. 교환이바퀴를 창조하던 공무과장의 얼굴이 눈에 밝혀왔다. ㅈ상사 지도원을 믿고 그대로 돌아간다는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공무과장을 무슨 낫으로 대하랴. 그나마 자재공급사업에서 한다 하는 자기로써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는 뺄스에서 내리기바쁘게 체신소로 줄달음을 쳤다. 마치 비상소집을 받은 병사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 사람들의 량해를 얻어 먼저 전화기를 차지하고 무곡형타공장을 찾았다. 그런데 공무과장은 없었다. 통계원한테 중평에서 온 사람이란걸 소개하고 오후차로 떠나기에 직접 가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알아본다는 미안스러운 변명을 한후 교환이바퀴에 대하여 물었다. 하지만 통계원이 그런 내용을 알리 만무했다. 그저 안타까운 소리만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옆의 사람에게 인사말도 못하고 뛰쳐나와 화학공장으로 달렸다. 마침 제품이 거의 되어가고있었다. 며칠후 차를 가지고오겠다고 약속하고나니 숨이 나갔다. 나는 땀에 젖은 수건을 수도물에 행구어 짜며 이틀전 수요일날에 오늘의 절반만한 열성으로 달렸어도 무곡형타공장과 기계제작소 두군데를 다 가볼수 있었을걸하고 후회의 쓴웃음을 머금었다.

정문을 나서며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어느때같으면 일이 이쯤 되고보면 시간에 관계없이 형타공장으로 갔으련만 지금은 그럴 용기부러가 없었다.

그날 형타공장에서 그런 일이 있는 뒤로 나에겐 어딜 가나 날자와 요일, 시간을 따져보는 버릇이 붙었다.

그래서 나는 식사를 하고 오후 첫시간에 어차피

형타공장엘 가리라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굴리며
려관에 막 들어서는데 호실관리원이 반색하며 이제
껏 누가 와서 기다리다가 방금 갔다면 손님이 써
놓고간 편지와 물건이 호실에 보관되어있다고 말하
는 것이었다.

《난 아저씨때문에 우리 막내이한테 거짓말쟁이
가 됐어요. 오늘 필갑 사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젠 점심시간이 끝나가는데 언제 상점에 가겠어
요.》

호실에 들어서니 책상우에는 무엇인지 포장지로
성의있게 싸놓은 것이 놓여있었고 거지에는 관리원아주
머니의 말대로 정말 편지 한장이 끼워있었다.

서둘러 나는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라천균지도원동지에게》 이렇게 또박또박 박아
쓴 글자가 자석처럼 강하게 눈길을 끌어당겼다.

《지도원동지, 그간 안녕하십니까?

형타공장 순절이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
놓고 갑니다.》

(뭘, 순절이?!)

《지도원동지, 그날은 정말 미안하게 댔습니다.
하지만 전들 어쩔수가 없었어요. 이해해주리라 믿
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은 꼭 오시려니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더군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래도 행여나 해서 전할 걸어보니 안가셨더군요.
여기 종이에 싸놓은 지도원동지가 말하던 이바퀴
예요.

저는 이바퀴를 가져오면서 이바퀴의 맞물림에 대
해서 생각했어요. 이바퀴의 맞물림같은 빈틈이 없
고 짜인 질서를 세우면 우리 사업이 얼마나 더 전
진하겠는가하고도 생각했지요. 호호호... 제가 별소리
다 하지요. 지내 버릇이 없다고 나무람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진 나의 손은 가는 경련으로 하여 떨리었
다. 그리고 머리는 된 타격을 받은 때처럼 멍하였다.
심장은 세찬 박동으로 가슴벽을 쿵쿵 울린다.

아까 것처럼 힘겹게 들고가던것이 이것이었던말
인가.

나의 눈앞에는 이바퀴때문에 아글타글 애썼을 순
절의 모습이 뿌연 막뒤의 움직임처럼 일른거렸다.

나를 기다리던 나머지 끝내 오지 않자 순절이는
이바퀴를 가지고 기계제작소로 달려갔을것이다. 그
것이 완성되자 나의 행처를 찾느라고 이곳저곳 알

아보며 무진 애를 썼을것이였다. 때로는 너무나 안
타까와 눈에 눈물이 그렇게울수도 있으리라. 모름
지기 밤을 밝히며 뛰었으리라. 그런데 나는 려관에
서 편히 쉬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가슴은 터지는듯
피로롭다. 그것은 지난 기간 나의 체내에 쌓이고쌓
인 낡은 체념과의 작별에서 오는 마지막 진통이기
도 할것이다.

그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심정의 소유자인 처녀를
원망하고 질시한 나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리기주
의자이고 청맹과니였는가. 무엇으로 그앞에 사죄하
고 그의 얼굴을 대한단말인가. 땀에 젖은 그의 모습
이 나의 앞에 산처럼 솟아오른다. 그와 함께 외상으
로 자재를 결재하여주던 어느 공장의 회계실처녀며
자재부문의 어느 간부, 체신소의 교환수, 지어 자
기 일을 미루고 책임성있게 이바퀴를 전달해준 려
관의 관리원아주머니의 얼굴까지도 꼬리를 물고 떠
오른다.

그 아름다운 얼굴들은 나에게 전진하는 현실속에
서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이야말로 짜인 일과
속에 자기 일을 넘쳐하며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
장 성실한 일군이며 나의 생활의 말없는 교사이기
도 하다. 그런데 나는 내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보다
열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개력이 있다고 생각해
오지 않았던가. 자재일군은 늘 남을 위해서 숨은 노
력가로 일한다고 내뽐내 자부하지 않았던가. 내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것은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방조때문인것이였다. 그러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야말로 뒤떨어진 사람이였다.

나의 머리는 무거워졌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은 무척 밝아지는것 같았다.

그때부터 몇해가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 처녀를 잊지 못한
다. 이바퀴의 맞물림처럼 모두가 서로 받들고 서로
도와주는 우리 사회에서 나 하나가 구실을 못함으
로써 남들에게 그만큼의 수고를 끼치는 사람이 되
지 말자는 글발이 되어 그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
다.

아카시아꽃향기 찬창이던 달밝은 밤에 함께 걷던
처녀의 웃음어린 얼굴, 일과를 이바퀴의 맞물림처
럼 조직해야 한다는 그 처녀의 절절한 편지구절들
이 눈앞에 삼삼히 밝혀오고있다.

좋은 날의 깊은 생각 외 1편

동기춘

막장에서 저탄장까지
벨트콘베아를 놓고
석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곁에서
우리는 탄차를 넘겨준다
다른 일터로

수령님 은덕으로 우리 막장에도
얼마나 좋은 일들 많았던가
좋은 날 그때마다 생각도 깊었지만
콘베아를 놓고 탄차를 떠나보내는 오늘은
전에 없이 가슴속 더 깊어지는 생각

간데라를 주련이 걸어놓고
장군님께 올리는 첫 맹세문을
너의 곁에서 우리 썼더랬지
폭격에 뚫어진 너의 상처자리를
그 몇번이고 메우며
어려운 전쟁도 함께 치뤘고

낡은것들을 버럭에 담아 실어보내며
벽찬 계획년도의 봉우리들을 치달을 때
너의 바퀴는 열이 오르고
우리의 팔뚝은 익세여졌나니
두어라, 끝없는 그 이야기
사랑의 힘든 고백도 네곁에서 했던것을

수고 많았다 탄차여
네가 탈선 모르며 굴러온 길에
우리 또한 흘린 땀 많았어도
그것으로 조국을 섬기고 당을 받들었음에
그래서 저 콘베아의 흐름도
이 막장끝까지 물결쳐온게 아니냐

탄차에 듬뿍하니 탄을 실어보내며
어버이수령님께 바쳐온 그 충성
백배로 더하여 불태우리라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콘베아의 새 노래로 앞날을 수놓으며

막장에서 저탄장까지
거창한 폭으로 콘베아는 흘러가고
검은금은 해빛아래 번쩍거린다
춤추라 흘러가라 끝없이
더 좋은 래일은 네 물결에 실려오리니

우리 오늘 콘베아를 마중했지만
알지 못해라, 래일은 또 어떤 행복이 마중올지
아, 좋은 일 많아서 좋은 날에
우리 생각 깊어짐은
수령님 은덕이 고맙고 고마와...

이백오십리

가면서 이백오십리
오면서 이백오십리
부산에서 청진은
기차로도 한나절

산우에 산 골밑에 또 골짜기
금패령엔 삼복에도 얼음이 허영다는데
그 높은 산 그 많은 골 넘고 건느며
수송관에 굽이치는 정광의 흐름소리

그 누가 생각인들 했던가
수송혁명의 저 새 노래
뜨거워라, 이 길의 끝에서 끝까지
수령님 헤치신 사랑어린 그 자욱...

오늘을 위해 또 미래를 위해
무산의 철의 봉우리들을
김철의 용광로에 옮겨놓으실 큰 구상
끝없으신 그 마음 그 몇번 이 길위로 오가셨을가

세월이 흘러
정광이 흘러
무산의 철산이 다 흘러가면
사랑의 그 끝에 닿을가

철의 대하가 흐른다
수령님 열으신 길로
무산에서 청진은
사랑의 이백오십리

설레이라, 만풍년의 들이어

홍현양

언제 걸어도
다시 걷고싶은 땅
언제 보아도
다시 보고싶은 들

정녕 알수 없으랴
그 어디에 서면
이 땅에 넘쳐나는
금나락의 속삭임소리
다 들을수 있으랴

바라보면
가없는 두렁길 우에
뜨거운 생각은 나래쳐
이 가슴에도 설레이는
만풍년의 벼바다여

그 어디에 서면
내 너의 끝을 다 볼수 있으랴
언덕에 오르면
등판에도 강냉이바다
풍년새 노래하는 저 하늘가에
해빛은 눈부시여라

무르익는 향기
들바람 들향기를 싣고
분주히 달려가는 프락포르
포전길을 걷는 이 마음도
감사의 노래를 안고
끝없이 나래쳐라

걷다가도 문득
멈춰서는 논머리는
수령님 물온도를 재어보신
사랑의 그 포전

걷다가도 다시 한번

소중히 안아보는 언덕은
수령님 물길 열어주시며 오르셨던
만풍년의 다락밭

아, 수령님 주신 땅에
뿌리 내리고 이삭패여
사랑의 햇빛따라 무르익는 들이어
조선의 들이어

봄 여름
들길을 걸으시며
산언덕을 넘으시며
차디찬 바다바람
안개비 내리는 땅에
주체농법 햇빛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그 은덕

그 사랑을 안고
서해의 한끝에서
두만강기슭까지
백리 함주벌
북관의 이랑땅도
만풍년의 자랑을 싣고
기쁨에 설레이는구나

진정 어디에 서면
그 어디에서 바라보면
이 땅의 이 기쁨
이 땅의 이 행복을
다 노래할수 있으랴

수령님 찾으셨던
그 발머리
수령님 오르셨던
그 등판에 서니
사랑의 그 길 끝이 없이

아, 들어 조선의 들어여
수령님의 사랑을 다 안기엔
이 가슴이 모자라고
수령님의 은덕을 다 담기엔
이 땅이 모자라
만풍년의 나락은 하늘가에 넘치누나

아버이수령님
풍년들을 보시며
풍년언덕 바라보시며
지어주신 그 이름

조선의 벼바다 강녕이바다
사랑의 바다여

물결쳐 설레이라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르는 길에
충성다하는 우리 마음처럼
끝없이 끝없이 파도쳐 설레이라
만풍년의 들어여

조국의 동서부를 하나로 이어

강현세

별빛을 싣고 날아올랐다
새벽을 안고 치달아올랐다
달리며 달리며 그리던 얼굴
우리 또다시 여기서 만났구나
양덕고개 아아한 산정

기관사의 마음
그 뉘라서 다르랴
여기 높은 령 구내에 올라
조국의 동서부의 새 소식을
기적소리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여!

내 서해천리 풍년벌을 누비며
견인초과의 불바람 일으켜 달릴 때
동해의 파도를 끼고 달려온 기관사야
어디 보자, 서로 말은 없어도
웃어반기는 우리의 심정
불같은 증송의 인사로 뜨겁구나

엇갈리는 순간에도
천만마디의 말을 하는 서로의 눈빛
동서부의 그 많은 사랑을
굴러가는 차바퀴도 서로 주고받는듯
차장치녀들의 혼드는 손길에도
조국땅 두기슭의 기쁨이 어려있구나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만날 때마다
새로와지는 이야기
헤여질 때마다 말없이 다지는 서로의 맹세
변영하는 조국을 위한 우리의 마음
기나긴 차량마다에 가득가득 실렸거니

서부로 가는 강피와 흰눈같은 비료더미에서
이 나라 로동계급의 열정이 안겨와
동부로 가는 기계와 옥백미에서도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어려와
이 령마루에 오르면
나날이 높아가는 조국의 모습이 보이는듯...

아, 종구나 그대와 나
여기서 만났다 헤여지는
이런 순간이 많아질수록
조국강산은 더더욱 아름다와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랑랑히 울리리니

기적소리여 울려라
또다시 힘차게 떠나가자
여기 조국의 분수령 구내를
나라의 동서부를 이어가는 시발역으로
우리 만나고 헤여지는 그 나날이
조국이 더 높은곳으로 오르는 나날로
기관사 우리 가슴엔 언제나 솟아있어라

나의 작업반

박명도

나는 언제나 반갑다네
꽃다발 안고 정든 합숙 들어설 때면
신입공 내 가슴 얼싸껴안고
방안이 떠들썩 기뻐들 하는 작업반동무들

이런 때면 마음 좋은 합숙어머니
내 식탁을 생일처럼 차려준다네
분기계획 끝내인 나를 축하해
로장은 내곁에 잠자리 편다네

가슴속 비밀 어이 숨기랴
귀속말로 사랑이야기를 물을 때면
나는 귀밀을 뽐히며 내보였지
남몰래 품고다니는 고향처녀의 사진도

이런 밤은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듯
내 얼마나 철부지였으랴, 애송이용해공
안전규정이며 기능수준 헤아림 없이
쇠물앞에 뛰어들던 첫 출선의 날이어!

그날 내 작업총화의 연단에 올라
동무들의 엄한 눈앞에 머리 숙였지
그 밤 내 일기장은 눈물로 젖었고
기러기처럼 날아갈 생각도 그 몇번

그때마다 내 발목 휘어잡는것은
혈육의 리별같은 아픔이 온것은

나를 두고 걱정을 하던 로장동무며
내 탓에 잠못이루던 온 반원들

그들이 이 밤 찾아왔구나. 나를 축하해
나에게 엄한 비판 주던 동무들
그들모두가 내 목을 껴안고 감격에 젖네
마치 백열전에서 돌아온 전우를 맞이하듯

아! 용해공, 용해공
쇠물다루는 사람들의 뜨거운 정이여!
이들속에서 고락을 함께 겪노라면
소리쳐 하고싶은 말도 많거니

나는 살리라
내가 사는 작업반, 나의 벗들
이 뜨거운 동지애의 바다속에
날이 갈수록 삶의 뜻을 깊이 던지나니

강행군의 신들메도 함께 매고
조국의 철의 고지도 함께 책임지며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아버이수령님 맡겨주신
여기 나라의 만아들의 일터에서

쇠물같이 아름답고 쇠물같이 열렬한
용해공들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우정의 노래, 위훈의 노래를
이 내 로동의 나날속에 끝없이 적으리라

내 고향의 버드나무

김정순

속삭이듯 정겨이
봄풀 설레는 전호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니
떠오르는 생각
마음속엔 치렁치렁
내 고향의 실버들 드리워라

지금쯤 버들꽃 한창 피었으리
수령님 다녀가신 고향마을
동구박 샘터에 푸르른 버드나무

내 철없이 맨발자욱 찍던 그늘밑엔
예나 다름없이 수정샘 정가로우리

잊을수 없어라
군복 입고 초소로 떠나올 때
물우에 덮인 버들잎 헤치고
바가지에 철철 물을 떠주던 어머니
물속에 비꼰 그윽한 그 미소

보람찬 병사생활

행군과 병사생활
꽃피는 숙영의 낮과 밤에
꽃피는 고향소식 속삭여주는
너의 설레임소리 나는 들었다
달디단 그 썸물 가슴속에 출렁거렸다

어린시절의 추억
아침저녁 다정히 인사를 나누며
너를 에돌아 학교길 오가던 나날
네 그늘밑에서 노래를 불렀지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그 노래속에 소년궁전 란간을 내려서서
사로청 맹증 가슴에 품고
한달음에 달려갔던 별많은 그 밤
너를 부여안고 생각도 많았어라
너와 함께 내 나라의 아들로 자라고있음을

못잊었어라 버드나무
저마다 제 고향의 자랑으로
병실의 저녁이 흥성일 때면
버드나무야 너는 내 고향의 모습으로
가슴속에 푸르려 설레었다

아, 버드나무 내 고향의 버드나무

너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별이 뜨거울세라 그늘을 주면서도
마음속엔 창창한 하늘 펼쳐주었더라
해마다 새겨지던 네 돌기따라
나도 새기었더라
고향땅에 행복의 내 나이를

버들가지 무성하고
나도 자라
오늘은 수령님의 높은 믿음
수호자의 영예 지니고 땀땀이 서있나니
어찌 한치인들 헛디딜수 있으랴
내 옹기는 충성의 발걸음

고향의 버드나무
나와 함께 자란 푸른 나무여
너 뿌리 깊을수록
가지와 잎새 무성하듯
내 조국의 튼튼한 터전우에
나의 삶 활짝 꽃피나니

전호가엔 봄풀 설레는 소리
가슴속엔 내 고향의 버드나무 속삭인다
정든 고향땅, 사랑하는 조국 위해
이렇듯 내 총을 굳게 잡았음을
그대 위해 내 목숨도 아낌 없으리란것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김수남

어데 가나
그 언제나
생활은 즐거워
사람들 제 고향을 자랑할 때면
나는 너를 자랑했더라
아버이수령님
세차레나 다녀가신
나의 공장
나의 일터

해빛이 소중함을 느끼듯
여기서 내 스스로 깨달았다
젊은시절의 철없는 영웅심을
깨끗한 로동계급의 양심으로 다스려준
조직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낮과 밤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잊지 않고

나를 불러 설 자리를 내여준
그 뜨거운 믿음과 우정이
내 작은 가슴속에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힘 썸뿔게 했다

년간계획 끝내던 날
열다섯명 나란히 찍은 영예사진속에
의젓하게 서있는 나의 모습을
사람마다 부러운듯 바라볼 때
내 마음 얼마나 행복했던가
나도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니

잊을수 없어라
인자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이끌어준 당조직
나의 입당보증을 서주던 나날에
전투의 돌격로우에 나를 세워주고
해종일 말없이

나의 등을 떠밀어주던 이 마음들을
 일어번지는 전기로의 불길속에
 티없이 맑은 마음을 새기며
 오직 하나의 뜻으로 뭉쳐진 한가정
 모두가 친형제같은 이 집에서
 나는 그 몇번째 아들로 자라나고있는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창가
 정답게 들려오는 기계소리에
 어느덧 마음은 너에게로 이끌려
 한밤에도
 붉은노을 피어나는 하늘을 바라보면
 못견디게 그리워 마음 달리는
 공장은 나의 집
 공장은 우리의 집

아, 기쁨이 있어도 수령님을 우러르고
 어려움이 있어도 수령님을 생각하는 마음
 언제런가, 래일이라도 문득
 어버이수령님 찾아오시면
 나도 함께 만나뵈오리라
 크나큰 행복에 겨워
 낮도 밤도 그 언제나
 충성으로 뿜고뿜는 나의 공장이어

내 여기서
 보람찬 생활의 길을 걸으며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고귀한 생명을 빛내이거니
 진정 너는
 나의 영원한 삶의 집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이 깊은 사람들

권강일

깊어가는 이 한밤
 황황 타는 로를 후야근에 넘겨주고
 공장문을 나서면
 정겨워라
 함께 가는 작업반친구들

시원한 바람도 좋구나
 불보라속에 땀흘리던 얼굴들
 웃으며 떠들며 어깨 비비며
 뜨거운 정이 스미는 이 밤이다

세찬 열풍으로 로심은 언제나 백광이여도
 불바람소리속에 높이 소리치던
 걱정 많던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껄껄 웃어봐도 좋구나

넘치는 쇠물남비를 내려다보며
 쇠란간에 높이 서서 마주웃던 눈빛
 지금은 가까이 담배불을 건지며
 말없는 말이 뜨겁게 오고감도 좋다

처음 입은 방열복이 어울리지 않아
 앞섶을 쓸어보던 내 로동의 첫걸음을
 로앞에 뿔뿔이 세워준
 나의 작업반 참다운 로동가정이어

단 몇시간을 못기다려
 뜨거운 로속에 뛰어드는 용해공의 성미를 닮아

쇠물은 그토록 뜨거웁던가
 나는 끝나지 않은 싸움길
 혁명의 준엄함을 쇠물에서 보았다

로동으로 맺어지는 우정을
 어찌 쇠물없이 생각할수 있으랴
 출강구를 터치며 남비에 쇠물이 차오를 때
 용해공들, 나의 벗들 가슴속에 하나같이
 차오르는 기쁨은
 조국의 미래를 안아
 쇠물의 불꽃처럼 아름다웠다

수령님을 생각하고
 수령님을 따르는 그 마음
 쇠물로밖에 달리는 피울줄 모르는
 나의 벗들, 정깊은 사람들이여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쇠물이 흘러나왔던가
 얼마나 많은 강제가 조국의 초소로 떠나갔던가
 하늘가에 아름다운 쇠물빛 노을이여
 보람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운
 내 조국의 로동일이여

한자한자 글을 익히며 조국을 알았듯이
 평범하고 수수한 이 사람들
 용해공의 이 우정속에 비껴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날마다 읽으며
 나는 조선로동계급-용해공으로 자란다

충성의 열정을 안겨주는 뜨거운 서정

행복속에 태어나 행복만을 받으며 사는 저는 오늘
의 이 행복을 레사로운것으로 여기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의 시작품을 읽고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며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충성의 열정
을 더욱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서정서사시 《사랑의 길우에서》(《조
선문학》 1979년 7호)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었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혁명적
문화예술이 노는 역할이 매우 큼니다.》**

나는 생동하고 진실한 이 시의 세계에 이끌리어
끓어오르는 혁명적열정과 흥분속에 아직도 잠겨있
는 심정입니다.

나는 작품의 시작부터 주인공인 처녀분조장과 함
께 수령님을 만나뵈을 그 념원으로 가슴은 울렁이
였습니다.

산너머 먼 공장지구에
소문없이 들리셨다는 수령님
이번 걸음엔
우리 마을에도
오실것만 같아

아버이수령님을 자기 농장에 모시고싶어하는 그
마음은 전국농업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한번 꼭 들리시겠다고 수령님께서 약속해주
신 그날부터 더욱 뜨겁게 되었음을 생동한 화폭과
감정으로 노래하고있습니다.

해저무는 산촌의 길가에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한
녀인을 만나시였던 그 마을에서 왔음을 아신 수령
님께서 처녀분조장의 토론을 들으시며 다시금 조용
히 《양지마을이라...》 하고 되뇌이시는 그 깊은
생각과 함께 《내 한번 꼭 가겠소》라고 하시는
그이의 다정하신 음성이 주인공의 가슴에 가득차넘
치는것입니다.

이 마음, 이 격정을 안고 나는 처녀분조장과 함께
수령님께서 찾아주실 영광의 그날에로 달음치며
시의 세계에 이끌려갔습니다.

온 나라
온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은 한분이시고
모시고싶은곳
모시고싶은 마음은

천만이고 몇천만이니

어떻게 오시라
만나실 사람 많으실텐데
어떻게 오시라
들리실 고장 많으실텐데

처녀분조장의 그 절절한 심정을 헤아리신듯 오신
다는 소문도 없이 풀씨들이 달라붙는 등성이를 넘
어 강냉이밭에 와계시는 아버지수령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러 나는 주인공과 함께 크
나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농장을 찾아주신것만도 세상
에 다시없는 영광인데 그이께서는 몸소 비탈길에
오르시여 대포로 참새를 잡는 격이라 할수 있지만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며
다락밭에 생명수를 끌어오도록 해주시고 마을의 동
구길을 기계화의 큰길로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이룸없는 한 농장에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고 풍년든 다락밭을 보시려 또다시
오시겠다고 분에 넘치는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수
령님.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수령님께서 오실 때에는
오솔길로 오시고 가실 때에는 기계화의 넓은 길을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에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
니까.

정녕 이 땅의 그 모든 행복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오솔길, 진창길, 밭길... 그 험한 길을 다 걸으시며
펼쳐주신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마련하여주신 오늘의 행복속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 이 시를 통하여 아버지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격을 금할수 없습니다.

희망에 부른 가슴 들먹이며 일터로 갈 때에나 떠
들썩 웃으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다가도 문득 이 시
가 떠올라 구절구절을 외우며 힘있게 일손을 잡군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수령님께 대를 이어
끝없이 충성다할 결의가 스스로 마음속 깊이 다져
지군합니다.

서정서사시 《사랑의 길우에서》는 우리 청년들
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 충성의 열정
을 안겨주며 언제나 참다운 길동무로 되리라고 붙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좋은 시작품을 많이 실어
주기 바랍니다.

농업위원회 자재상사 건설중대

김의찬

위대한 사랑의 자취를 더듬어

김원복

산들바람이 실려오는 가을의 구수한 향기가 가슴마다에 흐뭇한 맛을 안겨주는 참말로 좋은 계절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다녀가시어 불멸의 자취가 깃들어있는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을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기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여성들을 벗어나게 하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기며 공장에 다달았을 때는 벌써 한낮이 되였다.

우리앞에는 흰 벽체 산뜻한 거창한 건물들이 큰 도시처럼 펼쳐져있었다. 우리가 정말 밀가루종합가공공장을 찾아왔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데를 왔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철길이 담장안으로 뻗어간 낮으막한 산을 끼고 대단히 높은 층의 건물들이 번듯하게 들어앉았다. 닫혀있는 창유리들에서는 해빛이 눈부시게 부서져 반짝거렸다. 굉장한 부지를 차지하고 줄줄이 들어앉은 고층건물들, 말쑥하게 포장된 넓은 구내길, 그 좌우로 코스모스, 금전화, 백일홍, cúc꽃들이 곱게 핀 꽃밭들, 신작로를 가로 건너간 정관들, 분주히 드나드는 식료차들, 고르롭게 울려나오는 기계의 동음소리... 여기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이다.

우리는 정문에서 반가이 맞아준 이곳 안내원과 함께 구내길에 들어섰다.

길 양옆에 잘 보이는곳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판들이 정중히 세워져있었다.

《공장이 굉장한데요.》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길 없어 처음부터 탄성을 올렸다.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도도하여주신 사랑의 자취가 어린 공장입니다.》

우리는 공장이 이처럼 웅장하게 건설된데 대하여 안내원으로부터 자세히 듣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여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부식물가공공장과 함께 주식물가공공장을 더 많이 건설하고 그 생산을 부쩍 올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녀성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으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혁명과 건설사업에 더잘 이바지하게 되였다.

그럼에도 한평생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크기에서 보기도못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을 지으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전망성있는 이곳에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치도 아름답고 물원천이 좋으며 전기를 편리하게 쓸수 있는 이 자리가 좋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설비와 자재,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건설을 자주 알아보고 생산설비와 기능공양성문제, 수송과 공급에이르기까지 무려 수십차례나 교시를 주시였다.

공장은 드디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가장 현대적인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고 준공되어 생산을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산이 한창이던 1978년 1월 10일에 몸소 공장에까지 찾아와주시였다.

《몇해전만 해도 바랭이풀밭속에 딸기나무가 약간 있고 언덕의 밑보리밭에서 종다리가 하늘로 오르며 지중거리던 이곳에 보는바와 같이 밀가루종합가공공장이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공장에 모셨던 감격스런 지난해 11월 10일이 가슴뜨겁게 안겨오는듯 그는 격동된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이곳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식료품을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생산공정의 가동상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밀쌀을 자동차로만 운반해서는 당해낼수 없으니 철도인입선을 놓고 기차로도 날라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망적으로 운하가 건설되면 배로도 실어올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가 계신후 철도인입선을 저렇게 놓고 기차로 밀쌀을 실어들입니다.》

우리는 안내원동무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았다.

없는것은 찾아내고 있는것은 아껴쓰면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철길인입선을 놓아 오늘은 밀쌀을 기차로 실어들이고있다.

밀쌀은 벨트콘베아를 타고 싸이로에로 운반돼간다.

바라보이는 모든 설비, 알뜰한 건물, 방금 심겨진 듯한 어린 가로수 그 한대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숨배어있음을 우리는 가슴뜨겁게 느꼈다.

이곳 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에 고무되어 자기들이 다루는 모든 자동기계들과 생산설비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들어냈으며 높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여 몸소 걸으신 불멸의 자취를 따라 밀가루직장부터 찾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승강기를 타시고 오르시여 매 층의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내려오시였습니다.》

《우리도 승강기에 오릅시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르셨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신듯 흥분이 가슴에 차고넘쳐 우리의 마음은 마냥 설렘었다.

우리는 6층에서 내렸다. 여기는 요동채실이다. 말 그대로 밀가루채가 요동치는것처럼 흔들어진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집채같은 네모방정한 채뿌리가 통채로 흔들린다. 이런 채가 두줄로 끝없이 놓여있고 그우로는 혈맥인듯 열기설기 뻗어간 배관들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게 늘어져있다.

정관을 통하여 운반된 밀쌀이 정선기에서 바람, 자석 등에 의한 분리가 되고 세척되어 밀가루로 분쇄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밀도에 따라 요동채실에서 갈라지여 여러번 반복 분쇄 채질된다. 매 기대들마다에는 파랑고 빨간 신호등이 달려있어 그의 가동상태를 알려준다. 기대공은 방직기를 돌아보는 방직공처럼 기대사이로 다니면서 신호등을 감시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대의 가동을 보살피시고 성능이 괜찮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우리는 요동채실을 돌아보고 5층으로 내려왔다. 여기는 품별기실이다. 여기서는 밀쌀에 혼합된 잡물과 밀기울이 바람에 의하여 분리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대의 감시창안으로 밀쌀과 밀기울이 갈라지는것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고 배워갈수 있겠다고 하시였다.

품별기들은 렬을 지어 끝이 보이지 않게 놓여있었다. 기대공들이 나는듯이 기대사이를 돌아갔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었다. 창유리를 넘어들어온 해빛이 기대우에서 부서졌다. 참말로 기계바다같았다. 감시창으로 보면 립도의 크기에 따라 정선되어 밀쌀은 내려가고 밀기울은 바람타고 배기관으로 나간다. 이 넓은 작업장의 기대

들을 단 두명의 기대공이 맡아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밀기울의 성분을 분석해보시고 배합사료로 닭공장이나 돼지공장같은데 보내서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안내원은 설명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총성의 한마음을 다 쏟아붓고있는 기대공들의 미더운 얼굴에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일하기가 어떤가고 물었더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교대시간이 되여도 작업장을 떠나고싶지 않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들의 작업성과를 기대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4층에서 우리의 눈에 인차 안겨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녀가신 중앙조종반, 1978년 11월 10일》이라고 쓴것이였다.

우리가 중앙조종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조종공처너는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었다.

《수고합니다.》

조종공처너는 수집은듯 얼굴이 홍당무빛이 되어 일어나며 인사를 했다.

《위대한 수령님을 이 조종반실에서 뵈왔던 동무입니다.》

안내원동무는 조종공처너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렇구만요. 영광입니다.》

얼굴에 소리없이 미소를 담은 조종공처너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아직은 귀엽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천진한 나이라고 해야 할지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조종반에 앉은 처녀였다. 그는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있었다. 처녀를 부러워하듯 삼면의 조종반에서는 실사이 없이 붉고 푸른 신호등이 반짝거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제기하자 키가 작달막한 처너는 새물새물 웃기만 하던 얼굴에 정숙의 빛을 띠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위생복도 입지 않고 작업상태를 등록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중앙조종반에 들어서시는것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애처럼 어버이수령님 품으로 달려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만나뵈고싶고 가까이 모시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소문도 없이 중앙조종반에 들어오셨던것이다.

마음의 준비도 없던 조종공처너는 옷매무시도 바

로 잡을 생각을 잊고 그리운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안길듯이 달려갔다.

《경애하는 수령님!》

조종공처녀는 정숙히 인사를 올리는 순간 너무도 감격에 목매여 말을 잊지 못하였다.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려 얼굴을 들수조차 없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종대앞으로 어떻게 모셨는지 지금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때 저의 심정을 무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그저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리란 것입니다.》

너무도 소박한 그의 말이였다. 꾸밈없는 그의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정숙해졌다...

어린 처녀가 복잡한 자동조종반을 다루는것을 기특하게 여기시여 못내 기뻐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종대의 동작원리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서 아주 팬찮다고 높은 치하를 주시였다.

조종공처녀는 그날의 감격을 눈앞에 그리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받아안은 가장 행복한 로동자입니다. 저는 일생을 두고 그날을 잊을 수 없으며 일생을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할것을 굳게굳게 결심하고있습니다.》

처녀의 말에는 가식도 없고 꾸밈도 없었다. 말은 길지 않지만 피끓는 심장속에 굳게 다짐한 그의 맹세는 드팀없을것이였다.

우리도 처녀의 그 마음을 받아안은듯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량이 일고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조종반의 동작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앙조종반에는 세개의 공정이 조작되게 되어있다. 즉 싸이로공정, 정선제분공정, 저장 및 포장공정으로 되어있다.

이 세 공정은 모두 기계들의 가동상태와 조작 및 저장처리를 하게 된다. 조종반의 신호등은 기대의 상태를 조종공에게 알려주고 해당하는 처방을 받아 언제나 건강상태를 보존하는것이다. 신호등에도 세모꼴, 네모꼴, 둥근것의 형태별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생산과정을 가리키는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는 순간에도 신호등은 끊임없이 반짝거렸다.

《보십시오. 이 신호는 제분에서 부하가 걸렸다고 알려지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있습니다.》

《그렇구만요. 그 애로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것은 이렇게 정선에다 제분에 너무 무리를 주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정선에서 알았다고 신호해오지 않습니다. 이제 제분에서 허리

를 펴게 됐습니다...》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는 깊은 인상을 가지고 중앙조종반을 나와 밀가루의 저장과 포장작업공정까지 다 돌아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민들이 여러가지 음식을 색깔있고 편리하게 해먹을수 있게 밀가루로써 공급하며 생산된 일부분은 국수와 빵 그리고 과자를 만드는데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탁아소 유치원은 물론 가정들에도 빵을 만들어주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민들이 등글등글한 빵을 좋아하는데 그런것을 많이 만들라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동무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빵의 모양까지도 해아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 고마운 그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공정이 현대적으로 자동화된 이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기계들의 점검보수를 잘하고 설비관리를 잘하며 공장을 알뜰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무직장을 하나 지어야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를 안내하는 동무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수공장으로 가는 우리는 이 공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저기 기중기가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공무직장을 건설하는 작업장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우리는 드넓은 부지를 가지고 한창 건설중인 공무직장의 전경을 감개무량히 바라보며 걸었다.

우리는 건설중인 공무직장앞의 국수공장에 이르렀다. 이곳 직장장이 문앞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곳에 이르시여 공장을 잘 꾸렸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넓은 부지의 공간에 식료차들이 주련이 서있었다. 우리는 무심히 작업장안으로 들어섰다. 기계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위생복을 입고 들어서던 우리는 현장 속보판에 잠깐 눈길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1978년 11월 10일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생각을 깊이하게 하는 글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한치도 드팀없이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그들의 심정을 짐작할수 있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의 자취가 깃든 국수생산의 작업공정들을 흥분속에 돌아보았다. 밀가루가 정관을 통하여 반죽기에 들어와 알맞춤하니 반죽되면 압연기, 증자기, 랭각실, 자동포장기를 차례로 거쳐 국수가 되고 포장까지 되어나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시고 괜찮게 꾸렸다고 하시면서 작업장안에 증기가 차지 않도록 가열로에서 새는 증기를 막아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지금은 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대를 돌아보시던 그때는 작업장안에 약간의 증기가 서려있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앞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그런것을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헤아리시고 증기가 새지 않게 고칠 방도까지 하나 하나 가르쳐주신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 백을 주고싶어 하시고 일이 험하면 더 쉽게 일할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토록 가슴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곱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설레이고 목이 메여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이 국수발이 가는것을 요구하면 가늘게 뽑아주라고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밀가루 국수에 시원한 김치말이가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포장을 잘하여 주민세대에 공급할데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성산유원지나 렬차식당 같은데서는 간편하고 쓰기 편리하게 포장국수에 조미료를 넣어주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운반에 편리하도록 지합포장을 하여 그날 생산한 국수는 그날 밤으로 실어다주어 다음날 아침에 주민들이 손쉽게 사다먹을수 있도록 식료상점들에 공급하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인민들의 입맛까지 헤아리시여 가정에서와 휴식터에서 그리고 렬행길에서 쉽게 해먹을수 있도록 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상품공급체계까지 밝혀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차례진 맛있는 식료품들이 어떻게 식탁에까지 푸짐히 오르게 되는지 생각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그리고 그 식료품들이 어떻게 집문턱에까지 오는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식료품 하나하나에 뜨겁게 담겨져있다는것을 느낄 때 우리들은 그것을 무심히 대할수 없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식료차는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만들고 깨끗이 다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많은 식료운반차들을 보내주시였습니다.》

《밖에 있는 그 차들이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식료운반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오늘 생산한 국수를 밤으로 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주련이 대기하고있는 식료운반차들을 어루만져보았다. 다함없는 사랑이 깃들어있는 식료운반차들에서 전류가 흐르는듯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전시켜주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말로는 다 헤아릴수 없고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끝없이 젖어드는 고마운 사랑의 걱정이었다.

국수공장을 나온 우리는 빵직장과 파자직장에도 들러보았다.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되고 계열식 생산공정으로 되어있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둥글둥글한 빵, 발이 가는 밀가루국수, 휴식할 때나 렬행할 때 맛좋게 먹을수 있게 넣은 조미료국수, 고급밀가루, 밀기울로 생산한 푸짐한 고기... 그 어느것 하나도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기울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지 않는것이런었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끝없이 행복만을 누리며 사는 인민은 없을것이다.

줄곧 흥분과 감격 속에 공장을 다 돌아보고 나오니 벌써 퇴근시간이 되였다.

넓은 신작로에는 국수, 빵, 파자, 밀가루를 실은 식료운반차들이 꼬리를 물고 정문밖으로 달려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어린 식료품들이 주민들을 찾아가는것이다.

우리 옆으로는 하루 계획을 두몹세몹 넘쳐한 로동자들이 퇴근하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여주신 그날의 감격이 그대로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자취를 영원히 빛내여갈 그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자취를 더듬어 구내길을 걸었다. 그 사랑의 길우에서 영원히 충성다할 굳은 맹세를 다지며...

백리향

김봉식

조는듯이 흐르는 금강을 굽어보는 무학산마루우에 자리잡은 련대장감시소에서 중년의 두 군관이 탁상삼아 쓰는 빈포탄상자우에 퍼놓은 지도를 사이에 놓고 진지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각지걸이한 손을 무릎우에 얹고 지도를 부리부리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40대의 군관은 땅크련대장 최동규이고 그앞에 주름 하나 없이 군복을 단정히 입고 마주앉은, 기름한 얼굴에 눈꼬리가 아래로 쳐져, 그래서 뺨칠해보이는 군관은 련대참모장 리송철이었다.

찌물쿠는듯한 삼복더위로 그들의 이마엔 땀이 후줄근히 돋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아랑곳없듯 지도의 한곳-적203미리포진지와 중심길이에 있는 수남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금강계선에 이른 련대의 금강도하와 그후에 진행되는 대전해방작전에서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그 포진지처리문제와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수남교폭파문제를 놓고 의논하고있는 것이었다.

참모장 리송철은 땅크습격대를 적후에 들여보내서 포진지를 소멸하고 수남교를 폭파케 한 후 높은 기동성을 리용하여 신속히 철수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지도에서 적방어진지의 성긴 짚을 뚫고들어갈 땅크습격대의 행로를 연필로 짚어가면서 설명했다.

《...땅크습격대는 적후에서 단독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것만큼 가장 유능한 중대장을 보내야 기습전의 성과를 담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엔...》

말허리를 끊은 송철은 중대장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뺨칠히 더듬어보았다.

습격전투에서 이름난 1중대장을 보낼것인가, 아니면 전투경험이 많고 전투지휘에도 로숙한 3중대장을 보낼것인가...

《중대장들이 다 그쵸하고 잘 싸운 동무들인데 뭘 그리 오래 생각할게 있소. 5중대장을 보내자구.》

손가락으로 지도를 다독이던 련대장이 우선우선한 얼굴로 범상히 말했다.

《?》 송철은 꼬리치친 눈귀를 치며 놀라며 련대장을 보았다. 련대장이 말한것처럼 중대장들가운데서 누구 하나 축에 빠지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한

손의 손가락이 다 다르듯 엄밀히 따지고 볼 때 그 금새에는 차이가 있었다.

입대전에 농사하다가 군관학교를 거쳐 련대에 왔다는 석줄박에 리력서에 없는 5중대장 박성민에게는 별로 남을 경탄케 한 위훈이 없었다. 군관회의에 와선 구석을 차지하였다가 조용히 돌아가군하여 일부러 호명해보아서야 그가 참석했음을 알게 되는 성민에게서 련대장은 무엇을 보고 어려운 적후전투임무를 선뜻 주려고 하는지 료량할수 없었다. 하긴 련대장은 부대에 갓 왔으니 그에 대한 파악이 아직 충분하지 못할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박성민동무에게말입니까?》 하고 다짐받듯 되물었다.

《그렇소. 백리향을 사랑하는 5중대장말이요.》

련대장이 오상골전투가 있는 날 일을 두고 한 말임을 안 송철은 의혹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의 눈앞엔 그날 있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전투는 해질무렵에 끝났다. 송철은 넘어가는 자주빋 해를 등에 업고 련대장과 함께 박성민중대로 갔다.

산기슭을 에돌며 난 길역의 록음이 풍만하게 무르익은 숲속에 땅크를 세운 전사들이 수림속공지에 서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가던 송철은 첫머리땅크곁에서 등을 돌리고 서있는 군관을 보았다. 땅크모를 뒤통수에 눌러쓰고 소매를 거의 팔굽까지 말아올리고 무엇인가 하고있는 그는 중대장 박성민이었다.

송철은 그에게로 발길을 돌리었다. 인기척을 느낀듯 성민은 뒤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참모장이 그리고 그뒤로 얼마간 떨어져서 련대장이 다가오는것을 본 그는 얼른 말아올린 팔소매를 내려놓고 마주 걸어나와 어줍게 인사를 했다.

무한쾌도훈반이개우에 포탄깍지밀등을 잘라서 정교하게 세공하여 만든 화분과 군용물통이 있었다.

윤기나게 담은 화분에는 한뼘이 되나마나한, 가지 끝에 금시 입을 벌릴것 같이 망울이 통통한 꽃이 달렸다. 미역감은 파란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있다.

그것을 본 송철은 저도모르게 미간을 모았다. 꽃을 좋아하는것을 나무리어서가 아니었다. 중대는 한시간전만 해도 치열한 전투를 하였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내리면 보병들과 함께 야간전투를 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중대장에게 그 꽃에 머리를 돌

릴 경황이 없을것이였다. 그런데 한가하게...

새로 온 련대장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송철은 민망한 얼굴로 련대장을 보았다. 성민이의 인사를 받으며 그의 실박한 어깨너머로 화분의 꽃을 유심히 보던 련대장은 《백리향이 아니요?》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 꽃을 좋아하는 모양이구만, 화선으로 가지고 다니는것을 보니. 어디서 난거요?》

《고향에서 가져온것입니다.》

《고향? 어디요?》

《심덕입니다.》

《백리향으로 이름난 고장이군.》

《우리 고향을 아십니까?》

《련대봉너머에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오.》

《그럼 산 하나 사이구만요. 거기에도 이 꽃이 많지 않습니까!》

성민은 술진 눈섭아래의 두눈을 빛내며 물었다.

《 많소. 그런데 동문 왜 아름다운 꽃들을 제쳐놓고 그리 불나위없는 이 꽃을 좋아하오?》

련대장은 마치 고향사람을 만난듯 허리를 굽혀 꽃대를 말아보며 친근스레 물었다.

이것은 송철의 속물음이기도 하였다. 한뼘도 안되는 난쟁이키에다 초여름에 입술모양의 담홍색꽃이 조롱조롱 물켜 피는, 그리 불품없는 꽃을 좋아하는 성민이의 심정을 그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었다. 함박꽃, 다리야, 길국화, 석죽화, 목련화... 등 아름답고 우아하고 향기로운 꽃들이 얼마나 많은가.

송철은 검고 술진 눈섭을 모으며 그를 보았다.

성민은 생각을 모으는듯 머뭇머뭇했다.

《가령 꽃가운데는 장미나 월계처럼 아름다운 색깔루 사람들의 눈을 현혹케 하는것들도 있지 않소.》

하고 련대장은 말하고나서 다시 뒤를 이었다.

《혹은 무궁화처럼 담담하고 청신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꽃도 있구 그런가 하면 진달래나 철쭉은 겨울의 긴 장막을 밀어제치고 일찌기 피여서 봄의 정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해주구...》

《네, 그것은...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고 성민은 말문을 뻗으나 어째서인지 마무리지는 못하는것이였다.

《하지만 뭐요?》

《백리향은 류달리 유순하고 소박해보이는 꽃이 아닙니까. 향기도 그윽하고요. 그래서 고향을 못잊

게 하는데서는 역시 여느 꽃보다 못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은 어디나 백리향이 피기 때문에 자연히 전 어려서부터 정들어버렸습니다.》

단순한 화초애호나 그 어떤 목가적인 취미에서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안고 그 꽃을 사랑하는 성민이의 심정에 깊이 감심한 최동규련대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꽃망울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했다...

성민이에게는 이런 애상적인것이 다분했다. 그러나 간고하고 준엄한 지어 절망적인 상태에까지도 이룰수 있는 적후습격전투임무는 그에겐 아름답지 않았다.

《련대장동지, 오상골전투에서 중대를 훌륭히 지휘하면서 적땅크를 4대나 깬 3중대장을 파견하였으면 합니다.》

《그 전투에서 성민동무도 잘 싸우지 않았소.》

《그 동문 적땅크를 두대밖에 요정내지 못했습니다.》

《두대...하긴 녀대보담 두대가 적지, 허나 중대적으로는 그 중대만 못지 않았소.》

련대장은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박성민에 대한 련대장의 깊은 신뢰를 그 서글서글한 눈매에서 읽은 송철은 자기 의견을 더는 내세우지 않았다.

적후습격임무는 5중대에 떨어졌다.

성민이네 중대에 내려간 송철은 그들이 한발의 포탄 한알의 기관총알도 더 많이 가지고 가도록 무척 신경을 썼다. 연유통엔 연유를 가득 채우고 윤활유도 보충하고 축전지도 새로운것으로 바꾸어 넣도록 했다.

어둠이 내리고 별빛이 머물어가고 은하수가 검푸른 하늘에 비졌을 때 성민이네 중대는 용약 적후로 들어갔다.

이른 새벽이였다. 간단없이 울리는 포성과 하늘을 찌르는 비행기소음으로 불안스럽게 한밤을 지새운 모든것이 어둠을 털고 우줄우줄 그 룬박을 희뵈히 드러냈다. 봉우리, 강, 골안, 수림...

그러나 새벽대기를 타고 수면을 활듯이 꾸역꾸역 밀려온 안개가 다시 그 모든것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막막한 안개바다위에 외로운 섬마냥 봉우리들만 남았다.

무학산마루의 감시소도 그러한 섬우에 있었다. 감시구에서 참모장 리송철은 눈아래에서 굽히는 안개바다를 굽어보고있었다. 청동으로 부은 립상마냥 까딱않고 벌써 여러 시간 그렇게 서있는 그의 검

고 술진 눈섭밑의 어글어글한 눈엔 불안과 위기가 질게 어렸으며 도톰한 입은 무겁게 닫겨있었다.

그의 눈과 가슴에서 내뿜는 불안과 위구가 옅은 듯 감시소에 있는 참모들, 전화수, 무선수들모두가 한 모양 흐린 눈, 무거운 마음으로 안개바다 저편 총포성이 잦은 간잔지런한 산발을 주시했다.

포위속에 든 박성민중대를 생각하고있었다.

박성민중대는 적포진지를 성과적으로 습격하고 그 즉시 수남교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적들은 그앞을 겹겹으로 가로막았다. 그리하여 중대는 적의 포위에 든것이다.

송철의 마음은 천근 납덩이로 누르듯 무거웠다. 적후에서 싸우게 되는것만큼 적의 화력에 길이 차단될수도 있고 매복에 걸려 신고할수도 있고 적포위에 들수도 있었다.

그 모든것을 다 예견했다. 그런데 막상 성민이로부터 적의 포위에 들었다는 보고를 받자 위구와 불안이 앞섰다. 이것은 성민에게서 역세고 담차고 강인한것보다 유순하고 잔잔하고 온화한것을 더 많이 받은데서 오는 조바심에서였다.

중대의 구출문제를 놓고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조성된 정황으로 보아 적들이 포위를 조이기전에 중대를 구출해내지 않으면 들이킬수 없는 결과를 빚어낼것이었다.

《적들이 포위를 더 강화하기전에 땅크 두개 중대를 급파하여 중대를 뽑아냈으면 합니다. 지금의 형편에서는 수남교를 마저 폭파하는 문제는 곤란할것 같습니다.》

송철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련대장에게 말했다.

《땅크구출대를 조직하잔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있는 적에 대한 타격력은 어떻게 되겠소?》

《전반적전투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아무리 큰들 귀중한 중대의 운명하고는 바꿀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요. 하나 적에 대한 타격력은 추호도 늘출수 없소. 아니 더 강화해야 하오. 구출방도를 더 찾읍시다.》

련대장은 면도칼로 베듯 말했다. 단호한 그 어조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만이 어려있었다.

련대장은 전화로 2제대 대대장을 찾아 술바위도 하장으로 땅크를 은밀히 끌어내가라고 지시했다.

송철은 련대장의 말을 두고 생각에 잠기였다. 련대장의 그 은근한 불만은 송철이에게 의외였다. 위

협에 처한 중대를 구출하는데 그것은 당연한것이 아니냐고 그는 생각했다. 또 여직껏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련대장의 나무리는듯한 그 눈매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무엇에 의거해서 중대를 구출해야 한단말인가?

그는 감시구로 생각에 잠기며 다가갔다. 등뒤에서 련대장이 전화하는 석싹한 소리가 날아왔다.

《...통신차가 전선우편기지를 떠난지 퍼그나 된단말이지. 알겠소. 도착하면 알리오.》

(통신차는 뭇하러 찾는담?)

송철은 고개를 기웃하며 감시구멍으로 적진을 내다보아다. 바람이 안개를 몰아가고있었다.

검푸른 금강, 그너머 맞은편산의 참호화점, 철조망 그리고 우리와 제놈들과의 지상접촉계선을 저들의 비행기에 알리는 빨간 《T》자 항공신호포가 서서히 드러났다.

송철의 눈앞에 전차장문이며 운전수시창문을 열 어젖히고 땅크안에 가득찬 가스와 열기를 갈아대면서 바닥에 수두룩이 쌓인 빈 포탄깍지를 밖으로 집어던지고있을 땅크병들의 땀에 번들거리는 얼굴이며 줄어드는 포탄을 허구프게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을 성민의의 포연에 그을은 얼굴이 사물거렸다.

포탄도 이제 동이 나가고있을것이었다. 달려드는 적들을 격퇴하며 포위에서 빠져나오는데서 포탄은 그들의 투지를 안받침해준다. 그러니 땅크구출대를 보낼수 없다면 포탄이라도 보내주어야 했다.

송철은 지도에 마주앉아 그 경로를 모색했다.

전화종이 귀따갑게 울렸다. 그바람에 사색을 깨친 송철은 미간을 모으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뭘요. 빨리 말하오.》

소리는 저도모르게 높아졌다. 우편물을 싣고 련대로 내려오던 통신차가 폭격을 받았다고 통신참모가 보고를 했다.

《다친 사람은 없소? 없다! 그럼 됐소. 편지 좀 탄 거야 어찌겠소. 전쟁인데... 그건 그렇고 작전지급 통화이외의 전화는 다시 지시할 때까지 여기다 대기 마오.》

그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포위에 든 박성민중대 구출을 두고 탄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폭격에 편지 몇통 타버린 류의 전화를 한가스레 받고있을 경황이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감시구에서 성민이네 중대가 있는곳을 쌍안경으로 내다보던 련대장이 돌아보며 엄한 어조로 물었다.

《통신차가 폭격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인원과 차엔 피해가 없습니다. 우편물투장에 불이 달린바람에 편지 여라문통 탔는가봅니다.》

송철은 우선우선한 얼굴로 범상하니 말했다.

《뭘? 여라문통씩이나?》

련대장의 술진 눈썹이 우로 꿈틀거렸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송수화기를 나꾸채듯 집어든 련대장은 통신참모를 찾아 준절히 힐책했다. 몹시 노해서 피대를 세우는 그의 귀밑에서 피줄이 풀떡풀떡 뛰었다.

송철은 얼없이 앉아 그의 말을 들었다. 결불에 얻어맞는것 같았다. 그것은 통신참모의 보고를 허술히 들은데 대한 무언의 질책이었다. 련대장이 몇통의 편지를 가지고 것처럼 노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는 전쟁이니 그쯤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대범히 생각했다. 그러나 련대장의 그 추궁은 전쟁이 기때문에 그것이 더욱 소중하다는것을 말했다.

련대장이 누그러진 어조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5중대에 온 편지는 없소? 많다구. 그걸 가져오오.》

(아니 그건 가져다 뭘하려고?)

송철은 의아쩍게 생각하며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련대장에게 물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중대에 당장 보내기 어려운 편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렵니까?》

《보내주도록 해야지요.》

《적후에말입니까?》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한데라도.》

적후로 편지를 보내주려고 하는 다심한 뜻을 이해할수 있으나 지금의 중대형편에서 그것이 그리 급한가?

《중대에 그보다 포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필요하지요. 허지만...》

련대장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송철이를 보았다. 파고드는듯한 눈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피어있었다.

련대장은 무엇인가 더 말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하고 머리를 저으며 교사포화력진지를 도하장으로 옮기려 나갔다.

송철은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며 적후에 포탄을 들여보낼 방도를 모색했다.

성민이네 중대가 있는 골짜기 량켠은 벼랑이고 골안어구는 적들이 봉쇄했다. 뒤에는 수심이 키를 넘는 금강지류인 수남천이 흐른다. 땅크배기관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얕았어도 중대는 그리로 빠져나올수 있을것이였다.

자기 생각에 골똥한 그는 련대장이 돌아온것도 그리고 눈물받이 사마귀가 귀인성스러운 통신병이 한꾸레미의 편지를 옆구리에 끼고 문어구에 아까부터 와있는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심히 머리를 뒤로 돌린 그는 문가에 다소곳이 서있는 그를 보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편지를?》

어망결에 되물은 송철은 그제야 련대장이 그것을 요구한것이 생각나 두고가도록 일켰다.

《편지를 가져왔단말이지, 보자구. 누구에게들 왔는지...》

기다리고있은듯 안에서 련대장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백승호, 210호 땅크운전수군!》

《212호 장탄수가 박길만이지...》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연신 편지를 번지던 련대장이 고개를 기웃했다.

《참모장동무, 리인섭이가 어느 땅크인지 모르겠소?》

련대장은 편지를 송철이앞에 놓으며 물었다. 송철은 기억을 더듬어보았으나 떠오르는것이 없어 그것을 상모서리에 밀어놓으며 심상하니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련대안의 하많은 하전사들의 이름을 다 외울수는 없는것이였다.

《자 이거 한심하군, 자기 대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모르다니...》

련대장은 자신을 탓하며 중대군인들의 이름을 땅크별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외웠다. 그러더니 탁상을 손바닥으로 탕! 내리치며 환성을 질렀다.

《웁지, 이제야 생각났군, 백리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명사십리 해당화에 비기겠느냐고 중대장에게 자랑하던 214호 부운전수 <원산내기>요!

집에서 소식이 통 없는것을 보아 함포사격에 잘못된것 같다고 우울해하기에 시당위원장앞으로 편지를 띄웠더니 이제야 왔소!》

련대장은 마치 자기에게라도 온듯이 기뻐하며 연신 편지를 번지였다. 맨나중에 불에 모서리가 타 그윽음이 오른 편지가 나지였다. 봉투속엔 어린애사진이 있었다.

《그녀석 잘도 생겼군!》

련대장은 못내 탄복하면서 포탄을 적후에 들여보낼 경로를 지도에서 찾기에 여념없는 송철이앞에 놓았다.

송철은 사진을 보았다. 모서리가 불에 타 너슬너슬한 사진엔 젖살이 포동포동 오른 갓난애기가 찍혀있었다. 우로 쳐들사한 눈꼬리와 상큼한 코, 동심한 얼굴은 박성민이를 신통히도 한판에 찍었다.

사내에는 금시 빨간 이몸을 드러내며 해죽해죽 웃을것 같았다. 그 애의 밝은 얼굴을 보니 온갖 시름과 걱정이 뒤전으로 밀려여가고 생에 대한 환희가 그 자리를 메우는듯싶어 그는 저도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쿵 쿵! 뚜루룩 뚜루룩.

불시에 적진지에서 총포성이 다기차게 울렸다. 자리를 차고 일어난 송철은 감시구로 달려갔다. 박성민중대가 있는 방향이다. 무선수가 무선기에 전원을 넣기 바쁘게

《무쇠 넷, 바른쪽 다박술에 적화염방사병, 기관총으로 소멸할것.》하고 성민이의 목갈린 소리가 튀어나왔다.

(적이 어느새 그렇게까지 다가왔는가.)

정황의 급격한 변동에 놀라하는데 수화기에서는 다급한 소리가 물목이 터진듯 쏟아져나온다.

《무쇠 둘, 꿈무늬에 적이 몰렸다. 수류탄을 던질것!》

.....

송철은 속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땅크병이 포와 무쇠발굽으로써가 아니라 수류탄까지 던져가며 싸운다는것은 정황이 아주 긴급해졌음을 말했다. 위구는 물 뿌린 가축처럼 가슴을 옥조이였다.

중대는 총포란이 있는한 싸울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엔 한정이 있었다. 그 다음엔...

수화기에서는 그의 위구와 불안을 키질하듯 비장한 웨침소리가 총소리에 섞여 튀어나왔다.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돌격 앞으로!》

앞으로 내달리려는 결기오른 전사들의 웨침소리를 듣는 송철이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었다.

중대를 빨리 뽑아야 한다. 그는 머리속에서 오만가지 방도를 굴렀다.

지금의 정황하에서 땅크와 함께 탈출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니 마지막 탄알을 쏘버리고 땅크를 폭파한후 인원들만 빠져나오게 하자!

그러나 그는 곧 머리를 저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귀중한 땅크를 폭파할것이 아니라 함께 탈출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중대가 있는 끝안뒤로 흐르는 수남천이 생각났다. 일순 섬광마냥 무엇인가 머리를 스쳤다.

(중대를 수남천으로 뽑자!)

수중도하할 때 엔진에 물이 들어가 강속에서 발동이 꺼지지 않도록 배기관을 보내주면 될것이였다. 그것이 그들의 손에 가닿자면 두시간을 걸린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8시 10분전이다.

송철은 무선기앞에서 송화기를 움켜쥐고 들미룩 처럼 서있는 련대장에게 《10시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견지하라고 합시다.》 하고 말했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쫓고있던 련대장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수궁하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성민이에게 지시하지는 않았다.

련대장은 송화기를 무선수에게 넘겨주고 방안을 거닐었다.

무엇이 미흡해서 그러는가. 송철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별에 그을은 그의 고통뿔 얼굴을 보았다.

수화기에서 총성이 더욱 자지러지게 쏟아져나왔다. 허나 련대장은 그것에 무관한듯 방안을 내쳐 거닐면서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날 때마다 나드는 문에 눈길을 박았다.

무엇을 기다리고있음을 알수 있었으나 그것이 성민이네 중대 구출과 무슨 련관이 있는지를 알수 없었다.

밖에서 급히 걸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련대장은 걸음을 멈추고 기대에 찬 눈으로 문을 지켜보았다.

문을 열고 땀으로 한벌 미역감은 허우대 큰 정찰참모가 단내를 뿜으며 뛰어들어왔다.

《왔소?》

련대장은 마주나가며 다우쳐물었다.

숨이 턱에 닿은 정찰참모는 말보다 종이장을 먼저 내놓았다. 그것을 나꾸채듯 집어서 급히 내리훑는 련대장의 긴속눈썹안의 두눈은 금시 빛났다.

련대장은 한손으로 그것을 송철이에게 내주며 다른 손으로 서둘러 송화기를 들고 힘주어 말했다.

《무쇠 하나, 나 강철, <배나무 열, 두루민 뜨다>- (10시까지 견지할것, 명령 가지고 련락군관 간다.))》

송철은 얼른 종이장에 써여있는것을 읽어보았다.

《...수남교에 폭파장치가 되어있으며 강엔 한척의 배도 없음. 수심 1, 8, 류속 0, 8, 하상 사로질.》

적후정찰조에서 보내온 정찰보고였다. 귀중한 정찰자료였다.

《무쇠 하나, 알았다.》

수화기에서는 성민의 목갈린 소리가 힘겹게 들렸다. 그 어조엔 놀람과 의혹이 짙게 실려있었다. 최악의 궁지에서 10시까지 견지하는것도 힘겨운데 거기에서 새로운 임무를 전해줄 연락군관이 들어간다고까지 하기에 놀란것이 분명했다. 수화기에서 웅성웅성하는 무거운 소리가 전류흐르는 소음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들의 통화를 긴장해서 듣고있는 땅크병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다.

송철은 성민이가 왜 응답을 그처럼 힘들게 하며 땅크병들이 웅성웅성하는가를 알수 있었다.

전사들은 그 명령이 자기들에게 그 시간을 위해서 매 분 매 초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에게서 빼앗아내야 하며 그전으로 대렬에서 떠날수 없음을 엄숙히 요구한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련대장은 그것을 감축하고 가벼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힘들지?》

《힘듭니다.》

성민은 무겁게 솔직히 시인했다.

《그래 건딜만 하오?》

《전 견지하라는 명령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실언했군.》

련대장은 마치 그가 눈앞에 서있기라도 하듯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러더니 생각난듯 은근한 소리로 물었다.

《백리향이 잘 사오?》

《꽃이 피었습니다!》

성민은 다소 활기를 띠며 말했다.

《그래, 여기도 피었소. 동무네 고향에서도 만발하랴오.》

《고향에서요? 편지가 온게 아십니까?!》

성민은 기쁨을 드러내며 다우쳐물었다.

《왔소. 어린애사진도 왔더군.》

《웁니까?》

몹시 궁금해서 묻는 그의 목소리는 활기를 띠었다.

《땅크병이요. 축하하오.》

《그래요!!》

그 소리는 환희와 행복으로 넘쳤다!

누군가 불쑥 물었다.

《다른 사람에겐 온게 없습니까?》

인츰 소리임자를 알아낸 련대장은

《<원산대기>군, 류옥순이가 전배보여준 그 처녀 사진의 이름이지?》 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전사는 먼구스러운듯이 대답했다.

《시부모되실분들 모두 무사하랴오. 함포사격이 심해서 집은 나팔산뒤로 옮겼다누만. 그리고 동무와 함께 공장에서 돌아오며 걸던 명사십리엔 해당화가 지금 한창이라오.》

《그래요! 그런걸 전 소식이 없어 잘못되줄로 알고... 고맙습니다!》

전사는 젖은소리로 기쁨에 차서 말했다.

《길만이, 승호, 그밖에 많은 동무들에게도 왔소.》

수화기에서는 환성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그 환희에 저어하듯 조심스레 물었다. 불안에 차서.

《11번동지, 백길호에게 온것은 없습니까?》

《백길호? 어디 보자구.》

련대장은 송화구를 든채 송철이에게 상우의 편지를 가져오라고 눈짓했다. 송철은 얼른 편지묶음을 그의 앞에 퍼놓았다. 수화기에서 《폴락》 닭알침삼키는 소리가 나왔다. 가슴을 조이며 긴장해서 기다리고있음이 분명했다. 련대장은 그 심정을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서둘러 말했다.

《있소, <영철이 아버지앞>이라, 그리고 <오빠에게>, 또 <삼촌앞>이군, 아니 밑에 또 있구만, <아들에게>, 자그만치 넉통이요.》

《야! 11번동지, 그걸 잊지 말구 보내주십시오!》

전사는 환성을 지르며 부탁했다.

《암 보내주구말구.》

《기다리겠습니다!》

수화기에서는 명랑한 웃음소리, 환성, 선망이 와그르르 쏟아져나왔다. 련대장은 빙그레 웃으며 송수화기를 무선수에게 주었다. 감시소안에 무겁게 서렸던 불안, 초조는 그 밝은 웃음소리에 휘말려들어갔다.

송철은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정찰소대장을 전화로 찾아 배기관을 가지고 적후에 들어갈 인원을 지휘부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배기관, 그건 뭘하러구?》

지도에 붓방아를 찢으며 무슨 생각에 잠겨있던 련대장이 머리를 들며 물었다.

《5중대를 수납천을 수중도하하여 뒤로 탈출하도록 하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련대장은 눈가를 치떴다. 쇠빛얼굴에 불만이 퍼져오른다.

《지금의 정황에선 그곳으로밖에 탈출할길이 없습니다.》

《탈출...》

련대장은 경멸에 차서 그 말을 되뇌이였다. 그러더니 검고 술진 눈섭을 모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탈출이란 적포위속에서 신념이 약해진자의 소극적행동이요. 적들에게 잔등을 보이다니, 그건 수치요.》

진정으로 탈출하려거든 적에게 가슴을 내보이며 맞받아나가야 하오!》

《중대는 기력이 진했습니다. 포탄도 저격탄도 거의 떨어져가고있는데 무엇으로 적을 격파합니까?》

《그럼 여직껏 중대가 적을 격퇴하고있을것이 그 포탄에 있었던말이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전사들에 대한 모독이요.》

련대장의 얼굴엔 노기가 어렸다. 뿔어질듯이 그를 쏘아보는 강철같은 눈빛을 준절하고 엄격한 아니 격렬한 그 무엇이 어렸다.

련대장의 뜻밖의 질책에 송철은 어리둥절했다. 그럼 련대장은 무엇때문에 성민이에게 10시까지 견지하라고 했는가?

그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적이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거나 탄약이 떨어졌다 하여 물러설 생각을 앞세워선 안되오. 그것이 승패를 가르는데 결정적인것이라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과 싸운 우리 항일유격대가 어떻게 승리할수 있었겠소. 왜놈들을 타승케 한것은 그것이 아니었소!

성민이네 중대를 구출하자면 적을 쳐야 하오. 이렇게!》

련대장은 지도에 붉은색연필로 공격화살을 쏘고었다. 그리고는 열렬하게 확신에 차서 말했다.

《련대의 맹렬한 공격을 감당할수 없게 되면 적들은 수남교를 리용하여 패전부대를 뿔을것이며 그후에 우리로 하여금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다리를 폭파할것이요. 그것은 적들이 강에 있던 배를 모조리 파괴해버렸다는 정찰보고가 말해주요.》

송철은 성민이네 중대가 적의 봉쇄에 걸리자 련대장이 2세대 땅크들을 도하장으로 끌어내가고 고사포를 그곳으로 옮기고 적후에 정찰조를 파견한것이 바로 이 공격을 준비한 웅심깊은것이였음을 그제야 알았다.

그는 참모일군의 맹철성과 치밀성으로 련대장의 작전기도를 전술적견지에서 분석해보았다.

작전의 성공여부는 수남교폭파여부에 달려있었다. 그러나 수남교는 적중심깊이에 있었다. 그러니 이젠 박성민중대에 다리폭파에 대한 임무를 맡길수 없는 형편에서 무엇으로 그 다리를 폭파할것인가.

공병을 이제 파견하기는 시간이 없다. 그는 지도의 수남교우에 붓방아를 찢으며 생각에 잠겼다.

파고드는 눈으로 그것을 보고있던 련대장이 나직이 힘주어 말했다.

《다리폭파임무를 5중대에 주려고 하오.》

《성민동무에게말입니까?》

성민이에게 2시간 견지하도록 련대장이 지시한것은 그의 중대를 뒤로 빼돌리기 위한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더 들어가있는 수남교로 기어이 진출하게 할 시간을 타산한것이 아닌가!

《그렇소. 그러니 이제 곧 련락군관에게 그 명령을 주어 중대에 보내요.》

대담하고 통이 크고 주도면밀한 전투계획이였다. 이제 와서 보면 박성민중대를 지금껏 그곳에서 견지하도록 한것은 기어이 본래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련대장의 작전의도를 알아차린 송철은 그만 당황하였다. 공격을 위해 도하를 앞당기자면 도하장을 적어도 2시간내로 꾸려야 했다. 그런데 땅크가 건널수 있도록 강심의 깊은곳엔 철선으로 부교를 늘리고 량녀의 얇은데는 흙가마니를 깔아 배기관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수중교를 놓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아무리 못잡아도 4시간을 걸려야 했기때문이다.

그는 얼굴에 난색을 지으며 도하규범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말했다.

《4시간? 안되오. 도하장에 도하공병들을 모이게 하오. 그들에게 한시간내로 다리를 놓지 않으면 그 물속에 몰아넣은 미제침략군놈들을 놓아주게 되다는것을 알려주겠소. 전사들이 조국과 전우에 대한 혁명적의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심장으로 깨달으면 그 시간에 도하장을 가설할것이요. 하구말구!》

련대장은 도하장에 가려고 땅크모를 머리에 쓰면서 급히 나갔다.

련대장을 바랜 송철은 새 작전을 두고 갈마드는 생각들을 모아보았다.

박성민이에 대한 련대장의 변함없는 두터운 신뢰를 두고, 공병전사들에 대한 드팀없는 그의 신임을 놓고, 고향소식을 접한 전사들의 환희를 놓고...

그는 련대장과 자기 사이엔 정황을 놓고 사고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 생각이 미치였다. 무엇때문에 하나의 현상을 두고 차이가 생기는것인가?

그의 상념은 땅크의 우람한 시동소리에 의해 중등무이되었다. 그는 깍지결이한 손을 앞배에 붙이며 피창으로 산밀을 내려다보았다.

런대장이 지휘땅크의 무한계도를 닫고 포탑으로 오르고있었다. 그러더니 뒤통수를 왼손으로 다독이며 도로 내려서 감시소로 오른다. 머리를 수긏하고 빠른 걸음을 놓는것으로 보아 중요한 그 무엇을 잊었거나 아니면 두고간것이 있어 돌파선것이 분명했다.

송철은 편지가 놓여있는 탁상우를 보았다. 판정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불별이 얼굴을 따갑게 핏으며 지나갔다. 잠깐 서있는 사이에 벌써 등골로 땀이 조르르 흘러내렸다.

감스름한 둥근 얼굴에 비지땀을 흘리며 비탈길을 올라온 런대장이 그에게 단내를 들춰우며 말했다. 《참모장동무, 그걸 잊지 말구 런락군관에게 주오.》

아닌밤중 흥두께 내미는듯한 말에 어리둥절해진 송철은

《뭘말입니까?》 하고 되물었다.

《5중대로 가는 편지말이요.》 하고 한마디 던진 런대장은 그 자리에서 돌파섰다.

(아니 그럼 그때문에 일부러?! ...)

송철은 놀라며 바른손을 휘휘 저으면서 성큼성큼 내려가는 런대장을 보았다.

수화기에서 흘러나온, 첫아들의 사진이 왔다고 기뻐하던 성민이며 안해와 딸의 편지를 잊지 말고 꼭 들여보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던 전사의 목소리가 귀가에서 맴돌았다.

전사들의 그 소박한 기쁨을 위해 피약별도 마다하지 않고 두벌걸음을 놓는 런대장의 뜨거운 마음이 송철의 서늘러운 가슴으로 혼흔히 스며들었다.

그로부터 4시간, 전장은 불소나기로 온통 바글바글 끓었다. 무한계도는 적참호와 철조망을 마구 갈아뭇고 포신을 달라올랐으며 기관총충신에는 찬물이 끼었었다.

높은 기동성과 불의성을 가진 런대의 강력한 공격을 막을수 없었던 적들은 황망히 수납교로 빠지려고 했다. 그러나 박성민중대가 그 다리를 폭파함으로써 한놈도 한문의 포도, 한대의 땅크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송철은 런대장과 함께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을 잔등에 업고 박성민중대로 가다. 그의 중대는 마을앞을 흐르고있는 강변의 소나무숲속에 있었다.

수림어구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 그들은 록음이 풍만하게 무르익은 숲속길을 따라 중대로 갔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듯 수림변두리에 흐르는 개울물소리가 주절주절 날아오고 매미 우는 청아한 소리와 이름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고운 소리가 조화되어 들려오는 수림속은 조용하였다.

송철은 지꽃게 갈마드는 생각에 깊이 잠겨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전투의 준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품었던 위구와 우려는 부질없는것이였다. 군사규범적요구에 의존해서 내린 자기의 분석과 판단을 적지않게 도외시하면서 진행된 전투는 빛나는 승리로 아귀를 지었다.

이 승리를 두고 송철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에 대하여 자기가 똑바로 보지 못하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군화코승이에 눈길을 떨구고 그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무심히 머리를 들어 앞을 보았다. 나무사이로 여기저기에 앉아있는 전사들이 보이였다.

그의 마음은 놀뛰었다. 빨리 만나보고싶은 동무들이였다. 부여안고 불을 비비고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그는 막 달음쳐가려고 했다. 그런데 런대장이 옷섶을 살머시 끄당기면서

《좀 기다렸다 잡시다.》

하는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문듯이 런대장의 감스름한 얼굴을 보았다.

《전사들이 편지를 쓰고있는것 같소.》

그 소리에 송철은 다시 전사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땅크결에서 소나무그늘밑에서 빨간 꽃망울이 진 짙레나무덤불결에서 전사들이 제 나름대로 앉아 무릎우에 종이장을 펴놓고 무엇인가 쓰고있었다.

런대장의 말대로 전투에서 승리한 기쁨을 안고 낮에 받은 편지에 대한 회답을 쓰고있음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그것을 기다릴 까닭이야 없지 않느냐?

그의 이러한 의혹을 풀어주려는듯 런대장은 소리를 낮추어 소곤소곤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가면 전사들은 편지를 쓰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규정대로 우리를 맞아줄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잠진 살뜰한 고향에 대한 생각은 깨치고맙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입니까. 전사들은 바로 그것을 안고 싸우거든요. 전투와 행군 그리고 또 전투로 불비는 전사들에게 이런 시간이란 그리 흔치 않지요.》

그리고는 제 먼저 곁에 있는 소나무그루렁에 앉아 담배갑을 꺼내 그에게 권하고 자기도 피웠다.

송철은 입안의 연기를 입술을 쭈긏 세워 서서히 내불면서 행복에 젖어 편지를 쓰는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무한계도에 한쪽 팔꿈치를 얹고 모로 비스듬히 기대서서 모서리가 너슬너슬한 사진을 들여다보며 별쭉별쭉 웃는 성민에게서 눈길을 멈추었다.

눈우에 바투 붙은 색 진한 눈섭은 유순해보이며 긴속눈섭안의, 기쁨이 남실남실 흐르는 까만눈은 천진스러워보이였다.

무한계도흙반이개우에 포탄깍지로 만든 화분과 마개를 열어놓은 물통이 있다. 예리예리한 가지끝에 연한 붉은색 입술모양의 꽃이 조롱조롱 여러겹

으로 물켜핀 아련한 백리향은 물기를 먹어 더욱 청싹했다.

아까부터 그 꽃을 그윽한 눈매로 바라보던 런대장이 《참모장동무, 난 저 꽃을 볼적마다 전에 산에서 싸울 때 있던 일을 생각하군하오.》 하고 말했다. 눈시울을 보아 나무아지사이로 스며든 해살을 보며 깊은 감회에 잠긴 런대장은 회억을 더듬어가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우리 항일유격대에 향기로운 꽃내가 백리밖에까지 풍긴다 하여 <백리향>이라고 부르는 저 꽃을 몹시 사랑하는 한 동무가 있었소.

그 동문 자기 고향에는 그 꽃이 많고 많아 신록이 무르익는 6~7월이 되면 온 마을은 향기로운 꽃내에 잠기고 담홍색꽃주단속에 동네가 깊이 파묻힌다고 자랑도 했소. 백향천의 옥계수로 함치르르한 머리를 감고 살결 고운 얼굴을 곱게 다듬은 처녀들은 예쁘기도 했다고. 고향을 생각하게 하고 고향을 못 잊게 하는 백리향은 그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말과 같았소. 그리고 그것은 조잘거리며 흐르는 고향의 여울물소리이기도 하고 미풍에 설레이는 수림의 속삭임이기도 했다우. 또한 정다운 사람의 따뜻한 입김이기도 하였지.

어느해 그는 국내로 임무를 받고 들어간 일이 있었소. 그때 고향마을을 지나가게 된 그는 마을뒤산 고개마루에서 턱밑에 있는 자기 집을 울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굽어보았소. 일곱해만에 보는 고향집이니 그 감회인들 오죽했겠소. 때마침 프락에서 안해는 그가 집떠날 때 심은 백리향에 호미로 북을 돌구고있었으며 제비꼬리같은 외태머리를 드리운 다홍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딸애는 조롱박으로 물을 주고있었소.

마침내 그 일을 마치고 일어난 안해는 딸애의 작은 어깨에 한손을 얹고 그가 서있는 고개마루를 물끄러미 바라보는것이었소. 바로 그 고개에서 그는 그들과 헤어졌던것이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음을 알수 있어 가슴이 알찌근해진 그는 한달음에 달려내려가고싶었소. 그러나 임무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갈길이 바쁜 그는 해방의 그날 우리 다시 만나자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말하며 가까이에 있는 백리향 한송이를 따 수첩에 넣고 자리를 뒀소.

사령부로 돌아온 그 동무는 그해 가을 통신원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적에게 발견되었다우. 혈전끝에 적의 추격에서 벗어난 났으나 심한 부상과 출혈로 운신하기 어렵게 된 그는 자기가 그 몸으로 부대에 가닿기 어렵다는것을 깨달았소.

그는 후날 동지들이 자기를 찾아냈을 때 어떻게 최후를 마치고있는가를 알아보게시리 글을 남겨놓으

려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뒀소. 그 서술에 무엇인가 얼굴에 차분히 떨어지는것이 있었다우.

고향집 뒤산에서 꺾은 백리향이었소.》

런대장은 말허리를 끌고 담배를 한모금 깊숙이 빨았다. 그리고는 천만마디의 달더미에서 한마디 한마디 플라하듯

《사흘후 그 동무는 부대에 돌아왔소. 네굽으로 기어서말이요...

땅크에 백리향을 심고다니며 정성스레 가꾸는 성민이를 보았을 때 난 그 동무 생각이 나면서 이런 뜨거운 사랑을 지닌 그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도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갔소. 그런 사랑은 병사를 더욱 억세게 해주기때문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임무를 주었지. 하긴 그것은 그에게 과중한것이였지만 그러나 그 동무는 해냈소.》

송철은 상한 다리를 끌고 모제비로 기여가다가 팔꿈치로 그리고 나중엔 배밀이해서 사령부를 찾아 한치한치 기여가는 투사의 강인한 모습을 눈앞에 뜨겁게 그려보며 박성민에 대한 런대장의 깊은 신뢰, 그리고 중대의 빛나는 전투위훈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수천수만의 비방울이 모이고 합쳐 내가 되고 개울이 되고 대하를 이루듯 백리향, 편지, 사진, 고향... 그 모든것이 하나로 정화된 정연한 표상으로 가장 숭고한 감정-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그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다.

그렇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 숭엄한 그 사랑이 성민이 그리고 고향에 편지를 쓰고있는 전사들의 가슴속깊이 간직되어있었기에 그들은 것처럼 억세게 싸워 용맹을 나래친것이였다.

전투의 전 과정은 런대장이 전사들의 심장속에 조국에 대한 그 숭고한 사랑을 뜨겁게 심어주고 료원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도록, 그리하여 그것이 전투를 승리로 추진하는 거센 흐름으로 되게 한 과정을 보여주었다.

준엄한 현실은 그에게 땅크와 포를 보고 전투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병사들의 심장을 먼저 보고 세워야 하며 그 뜨거운 심장에 의거하여 붉은 화살을 힘있게 그었을 때 그것은 천만번 필승불패라는 엄연한 진리를 보여주었다.

《전사들이 인젠 다 쓴것 같은데 가봅시다.》 하며 런대장이 움쭉 일어섰다. 송철은 그의 뒤를 따라 가면서도 무한쾌도훈반이개우에 있는 백리향에서 눈초리를 뺄수 없었다.

관상용으로는 볼품 없고 정원용으로는 쓸모 적은 하치 않은 꽃으로만 보아왔던 그 꽃이 이제 와선이 세상 그 어떤 꽃과도 겨룰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슴속으로 후덥게 안겨왔다.

그것은 백리향의 아련한 자태나 그윽한 향기에 대한 현혹이나 도취에서가 아니라 그 꽃에 스며있는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병사의 열화같은 사랑에 대한 깊은 공명에서 오는 아름다움이였다.

초상묘사와 형상의 질

백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인민의 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 문제는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예술적형상을 창조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개성적특성이 산 비반복적인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세부묘사를 잘하는것이다. 세부묘사를 잘하여야 형상의 표현력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적은것을 통하여 더 큰것, 더 많은것을 보여줄수 있다.

묘사는 형상이 가지고있는 특성 즉 직관성, 조형성, 표현성 그가운데서도 표현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묘사란 구체적으로는 초상묘사, 심리묘사, 행동묘사, 물체묘사, 자연묘사 등이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은 그들의 행동, 심리, 얼굴표정, 몸가짐과 말투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다시말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그들의 외모, 심리, 표정과 몸가짐 등의 묘사전체를 통하여 표현된다.

현실에 있는 산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특색있게 보여주는데서 초상묘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초상묘사는 종자를 핵으로 하는 작품이라는 유기체의 중요한 세부에 대한 묘사이기때문에 인물들의 외형적특징을 잘 그리는데는 작품전반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인물들의 초상묘사의 대상은 작가에 의하여 포착된 해당 인물에게 고유한 인상적인 세부, 얼굴모습과 차림새 등이다.

인물들의 외형적모습은 무엇보다먼저 그들의 내면세계를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인물의 형상을 무르익은 과일에 비견다면 그의 외모는 과일의 겉모양과 빛깔이라고 할수 있다.

과일의 겉모양과 빛깔을 보고도 그 맛을 짐작할수 있는것처럼 인물의 외형적모습은 그의 내면세계를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람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와 같은 사상감정은 물론, 복잡한 심리의 움직임도 섬세하게 나타낸다고 가르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또한 얼굴에서도 눈은 사람의 내면세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민감하게 드러내보이며 깊은 속생각까지도 예리하게 나타낸다고 하면서 눈은 때로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섬세한 감정과 미묘한 심리도 뜻깊게 나타낼수 있다고 가르쳤다. 눈이 사람의 마음을 비쳐주는 거울이라고 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단편소설 《발걸음》(백보흠, 조선문학, 1978년 2호)의 작가는 주인공 련희의 눈을 통하여 그의 섬세한 감정과 심리적과동을 인상깊게,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련희는 니란탄광에서 지형도를 작성한적이 있는 자기를 긴급히 찾고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눈이 둥그레졌다.

련희가 목적지인 풍수덕을 찾아가 처음으로 만난 채동식이가 바로 자기를 보내주도록 제기한 사람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반문도 아니고 대답도 아닌 길게 떨리는 소리를 내며 동식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채동식이가 한손으로 처녀들의 숨은 위훈을 더듬듯이 지형도를 어루만지며 《보십시오. 지형도는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합니까... 바로 이런 지형도가 있었기때문에 삭도탑이 설계되고 니란개발지가 이렇게 빨리 마련될수 있었지요.》라고 말한 순간 련희는 가슴속이 빠근하여 눈을 감았다. 일찌기 맛보지 못했던 생활의 희열이었다. 지그시 눈을 감았으나 처녀시절의 꿈과 랑만이 되돌아온듯 그의 마음은 하늘로 땅으로 활개치며 날아가는것이였다.

그러나 련희는 자기가 작성한 지형도에 오점이 있어 철길공사를 잠시 중단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 동식의 말을 듣자 눈이 둥그레진다.

소설에서는 이 순간 련희가 겪는 내부적체험, 심리세계의 변화과정을 그의 눈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예?>

련희는 눈이 둥그레졌다.

<우리는 늪에다 철길다리를 놓자고 술한 역사질을 했지요. 그러나 늪의 지질조건이 나빠서 끝내 그만두고말았습니다.>

가볍게 한숨을 내뿜는 채동식의 입에서 연기같은 김이 날리였다.

련희는 쇠망치에 정수리를 되게 얻어맞은듯 머리속이 뻥하고 눈앞이 아찔했다.》

련희는 그때 풍수덕의 본산구역에서는 지하보물을 찾으러 지형도를 들고 뒤따라올 지질조사원들의 눈을 은근히 두려워했지만 이 구역에서는 누구도 그 지형도를 시비하며 뒤따라올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측량공의 발걸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될 그런 가치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일을 설치였던것이다.

련희는 측량의 길에서 잠시 헛디딘 그 한순간의 걸음때문에 먼 후날까지 조국이 손상을 받게 된다는것을 모른채 10년세월을 마음 편히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련희는 송글송글 내뿜힌 이마의 땀을 씻으며 애원의 눈길로 동식을 바라보며 말한다.

《동식동무, 눈차(탄광에서 창안한 눈차는 차)만 대주면 제가 래일중으로 눈의 룡파선을 완전히 확인해드리겠어요.》

보는바와 같이 소설에서는 련희가 측량의 길에서 잠시나마 헛디딘 잘못을 알기 이전과 이후 시기에 그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난 미묘한 변화를 가슴속이 뼈근하여 눈을 감았다. 련희는 눈이 등그래졌다와 송글송글 내뿜힌 이마의 땀을 씻으며 애원의 눈길로와 같은 표현들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외형적모습을 잘 그려 그의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었기때문에 독자들은 그에 대한 믿음과 공감을 가지고 작품세계에 끌려들어 가게 된다.

초상묘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종자의 특성과 사상주제적목적에 맞게 인물들의 외모를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주제적문예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은 다음에는 거기에 세부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할지라도 잘 가꾸지 않는다면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수 없다.

종자의 요구와 사상주제적목적에 맞게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뚜렷이 밝힐수 있는 계기에서 적중하게 주어진 초상묘사는 천만마디의 설명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예술적감동을 준다.

초상묘사가 아무리 생동하게, 인상깊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자를 살리고 의의있는 문제성을 밝히는데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종자를 움푹우고 자래워 형상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과정이란 결국 세부묘사, 초상묘사를 옹계 하는 과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초상묘사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해당 인물의 외모에서 특징적인 세부, 본질적인 세부를 포착하고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작가에게는 자기의 그 어떤 창작적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백가지 천가지의 세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주어져있다. 그러나 그가운데서 하나가 백을 대신할만한 그런 특징적인 세부, 작가의 형상적의도

를 가장 명백하고 깊이있고 생동하게 표현해줄수 있는 세부를 골라잡는것이 중요하다.

작품에 그려진 세부가 비록 자그마한것일지라도 그것이 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그 전모에서 뚜렷이 드러낼수 있는것이라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동안 살아있게 된다.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인물의 성격과 심리의 특성,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여기에 묘사의 강한 힘이 있다. 작가의 예술적기교의 높이는 특징적인 세부가 가지고있는 표현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외형적모습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것을 다 그럴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그 어떤 특징적인 세부를 집중적으로 그려야 할것이다. 초상묘사는 그자체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특징짓는데 있다.

만일 작가들이 특징적인 세부를 골라잡는데 무관심하면 불필요한 세부들이 라렬되기마련이다. 작품에는 부족한것이 없어야 하지만 불필요한것도 없어야 하며 더 보탬것이나 빼버릴것이 없어야 한다.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예술적형상을 창조한다고 하면서 잡다한 세부들을 끌어들여 동일한 농도로 묘사할 때에는 형상들의 색조에서 강약이 없는 평균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것이 없게 된다.

창작가들은 설교가의 립장에 서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묘사에서 여운을 남겨둘수 있으며 사람들을 작품속에 완전히 끌어들여 함께 모색하는 위치에 세울수 있다.

단편소설 《마지막버럭》(한웅빈, 《조선문학》, 1978년 10호)에 나오는 혁신경의 갱장 덕철의 초상묘사는 그의 계급적바탕과 성격적특질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아까 시운전결과를 알려려니까 벌써 떠났다고 하더군요. 시운전이 불만 했소.>

하고 덕철갱장은 입귀를 씹거거리며 웃었다. 옛날에 그는 앞이 두대를 잃었다. 그때부터 웃을 때면 입을 벌리지 않고 입귀만 쭈긋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있다.》

위훈에 대한 갈망도, 행복에 대한 희망도 없었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덕철은 승함과 같이 입에 간데라를 물고 막장의 좁고 낮은 굴길을 네발걸음으로 헤쳐나왔다. 입에 문 간데라는 턱과 가슴을 사정없이 때렸고 어깨와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다.

밖에서는 왜놈감독놈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악을 썼다. 그놈은 덕철의 입에 문 간데라를 꼬리처럼 책 잡아당겼다.

신음소리도 없이 묵묵히 부러진 이발과 함께 피덩어리를 뱉을 때 그의 가슴에서는 웅어리진 피눈물이 흘렀다.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있는 덕철이기에 그는 응답개조된 적재기에 결함이 있는것을 종전에 비하지

말고 오늘의 요구에 비추어 철저히 개조하여야 하겠으나 오늘은 이만 해도 과분하다고 하면서 만족해한다.

소설에서는 이처럼 덕철의 외모를 그 전모에서 그린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을 잘 드러낼수 있는 특징적인 세부를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그리고있다.

초상묘사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물들의 심리적 움직임, 성격발전의 매 단계에 주어진 상황에서 얼굴표정에 나타나는 심리적굴절까지도 포착할수 있도록 그리는것이다.

인물의 외형적특징에 대한 묘사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내면세계를 더욱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있는만큼 초상묘사는 그들의 심리적움직임을 섬세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의의있는 세부묘사로 되어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은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한 련관속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발전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할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초상묘사는 인물의 심리상태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물론 초상묘사를 매 인물이 처한 환경 및 정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정적인 상태에서 줄수도 있다.

또 사실 이런 경우가 소설들에서 흔히 주어지기도 한다.

레하면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백현우, 《조선문학》, 1978년 3호)에서 그 표현을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일이라면 남이 수고를 알아주든말든 네 일 내 일 가림이 없이 뛰어들어 자기의 열정을 고스란히 쏟아붓고있는 주인공 진옥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달빛을 안고 배머리에 조용히 앉은 처녀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약간 창백해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가름한 얼굴에 안성맞춤하게 자리잡은 오뚝한 코, 펴지력있어보이는 생기 도는 눈이며 이악한 성미를 말해주듯 꼭 다물린 입... 달빛의 조화때문에 처녀의 생김생김은 아름답게 부각됐고 한창나이 젊음이 주는 싱그러움과 온몸의 탄력이 그 무슨 훈향처럼 풍기는것이였다.

처녀의 몸가짐과 표정은 세련되고 의젓했다. 그 한테서는 산골사람다운 푸수함보다 섬세하게 다듬어진 도시사람다운 체취가 느껴졌다.》

인물들의 외형적특징에 대한 묘사에서는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이 반영된다. 따라서 초상묘사 그 자체만으로도 인물들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인물들의 외형적특징에 대한 묘사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교양하는 미학적기능을 높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창작실천은 초상묘사가 매 인물이 처한 환경과 정황에 어울리고 그들의 심리적움직임과의 일정한 련관속에서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등장인물들의 외형적특징을 보여주는 기능뿐아니라 그들의 성격의 전형적특징과 개성적면모도 형상화하는 역할을 놀게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이러한 실례는 여러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에서는 진옥의 초상묘사를 주어진 정황에 맞게 그리고 그의 심리적과동의 유기적결합속에서 인상깊게 주고있다.

《창백한 낮빛을 가시지 못한채 울상이 되어 중얼거리는 진옥을 보자 창무는 피로왔다. 흠어진 머리칼을 쓸어올리는 진옥의 손에는 꿈을 만나기 바로 전에 캐서 들었던 천궁 한뿌리가 아직 들려있었다. 어디에 굶혔는지 험상스럽게 찢진 그의 손등에는 두텁게 피덩지가 앉아있었다. 그러고보니 자기 손의 피는 진옥의 손에서 묻어났것이었다...

하얗게 질린 진옥의 얼굴에 한가닥 붉은 기운이 살아오는가싶었다. 땀에 젖어 흠어진 머리칼과 구겨진 옷자락... 차림차림은 초라하고 두눈에서는 공포의 빛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으나 창무는 진옥이처럼 아름답고 용감한 처녀가 이 세상에 흔치 않을것 같이 생각되였다.》

이것은 진옥이가 새 일터로 떠나기에 앞서 산기슭에 조성한 약초밭들과 앞으로 꾸려야 할 약초동산의 전망계획을 현지에서 알려주기 위하여 창무와 함께 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꿈을 만났다가 위기에서 벗어난후의 진옥의 얼굴표정에 굴절된 내면세계의 미묘한 움직임을 섬세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갑자기 약초지도가 들어있는 배낭을 창무가 벗어던지고 그냥 달려왔다는것을 안 순간 창백한 낮빛을 가시지 못한채 울상이 되어있다가 창무가 지금쯤은 꿈도 놀라 달아났겠으니 그 배낭을 찾아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을 때 《아이, 고마와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하며 넘치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 금시 얼굴표정을 달리하는 진옥의 심리세계의 움직임은 얼마나 섬세한가.

우리는 여기에서 진옥의 왕성한 사업의욕과 불같은 열정 그리고 말은바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함께 배낭도 없이 빈몸으로 따라갔다가 그의 많은 사색과 수고가 깃들어있는 약초지도가 들어있는 배낭까지 벗어던지고 온 창무의 정신세계를 아울러 보게 되며 두 인물의 정신세계의 대비로 하여 진옥은 더한층 돋우보인다.

단편소설 《마지막버럭》에서도 덕철경장이 자기의 이발 부러진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을 때 승환과 덕철, 정걸의 초상묘사를 통하여 세 인물의 심리세계의 파동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덕철이가 말을 끝내자 정걸은 자리를 고쳐앉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은 뜻밖에도 감동이 아니라 비난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갱장동지,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버럭처리작업도 더 깨끗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한은 놀람과 의혹이 비낀 시선으로 갱장을 건너다보았다. 그는 갱장이 지난날에 비추어보면 오늘은 이만 해도 과분하다고 하면서 개조된 적재기에 결함이 있으나 그것을 철저히 개조하려고 하지 않는것 같이 생각된듯싶다. 그는 정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난날에 비추어 오늘은 이만 해도 과분하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그때를 잇는것과 같은...>

<뭐라구?>

덕철의 입가에서 주름살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 옛날, 덕철의 무릎에서 피가 흐를 때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 합지와 바가지로 전쟁시기에 침수된 갯의 물을 풀 때는 탁아소문턱도 못넘고있었던 세대가 어제날에 대한 덕철의 견해를 부정해나섰다.

승한은 처음 놀랐고 다음은 대견스러웠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지난날이 오늘을 위안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그것은 오늘을 더 좋고 값높게 하고 래일을 더 빨리 당겨오는데 복무해야 할게요.>

<!>

덕철은 장승같이 우뚝 서서 승한을 노려보고만있었다. 그 자세에는 뜻밖에도 정결을 도와 일어난 승한에 대한 놀람과 의혹, 실망과 피로움, 분노, 이 모든것이 죄다 깃들어있는듯하였다. 단지 자책만은 없었다.》

소설은 개조된 적재기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와립장을 취하는 세 인물의 심리세계, 내면세계의 움직임과 그들의 교감세계를 그들의 초상묘사와 함께 특징적인 행동묘사와 생활적인 대사를 통하여 인상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주인공의 얼굴을 눈도 코도 있는 온전한 인물로 그릴뿐아니라 그의 얼굴세부를 끊임없는 움직임속에서 간명하게 집약적으로 그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다른 하나는 표현성이 높은 생활어들을 옹골치게 리용하는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어들에는 사람들의 인상에 대한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생동한 표현들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인물의 외형적모습을 그리는 초상묘사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적극 찾아쓰는것은 세부묘사의 형상미학적기능을 더욱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에서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점점 멀어져가는 처녀의 꿈무니에서는 흰동그라미속에 빨간 적십자표식이 박힌 가방이 달싹궁거리었다. 강에서는 부드럽고 유한 인상만을 주더니 둥그런 안전모에 장화를 신고 작업장에 나타나 황

소같은 착암소대장을 닦아세우고 돌아가는 지금의 그한테서는 웅골차고 맵짠 맛이 느껴졌다.》

이 대목은 술가지를 한광차나 실어다주었으나 아직 막장에 꽃지 않은 착암소대장을 닦아세우고 돌아가는 진옥의 모습을 보여준 세부이다.

《가방이 달싹궁거리었다.》는 표현은 침묵우로 강동강동 걸어가며 멀리 사라지는 진옥의 모양을 얼마나 생동하게 보여주는가.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인 달싹궁거린다는 표현은 비교적 작고 갑작한 물건이 자꾸 들렸다놓였다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것인데 효과를 거두고있다.

이 대목에서는 《처녀의 꿈무니에서는 흰 동그라미속에 빨간 적십자표식이 박힌 가방이 달싹궁거리었다》는 생동한 표현도 잘 어울리지만 《둥그런 안전모에 장화를 신고 작업장에 나타나 황소같은 착암소대장을 닦아세우고 돌아가는》이라는 수수한 표현도 왕성한 사업의욕과 불같은 열정, 높은 책임성을 지닌 진옥의 성격특질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단편소설의 초상묘사의 특징은 생활어들을 잘 리용하여 묘사의 정확성과 함께 생동성을 비교적 잘 보장한데 있다.

다음으로 단편소설 《발걸음》을 보기로 하자.

《높은 탑우에는 소름이 끼치게 바람이 세쳤다. 그러나 수직선연장점을 열심히 가늠하며 푸른 신호기가 오르는 넓은 눈밭을 바라보는 련희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기쁨의 미소가 조용히 피어오르고있었다.

눈이 쌓여 하얗게 단장한 크고 작은 늪들, 아득히 곧게 뻗어간 철길, 그 어떤 지점은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인처럼 서있는 삭도탑, 억센 굴곡을 이루며 길게 누워있는 저 먼 조국의 산발들...

이 모든 정들과 아름답고 사연 많은 풍수덕의 정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련희는 그만 저도모를 감격에 목이 메어 온몸을 떨었다.

련희는 동식이와 중대장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련희는 철기둥의 수직선에 맞추어 똑바로 세운 표식의 눈금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래도록 탑우에 서있었다.》

소설은 《련희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기쁨의 미소가 조용히 피어오르고있었다.》는 표현, 생활에서 흔히 쓰는 고유어들로써 비록 지형도에 오점은 남기였어도 그 귀중한 철길건설에 더 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겪은 많은 고충과 진지한 탐구, 피타는 노력의 보람을 느끼는 련희의 내면세계를 전달하고있다.

등장인물의 외형적모습을 적절한 생활적인 어휘들과 언어표현으로써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 것은 매 인물의 성격을 독자들이 그려볼수 있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적기량은 바로 생활적인 아름다운 어휘와 표현으로써 사건의

전개와 전반적 흐름에 맞게 그리고 설정된 정황에 어울리게 얼굴표정과 풍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인물의 초상속에 주어진 하나의 어휘와 표현에 이르기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여기에 진실성과 생동성을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작가가 단일한 창작태도로부터 어휘표현에 대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탐구, 적극적인 탐구가 없이 긍정적인 인물이면 질은 눈섭과 꼭 다문 입술을 가진 인물로, 수집음을 나타낼 땐 귀밑까지 빨개지고 답답한 사람은 숙불은 이마를 가진 인물로, 흔히 쓰는 일반적 표현만을 사용하여 그린다면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 형상창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세부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은 유형화된 도식적인 표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 표현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인물의 외형적 특징을 보여줌에 있어서 작가들의 창조적 주목이 돌려져야 할 문제는 또한 매 인물의 개성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하면서도 작품마다 특색 있게 묘사가 주어지도록 하는 문제이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과 《발걸음》은 주인공들의 초상묘사에서 서로 구별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에서는 주인공의 차림새에 대한 묘사가 보다 많이 주어졌다면 《발걸음》에서는 주인공의 생김새 특히 눈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하고 있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은 첫부분에서 주인공

진옥의 생김새를 코와 눈, 입 등 몇가지 특징적인 표식만을 찍어 집중적으로 보여준 다음 주로는 그의 차림새에 대한 묘사에 주의를 더 돌리고 있다.

독자들은 소설의 첫머리에서 둥그런 안전모에 장화를 신고 작업장에 나타난 주인공과 만나게 된다면 중간부분에서는 보위색의 돌격대복차림에 배낭을 진 그를 보게 된다. 그런가 하면 마감부분에서는 군데군데 흙탕물이 묻은 록색비옷을 입은 진옥이와 만난다.

독자들은 사건의 전개와 전반적 흐름에 맞게 그리고 매 순간 설정된 정황에 어울리게 주인공의 차림새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들을 통하여 비록 진옥이가 어둠속에 비를 맞으며 소문 없이 떠나가도 그가 남겨두고 가는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공다운 자각, 자기 주위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무정신은 얼마나 값있고 빛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감득하게 된다.

단편소설 《발걸음》에서는 소재의 특성과 종자의 요구 그리고 작가의 사상미학적 의도와 기호에 맞게 주로는 얼굴 특히 눈을 통하여 그의 심리세계, 내부적 체험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에서 잘된 초상묘사는 시대의 본질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철학적 심오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인간의 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상수단으로 된다.

작가들은 초상묘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상예술성이 높은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 및 제1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지상토론

독자들의 화제거리가 될수 있게

김홍섭

한 예술만이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사람들을 웃길수도 있고 울릴수도 있습니다.》

예술적 흥미를 노린다고 하여 생활의 진실을 떠난 흥미를 위한 흥미가 되어서는 안되며 결코 저속한 웃음이나 기형적인 취미에 빠져서는 안된다.

예술적 흥미에 대한 요구는 시대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인민들의 지식수준과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오늘 주체시대의 력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우리 인민들이 문학작품을 보고 느끼는 예술적 흥미의 요구와 수준은 비할바없이 높다.

오늘 우리 혁명적작품이 안겨주는 흥미는 반드시 아름답고 고상하며 영웅적인 사상감정을 불러일으

단편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누구나 다 비록 작은 용적의 작품을 쓰지만 그로써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자기 창조품이 독자대중의 화제거리가 될만큼 그렇게 가치있고 흥미있게 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느 한 단편소설이 인민대중의 생활에서 화제거리가 될만큼 그렇게 흥미가 있다면 그 작품은 커다란 성공을 쟁취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소설이 참으로 흥미가 있어 독자대중을 웃기고 울린다면 그들의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

키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단편소설의 흥미는 어느 한두문제의 창작실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어날수 있는것이 아니다.

단편소설이 참으로 흥미있게 되자면 전반적으로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아야 하며 의도적으로 어느 한 형상요소를 력점을 찍어 흥미를 노려 그려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을 교양적가치가 있으면서도 흥미있게 만들려고 진지한 탐구와 완강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작가들은 자기의 단편에서 하나의 커다란 흥미를 노려야 할것이며 창작적개성에 맞게 어느 한 형상요소를 특히 흥미있게 부각하기 위하여 깊이 사색해야 할것이다.

가령 절박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 깊이 푼다든지, 주체형의 혁명가의 매력있는 성격적미를 새롭게 보여준다든지, 재미있는 하나의 문학적인 이야기를 엮는다든지, 감정축적을 잘하고 폭발을 적절하게 한다든지, 지어 하나의 생동한 생활세부의 묘사에서도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창작적고심을 해야 할것이다.

물론 작가의 자세는 단편의 모든 형상요소를 흥미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것이다.

그러면서도 창작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특히 어느 한 형상요소를 두드러지게 흥미있게 함으로써 작품을 특색있게 만들고 작품전체의 흥미를 돋구게 하는것도 좋을것이다.

단편소설은 인민대중이 절실하게 형상적해명을 요구하는 인간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에 대한 진실한 형상을 주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작품에서는 언제나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단편소설 《복무자들》(백남룡, 《조선문학》, 1979, 2)은 절박한 시대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생활과 성격을 통하여 진실하게 밝히면서 어떻게 정치적생명을 지키고 빛내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혁명이 계속되고 자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대를 이어 일하게 되는 현실생활은 책임적위치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며 혁명의 대를 어떻게 잇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참으로 그것은 현시기 절실한 인간문제이며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계속 빛내이겠는가 하는 의의깊은 문제이다.

《복무자들》은 유철진지배인과 최성순반장이 자기 아들을 해발 2,000미터가 넘고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새로 개발된 광산공무직장 선반공으로 보

내는 사건을 두고 이 문제를 풀고있다.

성순반장은 자기 아들 명호에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참된 값을 어떻게 재여야 하는가를 어떻게 가르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로동자건 과학자건 무슨 일군이건 관계없이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얼마만큼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사는가에 참된 값을 재는 진짜 척도가 있다... 당에서 근심하는 어려운 부문에 자진 어깨를 들이미는 사람이 삶의 가치를 깊이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순반장은 사회의 지붕밑에서 고스란히 행복만을 누리던 시절은 지나갔으니 사회를 받드는 주추돌로 살라고 타이른다.

유철진지배인은 그 말을 엿듣고 《지배인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들도 그 덕에 편안한 자리에 가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쌓아올린 수억만재부의 탑들을 후대들이 빛내이도록 언제나 창조와 투쟁의 어려운 길에 자식을 내세우리라 결의다지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철학적인 형상적해명속에서 혁명적단편소설의 흥미는 일어나는것이다.

단편소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중심분야는 성격형상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물의 성격을 그의 정신적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가르치고있다.

단편소설 《발동소리》(리광식, 《조선문학》, 1979, 2)의 주인공 김창수의 성격은 그의 높은 정신세계로 하여 웅심깊고 매력이 있으며 여기서 예술적흥미를 자아내고있다.

이악하나 세련되지 못한 오룡농장 프락뜨로운전수 채영금이가 김창수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정신세계에 끝내 감동되어 앵돌아진 자기 성미를 누우치는것은 참으로 흥미있다.

프락뜨로에 만부하를 걸지 않고서는 단 한걸음도 단 한순간도 발동소리를 울릴수 없다고 하는 김창수의 시대적성격은 말없이 행동하며 연구하고 사색하며 무게있게 일하는 그의 모든 성격묘사에서 더욱 웅심깊게 그득하게 살아나고있다.

우리는 소설의 장을 덮으면서 생기발랄한 영금의 형상뒤에서 느슨하게 웃으면서 기특하나 아직 어린 그를 진정으로 손잡아 이끌어주는 창수의 속깊은 성격을 감동깊게 바라보게 된다.

단편소설의 흥미는 이렇게 생동하고 의의깊은 성격의 미로부터 받는 감흥이 아니겠는가.

소설의 흥미는 문학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짜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단편소설 《전사는 살아있다》(김정민, 《조선문

학》, 1979, 3)가 불러일으키는 흥미는 중요하게 문학적인 이야기에 있다.

우리는 주인공 송림이가 습격전에서 《나》를 구원하고 온몸이 불타면서 적포진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친 그 사건줄거리를 기대와 의욕과 흥분 속에서 줄곧 긴장하게 읽게 된다.

독자들은 묘사하는 계기들을 재치있게 바꾸면서 송림의 영웅적성격을 부각하는 그 이야기숨씨에 감탄하게 된다.

전쟁시기 전선으로 오가는 길가집에서 영웅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면서 한 이름모를 영웅이 전사하는것을 목격한 이야기, 김송림의 평상시 군무생활에 대한 소개, 소대장이었던 내가 퇴원하여 정치부중대장이 되고 중대에 돌아와 송림의 수첩을 본것, 전후 평양 가는 열차안에서 옛 중대장이 불발포탄을 몰래 제거한 송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경찰병들이 파내여온 송림의 총, 그 총번호를 보고 송림이가 그 주인공인것을 알고 관장실로 가게 되는것 등을 기대

속에 읽게끔 재치있게 짜고있다.

그리하여 영웅은 죽지 않고 전사는 살아있다는 사상감정을 후덥게 안겨주고있다.

만일 이 단편소설의 줄거리를 전투사건 그대로 평면적으로 전개해나갔더라면 그토록 흥미있게 읽히우지 못했을것이다.

우리는 성공한 단편소설들에서 특히 흥미를 자아내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창작경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찾아보고 배워야 할것이다.

물론 단편소설의 어느 한 형상적요소에서 흥미를 자아내기 위하여 창작적노력을 기울이는것도 필요하지만 창작가의 올바른 자세는 단편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다 흥미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을것이다.

독자대중이 하나의 단편소설을 놓고도 그의 문제성에 대하여, 성격과 감정에 대하여, 문학적인 이야기와 지어 세부에 대해서까지 큰 화제거리로 삼게 그렇게 그것이 흥미있게 되게 하자!

단상

단편소설의 여운

장효흡

독자들을 위해 복무하며 그들의 요구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작가들에게는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는것외에 또 하나의 다른 눈, 독자들을 마음속으로부터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만일 누구에게 귀여질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쓴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과녁 없이 쏜 포알과도 같이 무의미할것이며 단 한명의 독자도 없는 작품 아닌 《작품》으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인민들이 문학작품을 낯잡이나 자는 대신에 심심풀이로 읽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 깊이 리해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보통사람들의 고매한 정신에서 배우며 인류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신심을 얻기 위하여 읽는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성은 대단히 높다. 그것은 독자들의 지적수준이 훨씬 높아진 사정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비록 같은 대상, 같은 생활이라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그 느낌과 반응은 서로 다르다.

이것은 결국 정치적식견까지도 포함한 사람들의

지적수준이 그들의 정서생활은 물론 모든 말과 행동을 규제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다시말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은 심오한 분석력과 철학적사색의 기초로 되며 예민한 정서적감수성의 전제로 되는것이다. 따라서 지적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적인 생활계기들에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정정서도 더욱 폭넓고 다양해진다. 또한 풍부하고 고상한 정서는 사람들의 지적높이를 더해주기도 한다. 지적수준과 감정정서는 이렇게 서로 의존제약하면서 작용하는 관계에 있지만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보다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혁명적세계관과 지적수준이다.

위대한 사회주의교육체제의 빛발아래 온 나라가 그대로 학교로 되고 전체 인민이 그대로 학생인 배움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도모두가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기술문화수준을 가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문학작품에 대한 그들의 정서적요구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의 독자들은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놓고도 그것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들의 숭고한 사명과 결부시켜 분석할줄 안다. 봄날의 새싹처럼 싱그럽고 풍만하게 넘쳐나는 그들의 감정정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한폭에서 샘솟아 물결

치는 가장 고상하고 혁명적인것이다. 그들은 작품에서 위훈으로 새겨진 지난날과 혁명적기백으로 들끓는 오늘은 물론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을 보게 되기를 원하며 더 높이 나래칠수 있는 아름다운 리상과 지향을 찾아 글줄을 파고든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작품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여 독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형태의 문학작품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시대정신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형식의 하나인 단편소설들이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보답하는데서도 응답 앞장서야 할것이다.

그러면 독자들의 높아진 지적, 정서적 요구에 맞게 단편소설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인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단편소설들 강한 정서적여운을 남길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여운이란 소설에서 받은 흥분과 감동이 오래도록 남아 생동한 표상으로 되살려지면서 작가가 채 말하지 않은 그 다음의 이야기까지도 충분히 상상해보게 하는 그런 정서상태의 지속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의 여운이 강하게 되어야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것이라고 가르치고있다.

만일 읽기가 끝나자 주인공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소설에서 받은 정서적감흥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벌써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하나의 빛이 없는 글에 불과할것이다. 예술의 위력이 높은 사상을 고상한 정서로 안반침하는데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성격형상으로 독자들에게 정서적충격을 주어 끊임없는 사색과 강렬한 느낌, 생활에 대한 불타는 지향을 불러일으켜주는데 진정한 소설의 세계가 있는것이다.

독자들은 정당하게도 작품에서 자기들의 사색의 몫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독자들이상으로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던것들까지 튕겨주어야 하지만 결코 잡다한 사말사나 상식적인 문제들을 늘어놓아서는 안되며 이야기를 목적인 결과어로 직선적으로 끌고가지 말아야 할것이다. 작가의 창작의도는 어디까지나 형상의 옷속에 깊숙이 숨어있어야 하며 작품에는 독자들자신이 되새겨보고 음미할수 있는 그들의 세계, 충분한 여지가 있어야 한다.

단편소설의 흥미와 견인력은 바로 이런데서도 오는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짧은 이야기흐름을 가진 단편소설에서 깊은 정서적여운을 보장하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이다.

단편소설 《전선길에서》(신리섭, 《조선문학》,

1979, 4)는 자기의 독특한 정서적향취를 풍기면서 강한 정서적여운을 안겨주는 인상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의 창작성과는 단편소설을 독자들의 지적수준에 맞게, 여운있게 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실천적문제들에 좋은 해답을 주고있다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전선길에서》의 여운은 우선 크지 않고 아담한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소설의 마감을 크고 똑똑하게 맺어준데서 오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생활을 그것의 일상적인 발전형식 그대로 보여주는 문학작품의 본성적요구와도 맞는것이다.

소설의 첫부분은 련대선동원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부대로 돌아가던 두 전사가 전선길에서 울리는 소방울소리를 듣고 찾아가보니 이미 만나본적 있는 명숙이라는 처녀였다는 아담하고 생활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작품을 다 읽어보아도 그 명숙이가 보름전 자기 집 터밭에서 울리던 그 소방울소리를 울리며 고지대로 올라왔다는 짙막한 이야기이다.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는 그 어떤 놀랄만한 사건도, 영웅적인 행동도 없다. 그리고 명숙이가 들고다닌 물건도 싸움마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총이나 대포가 아니라 고추장과 소방울이다.

하지만 소설을 보고나면 수집을 잘 타는 처녀 명숙이의 모습이 것처럼 승엄하게 돋보여오고 인간의 참된 행복과 리상에 대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에 대하여 가슴후더이 생각해보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소설의 마감을 뚜렷하고 크게 맺어준데 있다.

소설에서는 죽은 소를 대신하여 부상당한 몸으로 빈 방울을 울리면서 고지로 올라온 명숙의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가를 형상적으로 해명한 다음 이렇게 끝을 맺고있다.

《소는 문제가 아니었다. 명숙이가 울린 방울소리!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귀중한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나라오는 걱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명숙의 두손을 꼭 쥐었다.

<고맙소! 명숙동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명숙의 방울소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가는곳마다에서 우리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친형제처럼 그렇게 따듯이 대해주던 로인들과 녀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총을 쏜 병사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가리라고.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조국강토에서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하리라고!》

이러한 결속은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전사들을 하나로 이어준 뜨거운 마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었으며 여기에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 사상을 얼마나 힘있게 강조하고있는가. 그리고 연하고 부드러운 소방울소리에 실린 조국과 인민과 미래의 당부는

또한 얼마나 절절한것으로 느낄수 있게 하는가.

하기에 독자들은 그들먹한 걱정속에 그 전선길에 이어진 새 진군길에서 자기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깊이깊이 생각해보는것이다.

이 소설의 강한 여운은 또한 생활장면을 잘 설정하고 그것을 립체적으로 형상한데서도 온다.

하나의 생활단면에서 인간성격을 집중적으로 그려야 할 단편소설에서는 생활장면을 옹게 설정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로파심에 의한 불필요한 장면의 설정은 거치장스러운 덧옷처럼 독자들의 걸음 걸음에 불편을 줄것이다.

작가들의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독자들에 대한 무시로 될수 있다. 우리의 독자들은 끝이 뻗드름한 이야기에 대한 지지콜콜한 설명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에서 열, 백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에 끌려든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의 매 장면은 극이 있고 생활이 있는 하나의 압축되고 집약된 생활단면으로 되어야 한다. 잘 익은 과실의 어느 한면을 잘라보아도 거기에선 빨간 살이 드러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즙이 솟아어나오는것처럼.

온몸의 신경을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쥐여당기는 것 같은 숨막히는 전장의 침묵속에서 색다른 소방울소리를 듣는 전사들의 모습을 그린 장면은 아주 생활적이며 극적이며 감동적이다.

보름전 명숙이네 집 터밭에서 전사들의 잠을 날려보냈고 죽전에는 전선길에서 그들의 상봉을 마련해주었으며 지금은 판가리격전을 앞둔 고지의 참호에 울려주는 소방울소리!

웃을줄 몰라 《무감정》이라고 비난받곤하던 중기사수의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피여오르게 하고 늘 싱글벙글거리던 아바이전사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지어주면서 신비하리만치 류다른 정서를 자아낸 소방울소리!

이 소방울소리에 그들의 모든것이 련결되어있었다. 집도, 고향도 서로 알게 된 뜻깊은 사연도...

또한 이 소방울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모든것을 한순간에 생각할수 있었다. 가난에 쪼들리던 피땀한 지난날도, 장군님께서 주신 제땅에서 밭갈고 씨뿌리던 어제날의 행복도 그리고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승리한 조국의 래일 방울소리를 더 크게 울릴 끝없는 기쁨도...

이 장면은 인간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맺어주고 주체사상의 깊이를 보장할수 있게 설정되었으며 한계기에서 지나온 생활과 오늘, 앞으로의 생활을 다 같이 그려볼수 있게 립체적으로 형상되었다.

때문에 이 장면에 펼쳐진 생활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은 것처럼 열렬한것이다. 독자들은 전투에서 처음으로 선동구호를 부르지 않은 선동원전사의 행동을 너무도 타당한것으로 받아들이며 이윽고 울린 지휘관의 서리찬 사격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한 사색의 나래를 펼쳐 정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그려낸것은 이 단편의 품위를 높여준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단편소설의 정서적여운은 생활세부의 정서성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그것은 생활세부가 작품이라는 유기체의 한 세포와 같기때문이다. 나무가지에 달린 개개의 잎새가 푸르지 않고서야 어찌 나무의 푸른 숲과 청신한 기운과 서늘한 그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이 소설에서 고추장에 대한 생활세부는 양상의 일관한 조화를 보장해주면서 정서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땀을 흘리며 달려가 얻어온 고추장을 놓고 떠들썩하며 식사하는 전사들을 바라보는 명숙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보자.

《정다운 미소가 담뱃 어린 그윽한 눈길, 행복에 겨운듯 가벼이 들먹거리는 봉긋한 가슴, 처너는 그저 아무말없이 가슴우에 드리워진 머리태를 만지작거리고있었는데 방ışı이 열려진 입가에조차 순결한 기쁨과 웃음의 여파가 물결치고있다.

무엇이 저 처너로 하여금 것처럼 행복감에 잠기게 했을까? 고추장일까? 고추장이 피곤마져 몰아갓단말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가 맛나게 먹으니까. 하지만 그것때문만은 아닌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명숙을 못마땅히 여긴 자신에 대하여 몹시 후회했었다.》

민족적생활풍습이 진하게 배여있는 고추장을 가운데 놓고 그려진 이 세부는 눈에 보일듯이 구체적이고 섬세하면서도 심리적여운을 줄수 있게 채색되었다. 여기에는 의협심이 많아 남을 도와주는데서 기쁨을 찾는 그러면서도 좀처럼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사상감정과 고상한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실려있다.

이 세부의 정서적선명성은 이러한 정서를 안겨주려고 하지 않고 독자들자신이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한데 있다.

선동원전사가 채 알지 못한 명숙의 행복감, 그것은 아마 자기가 병사들의 고향집 어머니를 대신할수 있었다는 기쁨이였을것이다. 예민한 감수력을 가진 우리의 독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울리 없다.

그런데 왜 작가는 모르쇠를 하는가. 그것은 보다 큰 형상적효과를 위해서이다.

본래 형상의 본질은 인간과 생활을 사실대로 생동하고 뜻깊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는 과정에 그속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감성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진실하고 섬세한 묘사는 생활세부를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물들여주며 세부의 정서적여운은 소설전반의 여운을 쌓아가는 발판으로 되는것이다.

단편소설의 여운은 또한 대사의 여운으로부터 오는것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그만큼 뜻이 깊고 성격

적인 대사들은 적당한 계기들에서 되살려지면서 어느덧 독자들의것으로 되어버리는것이다.

특히 단편소설의 대사는 그의 형태적특성으로부터 보다 짧고 간명하며 맵싸고 성격적이어야 한다.

《전선길에서》의 주인공 명숙이의 말들은 길게 해야 한두마디이다.

《군대동무들도 방울소리가 그렇게 좋은가요?》

《방울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짧은 이 말속에 조용하면서도 다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의한 명숙이의 개성적인 성격이 얼마나 뚜렷이 비껴있는가.

또한 이 말들은 고추장에 짓든 그의 마음도, 소방울에 머리수건을 싸매던 그 사연도, 빈 방울을 울리며 고지로 올라온 깊은 사연도 다 리해할수 있도록 뜻이 깊게 되어있다.

대사의 여운은 주로 그의 속대사에서 풍겨오는것이다.

명숙이네 집 터밭에 시퍼렇게 자란 파를 보고 고추장생각을 하는 전사들의 대화를 들어보자.

《<거 시뻔건 고추장에 꼭꼭 찍어먹었으면 얼얼별한게...>

<아따 전쟁통에두 입맛은 여전하네.>

<이 친구 봐라, 입맛을 잇으면 미국놈과 싸움은 다 하게.>》

여기서 《입맛》은 단순히 그 뜻만으로 쓰인것이 아니다.

이것은 떠나온 고향, 다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한시도 잊을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될 조국의 숨결, 그에 대한 사랑이였다.

늘 쓰는 레사로운 말로 생활의 진실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이런 대사야말로 명대사라고 말할수 있다.

명대사는 주인공들의 산 모습과 함께, 그 작품의 여운과 함께 독자들의 머리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될것이다.

아낌없는 창작적사색과 진지한 노력의 결과 독독하면서 강한 정서적여운을 남겨 독자들을 깊이 공감시켰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이 단편소설의 창작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조언을 주고있다.

작가들은 시대의 지향과 높아지는 독자들의 지적수준에 맞게 소설문학의 형상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그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리상과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며 우리 주체문학의 화원을 만발하게 가꾸어야 할것이다.

단상

시의 정서에 대한 생각

윤석범

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생활의 깊이는 서정의 깊이이며 서정의 품만은 생활의 품만이다.

그러므로 시의 정서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의 영웅적현실을 시인의 높은 정치적안목으로 얼마나 깊이있게 얼마나 생동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체험하고 그려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어느 조그마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능히 큰것을 내다볼수 있는 그러한 눈과 시대와 생활에 대한 뜨겁고 깊고 생신한 체험을 통하여 노래할줄 아는 그러한 감흥력은 우리의 시들에 더 품만한 정서를 낳게 할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는것은 문학

어느해 이른봄에 나는 북부의 한 탄광에 갔을 때, 탄부들이 아침저녁 드나드는 천리마갱구 바위턱에 진달래 한송이가 마치 영웅탄부들을 반기기나하듯이 유난히 붉게 핀것을 《발견》하고 《시상》을 펼쳐가면서 거기에 무슨 정서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아름다운 진달래가 바로 갱구턱에 피여있다는 그 사실자체에만 매혹되어있었다.

이처럼 보람있고 생동한 생활의 본질로 파고들지 못하고 억지로 서정을 꾸며대면서 왜 이것이 시의 정서가 아니란말인가고 제탄에 혼자서 흥분한 나머지 만족의 웃음까지 지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의 진실은 속일수 없어 누구에게서도 공감을 받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

과 예술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기본요구이다...

문학과 예술은 또한 생활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만 높은 형상속에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와 떼어놓고 한시도 살수 없는 그러한 혈연적인 립장에서 생활에 침투하지 못하고 그 생활을 생동하게 담지 못한다면 그러한 시에서는 정서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이다.

여기에 방금 아침해 찬란히 비껴흐르는 백사장의 한끝 이름없는 바위밑에 곱게 핀 해당화가 있다.

먼바다 일터로 나가는 길에서 아름다운 그 꽃을 보는 한 어로공의 가슴에 병사시절 바다가에서 이 지러진채 홀로 피어나던 포연속의 해당화가 문득 안겨온다. 그때의 그 꽃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려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나이 지긋한 바다사나이의 붉게 핀 해당화! 그러볼수록 랑만에 넘치는 장면이며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인이 이 사실자체에만 매혹되어 어제날의 병사였던 그 어로공과 바다사나이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정서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을 때 그 시에는 그럴만한 어떤 진실도 의의도 부여하지 못할것이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체시대의 풍만한 서정은 독자대중이 요구하는 사상감정,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게 충분히 안겨와야 한다.

백사장의 해당화를 보고 노래하는 경우에도 바다사나이들이 먼바다로 떠나는 바로 그 바다가에서 마치 출어를 축복이라도 하는듯이 반기는 그 꽃이 한층 아름답고 더 의의있고 보람차고 새로운것, 더 시대적인 숨결이 맥박치도록 풍부하고 심오하고 진실하게 느껴오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생활에 대한 시인의 높은 사고, 심장으로 느끼는 시대적인 열렬한 사상감정과 시적정서의 가장 양양된 경지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근로자들의 충성의 높이를 재현하지 못할것이며 주체시대의 벽

찬 생활감정의 부족을 느끼게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발전하는 시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활짝 꽃피우면서 전진일로를 걸어왔다. 이 줄기찬 창조의 한길에서 우리는 시의 정서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시의 서정성을 파고드는 적지 않은 시도들을 하면서 시어들을 《부드럽고》, 《연하고》 또 무슨 《정서》를 불러내려고 《꽃》과 《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그저 그것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는것이다. 시대를 어떤 립장에서 보고 생활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서정이란 말하자면 생활의 진실한 내용과 시대의 줄기찬 맥박을 담은것인데 시대를 보는 높은 안목으로, 시대의 본질적인 생활에 예민한 밝은 귀로 보고 듣고 느껴서 시를 쓴다면 서정의 고안이 생길수 없다. 시를 심장으로 느끼고 시대를 온몸으로 느낄 때 서정은 스스로 깃든다.

시를 느끼고 시대를 느낀다는것은 벌써 시인이 인민과 시대의 정신으로 사고하고 숨선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통하여 시인자신의 서정적인 파악이 이룩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시문학의 본성적요구대로 정서적으로 노래한다는것은 다시말하여 우리 시대, 우리 현실에 대한 시인의 열렬하고 적극적인 립장과 생활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창작적열정과 높은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할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쳐주는바와 같이 예술에서 정서와 감정은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해야 한다. 정서와 감정이 열렬하고 적극적인수룩 작품의 감동은 더욱 커진다. 예술의 위력은 높은 사상이 고상한 정서로 안반침되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시대의 영웅적현실과 근로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다 더 생동하고 심도있게 노래함으로써 시의 정서의 날개를 더 활짝 펼쳐야 할것이다.

풍년든 들판에서

리광식

풍요한 계절이 왔다. 철철 록음이 흘러 넘치던 산과 들에 누르고 붉은 빛이 어우러졌다. 씨원한 가을 바람이 스쳐지날 때마다 울창한 강냉이밭에서는 절령절령 쇠소리가 나고 무겁게 고개를 숙인 벼이삭들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끊임없이 속삭인다.

《원, 난알이 이렇게두 알찰수가 있다. 거 정말 열톤이상이 걸리겠는걸.》

논머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황금같은 벼알을 한알 두알 세여보던 박상조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50이 다 되어오도록 이 고장에서 농사를 지어오지만 이런 대풍은 처음 본다. 어디를 보아도 다 그렇지만 특히 청년분조가 담당한 이 동안벌이 더욱 귀여질 지경으로 잘 되었다.

그처럼 걱정했던 청년분조의 농사일이 이렇게 훌륭한 결실을 맺었는데 대하여 요즈음에는 자못 생각이 깊어진 그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새것에 민감하며 어떤 어려운 과업이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려는 투쟁의욕이 매우 강하기때문에 나이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을 더 잘할수 있습니다.》

지금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들길을 걷는 박상조의 눈앞으로는 지난 년초에 청년분조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던 때의 일들이 선히 떠올랐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로 청년분조가 조직되자 관리위원회에서는 분조장 경험이 오랜 박상조를 고문격으로 그 분조에 보냈다.

청년분조에 배치받는 첫날 그들이 들어있는 숙소에 들린 박상조는 그만 떡심이 풀리고말았다.

농장의 여기저기에서 모여온 스물안팎의 청년들이 리당에서 보내준 텔레비존앞에 마주앉아 법석 떠들어대고있었던것이다. 농사라고는 별로 경험이 없는 저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생각다 못하여 관리위원장을 찾아갔다. 분조부립소 관리공으로 나이지긋한 사람 두어명하고 보잡이군 두엇, 모내기 명수 대여섯, 그외에도 무엇무엇해서 도합 여라문명의 끝끝한 인원을 더 받자는 생각이였다.

관리위원장도 박상조의 제의를 신중히 듣는것같

더니 그럼 분조원들과 토론해보자면서 그를 데리고 청년분조원들이 있는 집으로 건너갔다. 마침 분조원 전체가 다 모여앉아 웅성웅성했는데 가만 들어보니 앞으로 해야 할 분조사업을 놓고 의논들을 하고있었다.

이런판에 관리위원장을 앞세우고 들어간 박상조는 관리위원회에서 청년분조의 일을 잘 되기를 바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더 보충해주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떤가고 물었다.

그런데 박상조의 설명을 듣고난 분조원들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들이 떠올랐다.

《아니, 왜들 이러나? 임자네들두 걱정을 하지 않았나? 관리위원회에선 우리 청년분조에 이 이원들을 더 보태주자는거야.》

박상조가 이렇게 말하자 청년분조장 오정록이가 시무룩해서 명단을 적은 종이장을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구래여 청년분조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린 우리 힘으로 농사를 짓자는건데요.》

오정록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 동감이란듯 빙 둘러앉았던 청년분조원들이 한마디씩 했다.

《...?!》

박상조는 그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다물고섰는데 관리위원장이 술그머니 그의 옆구리를 꼭 지르며 일어나 나갔다.

《자 보시우, 얼마나 장한 친구들이요. 한번 믿어봅시다.》

박상조가 따라나오자 관리위원장은 그를 집모퉁이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애초에 그는 벌써 청년분조원들이 이렇게 나오리란것을 알았고 그것을 아주 대견히 여기는 표정이였다.

《젊은 사람들의 철박서니 없는 기분을 믿구 농사일을 그르칠수야 없지 않소?》

《그러게 박동무가 있는게 아니요. 구체적인 조직사업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방조해주오. 청년들을 한번 대담하게 믿어봅시다.》

그의 말에 박상조는 쓴 입만 다실뿐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관리위원장에 대한 불만까지 새로 생겨났다. (글쎄, 청년들이야 경험이 없으니 자기들의 힘두 온전히 모르구 들떠서 그럴수 있겠지

만 경험이 많구 사리에 밝은 관리위원장동무까지 거기에 말려들면 되겠는가?) 하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한데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씨불임전투가 시작되었고 씨불임전투가 끝나자 곧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청년분조원들은 분조에 필요한 부식토를 새롭게 장만하고 랭상모를 붓노라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일하였다. 그 파정에 박상조는 이 젊은이들의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완강한 노력에 대해서 한두번만 탄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박상조는 모내기철을 눈앞에 둔 그때까지도 모내기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은 진척시키지 않고 매일밤 자정이 넘도록 기술학습에만 매달려있는 그들이 불만스러웠다.

《여보게, 거 오늘밤은 모내기전투준비를 좀 하세.》

그날도 저녁식사를 끝내자 외등을 켜단 집 앞마당에 모내는 기계부속들을 펼쳐놓으려고 하는 분조장에게 박상조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그들은 벌써 며칠째나 모내는기계의 구조작용원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있었던것이다.

《모내기 준비라니요?》

《다른 분조에서 하는걸 좀 보게나. 우선 모자와 모줄이 부족해. 굴대가 능률이 난다는데 그것두 몇개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나.》

《모줄은 해서 뭘해요. 모내는기계가 있는데. 모내기는 100% 기계로 할 작정입니다. 논씨레나 앞세워농구 감을 잘 보았다가 제격 기계를 들이대면 모내기야 뭐 하루 서너정보씩 열흘이면 넉넉할텐데요.》

박상조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고말았다. 누구는 기계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런 제기를 하는줄 아는가? 까놓고 말해서 자기 박상조만큼 기계에 관심이 큰 사람도 온 농장치고 몇이나 되는가? 그렇다고는 해도 해마다 경험하는바지만 손모는 따라세우지 않고 기계모 하나로만 모내기를 제철에 완전히 끝내본적이 있었던가? 농사일을 직접 책임지고 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다보니 그런 안속까지는 모르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박상조는 실지 부족되는 모자나 모줄을 해결하는데 품이 많이 들것도 아니여서 자기가 밤잠을 좀 덜 자면서라도 자기손으로 넉넉히 마련해두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모줄에 눈금을 새겨넣고있는 박상조의 귀에 다기찬 발동소리가 울려왔다. 얼핏 들어보아도 그것이 모내는기계 앞머리에 설치된 4마력원동기소리라는 짐작이 간 그는 얼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니나다를가 맞은편 동안벌어구에 불마치를 해든 사람들이 떨쳐나섰었다. 바로 며칠전에 트랙터로 씨레질까지 해둔 논판에서는 앞머리에 전조등까지 켜단 모내는기계가 들어서서 빠드등빠드등 안간힘을 써대고있었다.

박상조는 청년분조원들이 그동안 기술학습을 통해 익혀오던 모내는기계를 직접 논판에서 시운전해볼 심산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한데 스펙스적 논머리로 다가가본 박상조는 그만 깜짝 놀랐다. 모내는기계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아들아들하고 새파란 벼모가 꽃혀 일어서는것이 아닌가.

그제야 자세히 바라보니 처녀애들이 뒤에 앉아서 가지런히 다듬은 모줄을 연방 먹여대고있었다.

《아,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인가.》

박상조는 두렁에 서서 발을 구르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운전대를 쥐고 앉았던 분조장 오정록이가 기계를 멈춰세우더니 훌쩍 뛰어내렸다.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예끼, 이 친구 어린 모를 뽑아다가 이따위짓을 해? 농사일이 무슨 아이들 장난인줄 아나?》

박상조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또 발을 구르며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어린 모라니요?》

《이게 어린 모가 아니구 뭔가? 모 아까운줄 모르는것들이 농사군이야?》

박상조의 말에 모내는기계 공급수로 앉았던 처녀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그제야 박상조가 것처럼 노발대발하는 리유를 깨닫고 오정록이도 빙그레 웃었다.

《원참 아저씨두, 이게 어디 벼모예요? 우리가 왜 벼모를 뽑아다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젠 우리가 모내는기계 시운전을 해보기 위해 캐운 막물들이야요!》

《뭘, 뭘?》

박상조는 그만 뒤통수를 되게 얻어맞은듯 머리가 멍해져서 오정록이 뽑아다주는 파란 풀대를 들여다보았다. 과연 그것은 지금 모판에서 자라고있는, 아직 일주일이나 더 있어야 논에 나갈 벼모에 비해선 어방없이 크고 대가 실한 잡초들이었다. 설명을 들이니 그들은 모내는기계가 모내는 당일부터 정확히 작용하고 만가동될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벼모대신 쓸 풀들을 저마끔 한아름씩 베어왔던것이 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아직 모내기 시작날자는 일주일이나 남아있었던만 청년분조의 논판에선

모내는 기계의 발동소리가 끊임없이 울리었다.

결국 청년분조원들은 단 열흘동안에 분조포전 100%면적에 기계모를 해제했다. 박상조가 마련한 모자와 모줄은 감람물 한번 먹어보지 못한채 분조창고 선반우에 곱게 사려져있었다.

그동안에만 하여도 박상조의 마음속은 꽤 착잡했다.

(빈포기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러다가 문득 기계가 고장나면 또 어떻게 할려구? 그대두 모자나 모줄의 신세를 안지구 견디는 재간이 있단말인가?)

첫 사나흘동안만 하여도 박상조는 청년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면서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빈포기 하나라도 날세라 제때에 덧심기를 해가며 기계고장 한번 내는 일 없이 기계로 단 열흘동안에 말짱하게 모내기를 마치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 청년분조원들이야 말로 진짜배기 농사꾼들이 아닌가. 농촌진지를 강화하는 청년들답게 오직 한마음 농사일에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들의 노력과 일숨씨를 자기는 그렇게도 몰라보았던것이다. 돌이켜볼수록 낮이 화끈거렸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청년들과 손발을 맞출줄 알아야겠다고 새롭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달라붙은 박상조였다.

이 고장의 금년봄날씨는 류달리 찼다. 그래서 박상조는 분조 논물관리만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맡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논물관리공도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온 분조원들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들, 청년분조원들은 모두가 다 물관리원이었다. 일터로 나갈 때에나 일터에서 들어올 때나 일을 할 때에나 휴식을 할 때에나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물고를 거두고 인수로를 보살폈다. 그들은 분조포전을 몇개구역으로 나누고 그 매구역 논머리마다 눈금자에다 온도계까지 붙여세워놓아서 얼른 보아도 논물온도와 깊이, 지어는 벼가 하루에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것까지 알아낼수 있게 만들어 놓았었다.

한번은 박상조와 함께 포전길을 돌아보던 오정록 분조장이 별안간 걸음을 멈추었다. 은은한 달밤이었다.

《왜 그러나?》

전지를 켜들고 물고를 살피며 뒤따라 걷던 박상조가 그의 뒤통수에 턱을 찔을뻔했다.

《저게 무슨 소립니까?》

《어느 소리말인가. 저 들쥐소리말인가?》

《아니예요, 물소리가 안들려요?》

《물소리? 응, 이 배미의 물고가 그쪽에 있네.》

과연 귀기울여보니 오정록분조장이 가리키는 그 쪽에선 가느다란 물소리가 밤공간을 메우는 갓가지 소리들을 뚫고 간신히 들려왔다.

《아닙니다. 저건 물고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 근방에선 저런 물소리가 없었는데...》

《허허, 원 자네두...》

바싹 귀를 강구고있던 오정록이 살금살금 슬레잡기라도 하는 사람모양으로 논관가운데의 두렁길로 들어서자 박상조는 껄껄 웃었다.

한여름의 들판이라 얼마나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있으랴. 찌르러기, 귀뜨라미소리, 들쥐들의 짹짹 거리는 소리, 개구리의 울음소리, 지어는 논관가운데서 뭐가 덩구는지 철버덕철버덕 물소리까지 들려온다.

그런데 두렁 중간쯤에 앉아서 무엇을 살피는지 한참 들여다보던 오정록이 환성을 질렀다.

《아저씨. 이겁니다. 찾았어요. 제길 고 망종놈들을 어떻게면 좋나?》

반가와하는것같기도 하고 화를 내는것같기도 한 목소리였다. 박상조가 얼른 들어가보니 그것은 두렁밑을 숨새여 흐르는 가느다란 물줄기였다. 도루레란 놈들의 장난으로 생긴 그 물구멍에서는 푹푹 푹 가느다란 물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박상조는 감심해마지 않았다. 두렁밑을 흐르는 가느다란 물소리를 그 수많은 소음들속에서 가려들을만큼 예민한 오정록이었다. 하지만 어찌 그것을 감각기능의 예민성으로만 생각할수 있으랴. 오히려 후에 지내보면서 더욱 잘 알게 된바이지만 그에게 남다른 감각기능이란 없었다. 다만 하루에도 몇십번씩 걷는 포전길을 그는 손금보듯 알고있었으며 지어는 어디쯤 가면 어디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는것까지 기억하고있었다.

오정록이가 청년분조원들과 함께 논물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수로를 늘이고 수로 옷층의 물을 뽑아쓰는 기구를 만들어낸 이야기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비료를 시비하던 일, 한방울의 논물이라도 아껴쓰기 위해서 아글타글 애쓰던 일을 박상조는 지금도 엇그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또 한번은 이상기후현상으로 어린 논벼의 생육에 지장이 있을것이 예견됐을 때 오정록이와 분조원들은 연구를 거듭하던끝에 마침내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낸 일도 있었다.

오정록이와 그 분조원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벼는 고량을 메우며 자라오르기 시작하였다.

어느날저녁 박상조는 분조포전에 유아등을 켜면서 한바퀴 빙 돌았다. 서컨하늘에 비졌던 감빛 노을

도 이미 사라지고 마을의 집집마다에선 재빛저녁연기가 뉘엿뉘엿 솟아오르고있었다.

그런데 뽕나무밑 인수로에 가서 발을 씻고난 박상조가 돌아서보니 해종일 제초기를 다루고난 오정록분조장이 아직도 들어가질 않고 인수로가에 두발을 잠근채 논머리에 앉아있었다.

《아니, 분조장, 잠든게 아닌가?》

박상조가 다가가며 한마디 붙여보았으나 그는 대꾸가 없었다. 과연 그는 눈을 꼭 감은채 뽕나무밑등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아있었다. 한데 가만히 다가가보니 그의 벌에 탄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어리어있었다.

《분조장, 왜 그러나? 뭘 보구웃어?》

그가 어깨를 흔들어서야 정록이는 꿈에서 깨어나듯 눈을 뜨는것이였다.

《아저씨, 저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논판가운데서 버 크는 소리가 우적우적합니다.》

《응?!》

《이렇게 눈을 감구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난 저렇게 좋은 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난생 처음...》

가슴이 미어질듯한 행복과 환희의 감정으로 하여 정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눈에는 맑은 이슬이 그득히 피었다...

지금도 박상조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코허리가 저려오르고 눈곱이 뜨거워진다. 분조농사를 두고 얼마나 애를 써왔고 하루가 다르게 허를 빼물고 자라는 논벌이 얼마나 대견했으면 그런 소리를 다했으랴싶었다.

와수수- 벌을 스치며 서느러운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황금의 물결이 넘실거리며 그 앞으로 파도쳐 밀려온다. 해마다 가을이면 맞게 되는 들판풍경이건만 이해 가을의 들판은 류다르게 설레이는것 같다.

이 땅도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된 기쁨으로 가슴들 먹이는것인지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서 자라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농사를 지어나가며 전례없는 대풍으로써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청년분조원들, 그들이야말로 이 땅의 참다운 주인인것이다.

숙영지에서

리원길

밀림의 설레임 새겨들으며
숙영지의 품으로
내 조용히 다가가신다.

험난한 세월의 눈비에 젖었어도
백포이영 팽팽한 사령부 천막
위대한 수령님 잠시 나가신듯
천막안에 타다남은 우등불자리...

내 얼른 마른나무 한 아름 크게 안아서
천막안의 우등불 보태고싶은 마음
내 고향의 단꿀 시원히 풀어다가
진대나무 상우에 올리고싶은 마음

간절한 생각에 승엄히 머리들면
해빛마저 못스미는 촘촘한 밀림

아, 저 밀림 헤치시며 수령님 오시는 길에
찬이슬하나 털어드리지 못한 내 발걸음이
넓다란 포장길을 걸어 여기로 왔구나

받은 사랑 끝없고 바친 충성 아직 작아
생각깊은 이 가슴 후더운데

오래도록 지켜보는 우등불자리
뜨거운 내 마음을 불러준다.

그 밤 여기에서
장군님 펼치신 조국의 미래
그 미래, 그 행복이
찬눈깔고 한번 자본일 없고
기운옷 한벌 입어본일 없는
오늘의 나에게 차례졌으니
목메이는 마음에 불길이 인다

오, 숙영지!
더운숨결 뿜어주는 혁명의 품이여
여기에서 났어진 조국이기에
파일 하나 들어도 향기 목메고
날알 한줌 들어도 천근으로 무겁거니

아, 세월은 흘러
영광의 그날에 시작된 오늘의 락원우에
우리의 행복 꽃피갈수록
더더욱 뜨겁게 더더욱 가깝게
그날의 숨결 그날의 맥박 이어주며
숙영지여, 너는 서있으리라

분격의 지점에서

석인해

판문점이며 군사분계선이 지나간 땅이며 하는 이 지점은 어디까지나 축복받아야 할 조국땅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하건만 막상 이곳에 서고보니 증오와 원한의 감정부터 앞서게 됨은 조국분렬의 고통스러운 력사가 지속되는데서 오는 피로움때문이라.

무심한것은 자연이랄까, 남북의 푸른 하늘가에 흰구름덩어리가 흐느적이고 온갖 새의 울음소리가 뽕뽕하게 긴장된 대기를 흔들며 오르내린다.

8월의 피약벌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사천교너머 보초소에는 번들거리는 철갑모에 권총을 찬 미제침략군보초놈이 뺨치고섰다.

거위영장같은 미제침략군보초놈은 지치고 무로한 나머지 하품이라도 할지 모르나 그 살벌한 눈에 들어앉은 탐욕과 껴진 심술은 잠자지 않을것이다. 그 보초놈뒤에 숨겨져있는 미제침략군과 박정희괴뢰군의 군단, 탱크, 비행기, 함대, 핵탄두로 장비된 살인무기가 뽕뽕출치듯 남녘땅을 가로세로 짓밟고 서있는지 34년이 된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오늘에 와서는 박정희괴뢰들을 부추겨 분계선 전구간에 걸쳐 철근콘크리트장벽을 쌓아 조국관도를 동강냄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로 그러쥐자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 조선을 정복하려는 침략적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최근에는 남조선만이라도 영원히 식민지로 그러쥐려는 목적에서 <두개조선>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는 한편 남조선반동들을 민족 분렬의 길로 끊임없이 부추기고있습니다.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입니다.》

남조선반동들의 등뒤에서는 미제 상전이 조종하고 꼭두각시들은 춤을 춘다.

이 추물들은 민족의 영구분렬과 《두개조선》책동에 매달려 못하는 것이 없다. 항시적인 긴장상태의 격화, 전쟁도발을 목적인 군사장비의 강화, 악명 높은 살인장군들의 뽕뽕난 군사분계선지대의 《방문》… 얼마전에는 미제의 우두머리 카터놈까지 날아와 음흉한 모의를 꾸렸다. 그놈들의 온갖 모략은 그 어느것이든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정면으로 맞서며 양양된 통일기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것이 없다.

침략의 원흉인 미제의 철면피한 간섭과 그 압잡이들의 강도적인 악정으로 말미암아 오만가지의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력사의 기록은 지금 내눈앞에 펼쳐지는 분계선 남쪽 정경에서만도 립증이 되고 남음이 있다.

존엄있는 인간에게 욕된 생활이 덮여있는 때로부터 사람사는 질서도 뒤죽박죽이 되고 풍토마저 거칠대로 거칠어지고말았다. 저만치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에 드러내놓은 대성동일대는 그야말로 쑥밭이 된 허허벌판에 사나운 바람만이 오락가락할뿐이다.

사람들은 어디로 흩어졌는가, 한지맥으로 잇닿은 강토가 갈라지면서 한술의 밥을 먹던 혈육이 남북으로 흩어져 생사여부조차 모르는채 끊어진 립진강 다리가 이어지기를 기다린지도 벌써 3분의 1세기 이상이 넘었다.

생각이 이에 미칠때 덩달아 떠오르는 하나의 무서운 인상이 있다. 어느 전람관에 전시된 분계선 꺾어진 철길 한복판에 선 나무의 사진이다. 그것이 록두알보다도 작은 한알의 씨알맹이에서 자랐다고 생각할 때 마음은 더욱 쓰렸다. 철길우에 날아떨어진 씨는 움이 트고 뿌리는 내려 수십년간 아름다리 큰 나무로 자라나 이땅우에 서리고 맺힌 원한과 증오를 그대로 내뿜듯 바람에 무성한 가지들을 설레고 있다.

씨가 떨어진대로 살기 마련인 그 나무에 무슨 허물이 있을가만 사람의 가슴에 그토록 참기 어려운 아픔을 주는 나무이다. 민족에게 덮여온 비운은 이런데서까지 저주롭게 심각하게 드러나는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이러한 재난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자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토량단의 첫날부터 주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도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오시였다.

그에 따라 조국통일위업은 부단히 전진하였다.

대세는 어쩔수 없이 민족자주통일의 거센 바람을 쫓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물론 서로 갈라진지 오랜 세월이 흐른 북과 남사이에 제도, 리념, 생활에 차이가 생긴것만큼 그것의 통일이 순바닥뒤집기처럼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리라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구한 우리 나라 력

사에 일찌기 있어본 일이 없는 민족의 분렬이라는 엄혹한 시련앞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겨레의 통일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루어야 할 성스러운 위업이다.

참으로 조국의 통일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문제여서 민족의 이 숙원을 이룩하자면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조국통일의 위업실현에 발벗고나서야 할것이다.

그렇다, 갈라진 조국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공통된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서만 해결할수 있다는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앞으로도 줄기찬 투쟁을 벌릴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산천도, 사람도 하루하루 어지러워지고 이질화되어가고있는 남조선실정이다. 통일만이 살길이요, 갈라져서는 민족의 장래발전도, 후손만대의 번영도 기대할수 없다는 사실을 끝수에 사무치게 느낀적이 그 얼마인가.

그런데 이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은 외세를 등에 업고 매국배족행위로 살찌가는 반역자때문에 걸음마다 난관에 부딪히고있다.

미제상전의 심술궂은 훈수를 받는 박정희피뢰악당은 대세의 흐름에 어쩔수 없이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끌려나오기는 하나 번번히 부당한 꾀변으로 입씨름을 벌리는가 하면 돌아서서는 만 장난을 하기에 피눈이 되어 날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오늘에 경험하는 일이 아니다.

당초에 통일을 원치 않는 박정희피뢰도당은 무슨 《단계론》이란것을 내들렸고 그것이 《진화》를 했던지 단결에는 《대결》로, 합작에는 《경쟁》으로, 통일에는 《공존》로선이라는것을 떠들며 악을 썼거니와 얼마전에는 협의대상을 《책임있는 당국자》에 국한시키자는 해괴한 고집을 쓰다가 회담장에서부터 뺑소니를 치는 피뢰들만이 할수 있는 추태를 또다시 연출하였다. 최근에는 또한 악명높은 위선자이며 평화의 교살자인 카터놈이 남북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흉책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서울에 기여들었다.

어떻게 하나 대화를 파괴하고 분렬을 공고화하려는 온갖 추잡스러운 짓을 네투리로 하는 그놈들의 더러운 침략행위야말로 우리 겨레를 모독하며 세계선량한 사람들의 의사에 침범는 망동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통일을 바라는 립장이 아니란 말인가.

모처럼 통일문제를 논의할 계기가 마련되었건만 박정희피뢰악당은 이를 기회로 통일이란 말을 악용해가며 궁지에 몰린 파쇼독재를 구해보려는 가증스러운 책동을 했을뿐이다.

년초부터 박정희피뢰도당은 우리가 주동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일방적인 비방중상을 더욱 강화하고 대화 재개와 때를 같이하여 이른바 《템스피리트 79》라는 화약내풍기는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리지 않았던가.

또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준비과정에서부터 겨레의 각계각층대표가 참가해야 민족전체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할수 있다는 원칙에 맞서 피뢰들은 어떤 오그랑수를 썼던가. 협의대상은 《당국자》라야 한다느니. 이미 기능을 상실한 조절위원회의 연장이여야 한다느니 고집하면서 뒤로는 부랴부랴 《통일구국》이란것을 내세워 무슨 서명운동이란것을 벌렸다. 이는 피뢰들이 《당국자회담》을 고집하기 위해 덮어놓고 우리측을 반대하는 관제여론의 물적증거를 만들기 위한 놀음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강제로 통일을 반대하게 만들어놓고 본다는 술책이란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통일이란 말만 들어도 발작적으로 파쇼몽둥이를 휘두르는 그들이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구속의 탕개를 더욱 조이는 까닭도 명백하지 않은가.

그것은 인민들의 생가죽을 벗겨도 말을 말라는, 공포속에 몰아넣지 않고는 피뢰의 명맥을 더는 부지할길이 없는데서 빚어내는 단말마적인것이다.

개가죽을 쓰고라도 저만 잘되면 그만인 사대망국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추에 씻을길 없는 죄악을 높이 쌓는다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민족의 래일을 근심하는 우리 인민은 거듭 주장하는것이다. 진정으로 통일을 념원했다면 우선 속에 품은 칼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왔어야 한다고...

조국의 통일은 조선민족 내부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빛바람속에 통일의 기운은 마냥 짙어지기만 한다. 우리의 통일위업은 어디까지나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겨레의 통일이니만치 오로지 민족의 단결과 신뢰에서만 가능하다.

우선 남조선에서 박정희역도가 할애비처럼 받들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건전한 사회정치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회복되며 《반공법》이니 《국가보안법》, 《긴급조치》니 하는 따위의 살인악법들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단결과 합작이 이루어질것이고 나아가 통일의 문도 열릴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오직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다.

그러하기에 국내외에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성원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충심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량심은 남북정치사회단체의 대표, 각계애국인사, 해외교포들의 애국단체 및 개인을 망라한 전민족대회에서 조

국통일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는것이다

8월의 폭양밑에 미제 침략군보초놈도 이 화약내 풍기는 분계선의 공기를 한층 살벌하게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북녁하늘을 노리고있는가보다.

그러나 사대망국노들과 외세의존자들은 미제 침략자들의 생억지를 가지고도 간사한 왜적의 흥계를 가지고도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을 막을길이 없으며 통일의 진리를 깨닫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하나》라는 철리는 바뀌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반항이 있는법이다. 남조선의 애국적인 인민들이 돌은 돌로 갠다는 속담이 가르치는대로 힘을 뭉고 지혜를 모아 민족 단합의 한길우에 우리모두 함께 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이렇게 될 때만 원한과 증오의 지점인 판문점도, 분계선도 축복받는 지역으로 바뀌어 우리모두의 가슴에 정겹게 안겨올것이다.

그날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의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이 민족의 숙원을 이룩하기 위한 거세찬 투쟁에 일떠설때만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떼를 몰아

류민호

물길도 좋아라
굽이굽이 산굽이
버들꽃 핀 숲속을 돌아
긴떼를 몰아가면
물새도 훨훨
떼머리에 훨훨

진달래 떨기진 물동가에서
처녀들 혼드는 빨간 머리수건
천리물길에 따라서고
산촌길을 달리는
빠스의 창가마다,
꽃봉오리들이 손저어 바래주네

노래도 웃음도
떼우에 실렸으니
에헤라, 내 가슴에도 노래와 웃음은 넘쳐
험한 여울 깊은 소에도
놀대를 슬쩍 움직이면
백자떼목 열폭떼가
고분고분 휘여든다

흘러라 떼여
낮이면 총총 다락밭에
만풍의 설레임소리 실려오고
밤이면
건설기지 용접의 불보라
하늘의 은하인양 비껴흐르는
나의 일터
예보다 더 좋은곳 어디 있으랴

깊은 산
깊은 굽
세찬 물길을 헤쳐도

즐거워라
일떠서는 새거리
해빛어린 창문들
준공의 첫 기쁨을 터치는
화학기지의 고동소리를 한가슴에 안아보며
흘러내리는 이 떼길은...

얼마나 많은
조국의 기쁨과 웃음이 떼우에 실렸느냐
석탄폭포 쏟아내는
천길막장 탄부들의 즐거움과
아담한 학교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아 달리는 이 길에
즐비한 새 거리 더 높이 키를 솟구고
저기 창조의 현연기는 창공높이 피어오르고
사람마다 더욱 흥에 겨워
우리들을 반겨주누나

흘러라 떼여
물결타고 바람타고
바라보는 산과 들에
조국의 웃음과 행복이
더 빨리 마주오는듯싶구나

아 나의 일터
타고가는 물결은 바다로 가고
흐르는 마음은
수령님의 사랑이 꽃피는
행복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거니
에헤라, 우리 가는 이 길은
언제나 기쁨의 길이라네
언제나 노래의 길이라네

력사는 지켜보고있다

김익철

려행길에서는 흔히 즐거운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보통현상으로 되어있으며 그래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렬행을 할 때에는 보는것 듣는것 모두가 기쁨으로 되는 경우를 나는 여러번 체험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때로 있는것이다.

내가 청진행렬차를 타고 출장을 떠난 어느날의 일이었다. 렬차는 날밤을무렵부터 푸른 물결이 쉽없이 굽이치는 바다기슭을 달리고있었다.

오래만에 동해선렬차에 오른 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것이 몰라보게 변모된데 놀라면서 줄곧 창밖으로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전에 비해 몇배나 넓어진 항구와 숲처럼 일어난 기증기들,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난 도시들, 새로 선 공장들... 눈에 띄는 모든것이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레년에 드문 좋은 작황을 이룬 농장벌에서는 트랙터들이 통탕거리며 풍년벌을 누빈다. 은물결 금니는 바다우에서는 어로선단이 분주히 오가며 바다속 재부를 건져내고있다.

이 아침 저 항구와 공장, 농촌들에서는 보람찬 창조의 새 하루를 맞이하고있으리라.

렬차방송이 시작되면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여났다. 조용하던 차칸이 차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내옆에 자리잡은 제대군인청년은 할머니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얹전하게 앉아있는 소녀애를 꼬드겨서 끝내 독창까지 시키였다.

《노래를 참 잘하누만. 하나 더 해라.》

《아저씨두 같이 하자.》

《거 이중창이 좋겠수다. 그 애하구 한번 해보우다.》

건너편좌석에 앉은 소녀애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차칸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먼저 노래를 부르구 넘기오.》

모두 그게 좋겠다고 벌써부터 입이 벅그러지는것이였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억양을 높인 방송원의 목소리가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고성기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성명을 보내겠다고 거듭 알려주고있었다. 무슨 중요한 방송인것 같았다.

이윽고 조용해진 렬차안에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리였다.

《지난 7월 20일 미국대통령 카터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1981년까지 동결시킨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행복과 랑만이 흘러넘치던 렬차안은 삽시에 얼어붙은듯 긴장해졌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분노가 어리였다.

나는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같은것이 꿈틀거리는것을 느꼈다. 미제의 우두머리 카터가 뇌까린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공약을 주의깊이 지켜보고있던 나는 너무도 뻔뻔스럽고 도전적인 그놈의 처사에 격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내 그럴줄 알았다니!》

제대군인이 격한 음성으로 말하자 휴양지에서 돌아온다는 용해공이 받았다.

《승냥이주둥아리에서 뼈꾸기소리 나겠소.》

여기저기서 미제를 저주하는 격분에 찬 말마디들이 들려왔다. 하기가 이 소식에 접하고 격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데 있겠는가! 미제야 말로 변할수 없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조선을 정복하려는 침략기도를 의연히 버리지 않고있으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34년이란 기나긴 세월 조선인민에게 갖은 고통을 강요해온 장본인이며 침략의 원흉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미제의 우두머리 카터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화약내풍기는 폭언으로 조선인민을 모독했으니 보도를 듣는 사람들의 격분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는가.

나의 머리속에는 언뜻 얼마전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에서 보았던 구절구절들이 되살아났다.

서울에 기여든 카터는 이른바 《공동성명》이란것에서 《미국의 군사적존재를 계속 유지》하며 남조선의 《군사력증강》을 앞으로도 지원해줄데 대하여 《확약》했던것이다. 그후 미국으로 돌아간 카터는 드디어 제 속심을 완전히 드러낸셈이다.

사람들은 분노 어린 표정들을 한채 방송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있었다.

《그것은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 <공약>을 배반하고 계속 교활하게 흥책을 꾸미고 음흉하게 책동하여온데서 날날이 드러났다.…」

방송원의 격조높은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심정을 적개심으로 흥분시켜주었다.

반박할 여지 없는 론거로 카터의 비행을 날날이 발가놓는 방송을 듣노라니 철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에 찬 생각들이 줄달음쳐 떠올랐다.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교활성과 악랄성, 잔인성과 극악성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에 풀수 없는 원한을 남긴 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자기의 더러운 본성을 깊이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최근 카터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반대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땅에 더러운 발길질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아메리

카대륙으로부터 카터란자가 남조선에 기여든 때가 과연 어떤 때였는가?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미제는 조선땅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던 때였다.

이러한 때 뻔뻔스럽게도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쟁의 화약내를 풍겨놓고 돌아간 카터는 행장을 풀기 바쁘게 고작 뇌까렸다는 수작이 《미군철수동결》이란 말인가.

미제우두머리가 카터가 아무리 인두집을 썼다고 하기로 세상사람들의 면전에서 이렇게까지 파렴치할수 있단말인가.

하기는 승냥이배속에서 양이 나올수 없듯이 세상에 나자부터 침략과 략탈로 살진 아메리카의 피줄을 들고나온 족속의 하나인 카터가 자기의 선임자들과 다른 길을 갈수는 없는것이다.

일찌기 19세기중엽부터 피묻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강압체결하고 장차 조선침략의 길을 닦은 미제국주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착실히 뒤받침해주었을뿐 아니라 마침내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전쟁의 참화까지 들썩운 미제였다.

미제의 이러한 피발린 력사의 걸음걸음은 유관국들과 맺은 온갖 협정과 선언, 공약과 조약들을 깬그리 저버리는 용납 못할 배신행위의 련속과정이었다.

먼 과거것은 그만두고라도 제 2차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만 보아도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제가 패망한뒤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국제협약을 짓밟고 남조선을 영구강점한것이 트루먼이었다.

조선정전협정에는 정전후 3개월안으로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전쟁의 화약내가 채 가시지도 않았던 1953년 8월8일에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해낸것이 아이젠하워였다.

그 후임들은 케네디, 닉슨, 존슨, 포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란 자들도 내리 꼽아보아야 하나같이 조선인민앞에서, 세계인민앞에서 자기들이 한 언약과 국제법과 협정, 조약들을 철회하는데 이골이난 자들이었다.

카터는 교활성에서 자기의 선임자들을 능가하고 있다. 카터는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기 위하여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민을 기만우롱하였다. 그가 들고나왔던 《인권옹호공약》만해도 그렇다.

오늘 박정희퇴도당이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처럼 인권이 유린당하고있는곳이 과연 세상 어디에 또 있단말인가.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한결같이 일떠서 싸우는 남반부인민들에 대하여 전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은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과연 카터가 《인권옹호》라는 구호에 털끝만한 진실이라도 부여했다면 인권말살의 극치를 빚어놓은 박정희도당의 처사를 비호하고 부추겨줄수 있단말인가.

이번에 카터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3당국회의》만 보아도 그렇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위하여 조선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산재밥에 메뚜기 뛰어들듯 미제가 무엇때문에 뛰어들려고 하는가.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두개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본래의 야망을 되풀이한데 지나지 않는다.

만일 카터가 대통령감투를 쓸 때 제임스로 한 《공약》을 리행하려 한다면 웅당 《3당국회의》가 아니라 7.4공동성명의 원칙대로 조선의 통일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초보적인 성의라도 보여줘야 했을것이다.

제반 사실은 미제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원치 않으며 새 전쟁의 불길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녀애가 나의 팔소매를 당기는 바람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아저씨. 왜그나?》

나를 뵈히 쳐다보는 소녀애의 울롱해진 눈에는 강한 의혹의 빛이 담기였다.

《응,미국놈이 나쁜놈이여서 그런다.》

꽃망울처럼 방실방실 피어나는 이 어린것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가고 전쟁의 불길을 들썩우려는 미제에 대한 적개심이 참을수 없이 끓어번졌다.

조선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재부를 빼앗고 파괴말살한 미제국주의인가.

《그저 미제놈들은 씨종자가 마르게 쳐엎애야 되우다.》

할머니는 소녀애를 꼭 품어안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렇다, 미제는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 원수이다.

미제가 제아무리 우리 인민에게서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생활을 빼앗으려 해도, 제아무리 우리의 행복과 웃음을 빼앗으려 해도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는 지켜보고있다.

누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며 이 땅에 재부를 늘리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로동을 이어가고있으며 누가 가짜 《평화》를 뇌까려대며 침략과 약탈, 살인과 파괴만을 빚어내는 전쟁을 추구하고있는가를.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청소했던 우리 조국을 알보고 덤벼들었다가 도리어 저들의 멸망의 내리막길을 열어놓은것으로 종말을 지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교훈이 있지 않는가.

하물며 오늘의 우리 조국에 대해서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속도전의 기세높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위대한 힘은 그 무엇으로서도 막지 못한다. 투쟁으로 지켰고 창조로 마련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그 어떤 흉악한 원수도 빼지 못한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저들이 지른 불길에 영영 타죽고말것이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의 진리이다.